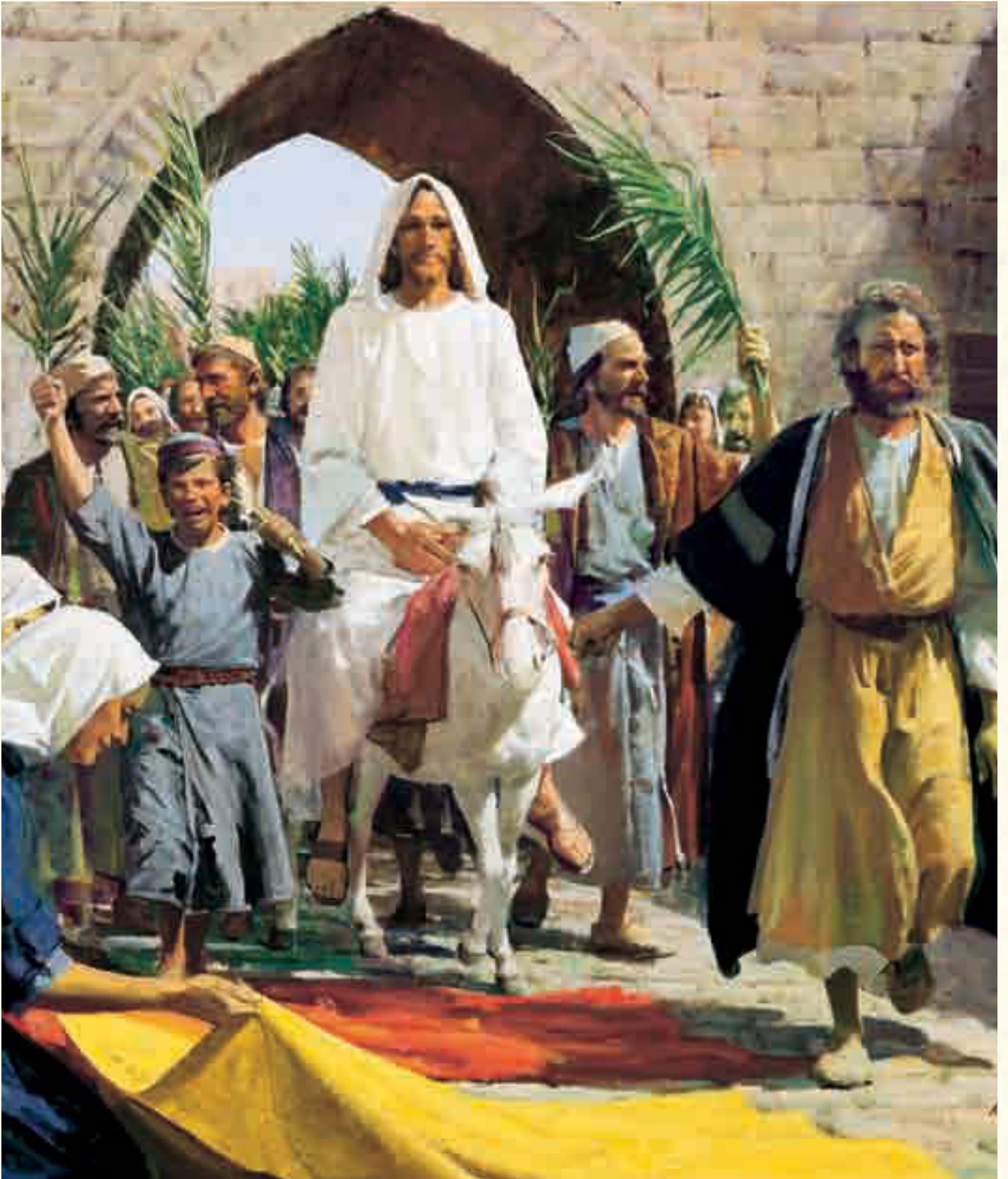


리아호나

부활의 증거들,
16, 28쪽

결혼 결정에 대한
두려움에서 신앙으로, 20쪽
데이트에 관한 모든 것, 50쪽
어린이: 색칠하고 만들기, 73쪽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 해리 앤더슨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요한복음 12:12~13)



리아호나, 2010년 4월호

메시지

- 4 제일회장단 메시지: 하나님의 위대한 사업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 7 방문 교육 메시지: 개인적인 계시를 구하고 받음

특집 기사

- 14 코나를 위한 성전
알 발 존슨
성전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면서 이 부부는 축복을 받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축복을 전했다.
- 18 난 성전에 가야 해
마이클 알 모리스
성전에 참석하려는 80세 회원의 의지를 꺾을 수 있는 것은 없었다.

- 20 자신감 시험: 두려움을 극복하고 결혼이라는 신앙에 이르기까지
랜스 비 위크맨 장로
결혼과 관련된 결정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자신감을 잃지 않고 그 일을 할 수 있다.
- 24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성전 결혼
비탈리와 예카테리나 쉬마코프
열한 시간이 걸리는 거리도 둘이 영원한 결혼을 이루는 데 장애물이 되지는 않았다.
- 32 피지: 신앙의 열매
돈 엘 설
순종을 통해 변화된 피지 회원들의 삶을 보여주는 세 가지 예

교회 본부 기사

- 8 작고 단순한 일
- 12 교회 봉사: 교사의 가치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 13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그가 그들의 부족함을 짊어지실 것이니
진 에이 테판 장로
- 16 우리의 믿음: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 28 복음 고전: 부활의 확실성
스펜서 더블류 김볼 회장
- 38 후기 성도의 소리
- 74 교회 소식
- 80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인봉된 무덤
데이비드 엘 프리스취크네취트


표지
앞: 나의 손을 보라, 제프 와드. 뒤: 나를 만지지 말라, 미네르바 테이제르트, 브리검 영 대학교 미술 박물관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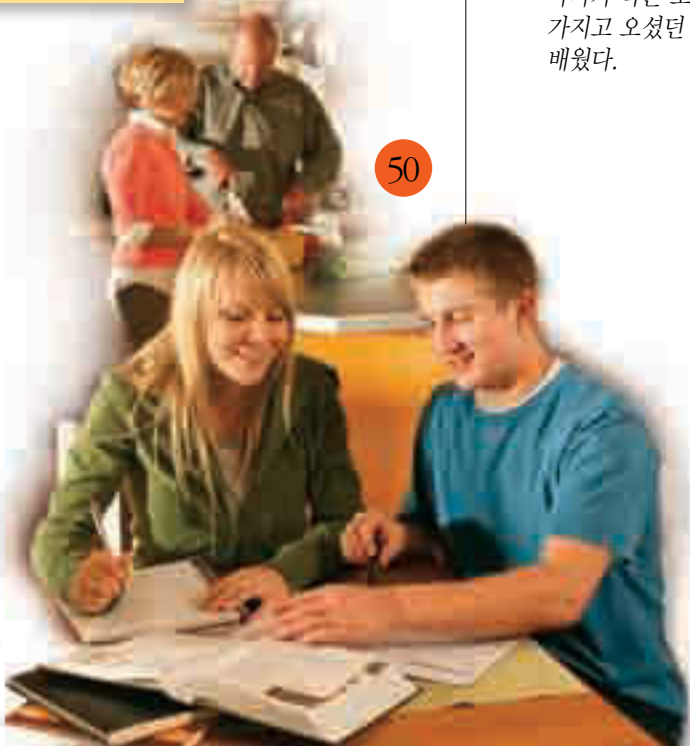
42

42 내 삶의 복음: 니파이 이야기, 나의 이야기
익명

44 우리에게 주신 말씀: 지금 바로 수준 높은 삶을 사는 사람이 됩시다
마빈 제이 애쉬튼 장로



이번 호 잡지에 숨겨진 리아호나를 찾아보세요.



50

46 질의응답

“주변에 단정하지 못한 모습이 많이 보일 때 어떻게 제 생각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48 나는 어떻게 아는가
아버지의 포옹

루이스 페르난도 메이코트

49 포스터: 앞을 바라보십시오

50 데이트에 관해 청남에게 주는 권고

본부 청남 회장단

데이트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전문가에게 한 번 물어볼까요?

51 데이트에 관해 청녀에게 주는 권고

본부 청녀 회장단

데이트 상대를 현명하게 선택하는 방법

53 우리들 공간

54 그 일이 일어나도록 도와십시오

리차드 엠 롬니

인도의 청녀 세 명이 가정의 밤이 가져다 주는 축복을 지부 회원들이 받도록 돕는다.

56 이른 일요일 아침

찰스 더블류 달퀴스트 이세

피지의 청남들은 동트기 전 이른 아침에 행복하게 일어나 신권의 의무를 수행한다.

58 오리가 물에 뜨지 못할 때

웬디 워스 테일러

아빠가 작은 오리 새끼 세 마리를 가지고 오셨던 날 귀중한 교훈을 배웠다.



72

60 초등학교 반주자

젠 핀보로우

이 아이들은 피아노 연주법을 배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피아노 연주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란다.

62 노래: “날 따르라”

존 니콜슨과 새뮤얼 맥버니

63 우리들 이야기

64 구주의 어린 양을 먹이도록 도움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다른 사람들이 신앙을 키우도록 여러분은 도울 수 있습니다.

66 함께 나누는 시간: 예수

그리스도는 조셉 스미스를 통해 총명한 복음을 회복하셨습니다.

샌드라 태너, 크리스티나 프랜코

68 웨딩 드레스와 계획

제인 맥브라이드 초아트

로리는 누나의 성전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해 슬프다. 하지만 로리의 누나는 로리에게 언젠가 성전에서 결혼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가르친다.

70 어린 친구들을 위하여

2010년 4월호, 제47권, 제4호
리아호나 09284 320

리아호나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한국어 판 공식 잡지입니다

제일회장단: 토마스 에스 몬슨, 헨리 비 아이어람, 디터트 예프 우흐트도르프
리사사도 정원화: 보이드 케이 페커, 엘 톰 페리, 러셀 엠 넬슨, 델린 에이치 옥스, 엠 라셀 벨라드, 리처드 지 스킵트,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홀런드,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쿠엔틴 엘 쿡,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날 열 앤더슨

편집인: 스펜서 제이 콘디
고문: 키스 케이 월버그, 요시히코 가구찌,
폴 비 파이퍼
관리 책임자: 데이비드 엘 프라쉬네하트
편집 책임자: 빅터 디 케이브
선임 편집인: 래리 힐러
그래픽 책임자: 앨런 알 로이보그

관리 편집인: 알 밥 존슨
관리 부편집인: 제니퍼 엘 그린우드, 아담 시 울슨
공동 편집인: 라이언 카

보조 편집인: 수잔 배넷
편집 스태프: 데이비드 에이 에드워즈, 매튜 디 플리트
라렌 포터 곤트, 캐리 캐스틴, 제니퍼 매디, 멜리사 메릴, 마이클 알 모리스, 셸리 제이 오데카르, 에니 존스, 조슈아 제이 퍼커, 제드 이 페라스, 켄 핀보로우, 리처드 엠 린니, 돈 열 설, 제넷 토마스, 폴 벤덴버그, 줄리 웨일
선임 비서: 로벨 튜셔

관리 미술 책임자: 엠 엘 가와사키
미술 책임자: 스킵트 벤 캠핀
제작 부장: 제인 앤 피터스
디자인 및 제작 스태프: 캘리 알 아로요, 콜레트 네베거 오운, 하워드 지 브라운, 줄리 버넷, 토마스 에스 차일드, 레지널드 제이 크리스텐슨, 킴 핀스터마커, 캐슬린 하워드, 에릭 피 존슨, 드니스 커비, 스킵트 엠 무이, 지니 제이 넬슨
사진 인쇄: 제프 엘 마틴

인쇄 책임자: 크레이그 케이 세지워크
배부 책임자: 랜디 제이 벤슨

통 관: 제525호, 제47권, 제4호
등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2010년 4월 1일(월간지)
발행인: 정동환
편집인: 박승호
번역 책임자: 조현석
발행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7번지
인쇄인: 주식회사 보진재 김정선

리아호나 신청 및 문의

홈페이지: www.lds.or.kr에 접속하여 좌측 **리아호나** 메뉴를 클릭합니다.
이메일: koreadc@hanmail.net으로 신청서를 전송합니다.
(신청서는 www.lds.or.kr "교회 출판물 및 잡지 신청"에서 다운로드 합니다.)
전화: 리아호나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십시오.(전화 080-232-1441)

구독료
1년 구독료는 7,000원, 권당 가격은 1,000원입니다.(해외 구독은 개별 문의 바랍니다.)
아래 계좌로 입금해 주십시오.
예금주: (재)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신한은행 100-001-389810, 우체국 010041-01-000240

원고와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Liahona, Room 2420,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0024, USA; 또는 이메일: liahona@ldschurch.org

리아호나(나침반 혹은 지시기를 뜻하는 물문경 용어)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됩니다. 그리스어,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라트비아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리투아니아어, 마다가스카르어, 마살어, 몽골어, 베트남어, 불가리아어, 비슬라비아어, 사모아어, 세부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슬로베니아어, 스릴라어, 아르메니아어, 아이슬란드어, 알바니아어, 에스토니아어, 영어, 우르두어, 우크라이나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체코어, 캄보디아어, 크로아티아어, 키리바시어, 타갈로그어, 타밀어, 타이어, 타히티어, 텔루구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피지어, 핀란드어, 헝가리어, 힌디어 (발행 횟수는 언어에 따라 다름)

© 2010 by Intellectual Reserve, Inc.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리아호나에 실린 기사 및 사진은 교회 및 가정에서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시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사진은 복사 제한 문구가 있는 경우 복사를 금합니다. 판권에 관한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 USA
이메일: cor-intellectualproperty@ldschurch.org.

리아호나는 인터넷 웹사이트 www.lds.org에서 여러 언어로 찾을 수 있습니다. 영어는 "Gospel Library"를 클릭하십시오. 다른 언어는 "world map"을 클릭하십시오.

April 2010 Vol. 34 No. 4. LIAHONA(USPS 311-480) Korean (ISSN 1521-497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2.0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Visa, Master Card, American Express) may be taken by phone. (Canada Poste Information: Publication Agreement #40017431)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인터넷에 실린 추가 기사

Liahona.Lds.org

성인



전 세계 여러 회원들이 보내온 사진들을 보고 싶다면, www.liahona.Lds.org를 방문한다.

청소년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 웹사이트 <http://abrandnewyear.Lds.org>를 방문하여 데이트에 관한 인기 있는 비디오를 시청한다.

어린이



복음 그림 색칠하기를 좋아하나요? 그렇다면 www.liahona.Lds.org에서 쌍방향 색칠하기 자료를 찾아보세요.

여러분의 언어

온라인 교회 자료를 여러분의 언어로 찾아보려면 www.languages.Lds.org 를 방문한다.



사진 상화, 크레이그 데이비드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제일회장단 제2보좌



하나님의 위대한 사업

1830년 4월 6일

180년 전,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 그리고 그 외 몇몇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를 조직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출한 자리였지만 참으로 영적인 모임이었습니다. 조셉은 성찬식 후에 “성신이 풍성하게 부어졌고 예언을 하는 이들도 있었으며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찬양하며 대단히 기뻐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날 일어난 일은 세상의 이목을 끌지는 못했습니다. 신문에 머리기사로 실리거나 보도되지도 않았습니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지상에 다시 세워진 그날,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솔로몬 체임벌린

그날 이후로 수백만에 이르는 하나님 아버지의 충실한 아들 딸이 성신의 속삭임을 따라 성스러운 침례의 물에 들어갔습니다. 그 중에는 솔로몬 체임벌린도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여러 시간 동안 기도를 드리며 죄 사함을 구하고 진리로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했습니다. 1816년 어느 날, 솔로몬은 시현에서 자신이 살아 있는 동안 사도의 위계질서가 지상에 다시 한 번 확립되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질 날을 볼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수년이 지난 후, 솔로몬은 캐나다로 향하는 배에

올라탔습니다. 배는 뉴욕 주 팔마이이라고 불리는 작은 마을에 잠시 정박했습니다. 그곳에서 솔로몬은 배에서 내려야 한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자신이 그곳에 왜 있는지도 모르면서 솔로몬은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얼마 안 되어 솔로몬은 “금으로 된 성경”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솔로몬은 “마치 전기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통하는 듯 강한 힘”을 느꼈다고 합니다.

솔로몬은 수소문 끝에 스미스의 집에 당도했고, 그곳에 있던 사람들에게서 회복된 복음이라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곳에서 이들을 보내며 진리에 대한 간증을 얻은 솔로몬은 갓 인쇄되어 아직 제본도 되지 않은 몰몬경 64쪽을 들고는 캐나다로 가는 여행길에 다시 올랐습니다. 어딜 가든 솔로몬은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상관 없이 …… 이제 막 도래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업을 위해 준비하도록”²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업

1830년 4월 이후 수백만에 이르는 사람들이 회복된 복음 진리를 발견하고 침례의 물에 들어섰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이 위대한 사업’이 오늘날에도 지상에서 계속 전진하고 있음을



본 메시지를 활용한 가르침 제언

한 사람의 모범은 가장 강력한 교수법 가운데 하나이다. *(교사, 가장 중요한 부름*[1999년], 18쪽 참조) 솔로몬 체임벌린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가족들에게 솔로몬이 어떻게 영의 속삭임에 따랐는지 찾아보려고 권유한다. 솔로몬의 모범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 토론한다. 다른 사람의 훌륭한 모범으로 도움을 받은 경험을 나누어 달라고 요청한다.

간증드립니다. 주님께서 그분의 교회를 돌보시며 선지자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을 통해 교회를 이끄신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이 후기에 살고 있다는 것은 평범한 축복이 아닙니다. 이 시기는 고대 선지자들이 예견하고 천사들이 조심스럽게 거들어 도와줬던 영광스러운 시기입니다. 주님은 그분의 교회를 지켜보십니다. 또한 솔로몬 체임벌린과 같이 성신의 속삭임을 따르며 하나님의 이 위대한 사업을 전진시키기 위해 전 세계에서 도움을 주는 형제 자매들의 대열에 동참하는 사람들을 지켜보십니다. ■

주

1. Joseph Smith, *History of the Church*, 1:78.
2. "A Short Sketch of the Life of Solomon Chamberlain", 원고, 교회 역사 도서관(인터넷 www.boap.org/LDS/Early-Saints/SChamberlain.html); 또한 William G. Hartley, "Every Member Was a Missionary", *Ensign*, 1978년 9월호, 23쪽 참조. 교회가 조직되고 며칠 후 솔로몬 체임벌린은 조셉 스미스로부터 뉴욕 주 세니카호에서 침례를 받았다.

청소년

나의 신앙을 시험하여

열세 살이 되면서부터 나는 매일 물몬경을 읽었으며, 그 이후로 매일 축복을 받았다.

제이슨 영

열세 살짜리 아이들이 참석하는 주일학교는 그다지 경건하지 않다. 그러나 우리는 매번 영으로 가르치려고 최선을 다하는 훌륭한 선생님에게서 공과를 들었다. 그 중 하나는 경건 읽기에 관한 공과였다.

공과를 마치면서 자매님은 우리에게 목표를 하나 주셨다. 그 목표는 우리 모두에게 주는 것이었지만 웬일인지 자매님은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루도 빠짐없이 물몬경을 읽으라는 목표를 드리겠어요!"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제가 보여 드릴게요. 꼭 해낼 거예요!'

바로 그날 밤, 나는 니파이전서 1장부터 시작했고, 그 이후로 매일 경전을 읽었다. 아마도 처음에는 올바른 태도로 시작한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물몬경을 읽을 때 받는 느낌이 좋아졌고, 이내 매일 밤 물몬경을 읽는 일은 즐거운 습관으로 자리 잡았다.

여러 달이 지난 후에 나는 엘마서 32장에 이르렀다. 이 장에서 신앙을 시험해 보라는 구절을 읽으면서 큰 감명을 받았다. 마침 학교에서 과학 실험에 관해 배우던 때였다. 나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께 시험을 해 보겠다고 말씀드렸다. 그리고는 물몬경이 참된지 알 수 있게 해 달라고 간구했다.

뒤늦게야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 차례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음을 깨달았다. 매일 물몬경을 읽으면서 악을 극복하는 능력이 커졌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더 가까워졌음을 느꼈다. 성신의 권능을 통해 장애물을 극복할 만큼 내 자신이 강해졌다는 것을 느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해 보라는 엘마의 말은 옳았다. "이것이 내 영혼을 크게 하기 시작함이라. 참으로 이것은 나의 이해력을 밝혀 주기 시작하나니, 참으로 이것은 내게 기쁨을 주기 시작하는도다"(엘마서 32:28)

어린이

보통 이상의 축복

교회는 180년 전 4월에 조직되었습니다.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은 오늘날, 즉 교회가 회복된 시기에 사는 것은 "보통 이상의 축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교회를 통해 그분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위대한 축복을 알아보려면 아래 성구를 찾아보세요. 그런 다음 각 구절에 맞는 그림을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22:16

교리와 성약 20:8~12

니파이후서 32:5

아모스 3:7

야고보서 5:14~15

교리와 성약 110:7~10



아이들
공간

우흐트도르프 회장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업"을 도울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업을 도울 수 있을까요?



개인적인 계시를 구하고 받음



방문하는 자매들에게 축복이 될 만한 성구와 인용문, 또는 다른 원리를 가르친다.

교리에 대해 간증한다. 자매들에게 무엇을 느끼고 배웠는지 나누어 달라고 권유한다.

개인적인 계시는 어떻게 구하는가?

“우리는 선지자들이 하는 것처럼 경전을 연구하고, 금식과 기도를 하고, 신앙을 키움으로써 개인적인 계시를 받습니다. 신앙이 열쇠입니다. 조셉이 첫번째 시현을 받기 위해 어떻게 준비했는지 기억하십시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 하나님께 구하라 ……’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¹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기도는 천국 문을 여는 여러분의 열쇠입니다. 자물쇠는 휘장 이쪽, 여러분 편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입니다. 계시가 노력 없이 그냥 주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해하지 못하였나니, 너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다만 내게 간구하기만 하면, 내가 네게 그것을 줄 줄로 여겼도다.

그러나 보라,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네 생각으로 그것을 연구해야만 하느니라. 그리고 나서 그것이 옳은지를 내게 물어라 하나니, 만일 그것이 옳으면, 내가 네 가슴을 내 속에서 뜨겁게 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는 그것이 옳은 줄 느끼게 되리라.”²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개인적인 계시는 어떻게 받는가?

“더욱 친근한 형태의 계시 또는 영감은 마음에 전해지는 말이나 생각(이노스서 1:10; 교리와 성약 8:2~3 참조), 갑작스러운 깨달음(교리와 성약 6:14~15 참조), 제안된 행동 과정에 대한 긍정적인 느낌이나 부정적인 느낌, 또는 예술 작품처럼 영감에 찬 공연으로도 옵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장[인] ……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영감은 소리보다는 오히려 느낌으로 더 많이 옵니다.’”³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방문 교육을 위한 제언

방문 교사로서 여러분은 가르치는 자매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그 부분을 해결하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영감을 받을 수 있다. 이 메시지를 가르칠 때 적절한 시점에서 방문 교육에 관하여 여러분이 받은 영감이나 도움을 나눈다.

개인적 준비

사무엘상 3:10

열왕기상 19:11~12

엘마서 5:46; 26:22

제3니파이 19:19~23

교리와 성약 8:2~3; 9:8~9; 88:63~64

“성전은 배움의 집입니다. 성전에서 주어진 많은 가르침은 상징적인 것이며 영을 통해 알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높은 곳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 의식과 성약의 의미에 대한 이해는 …… 우리가 배우려는 자세를 취하고, 가르침 받는 영원한 진리를 깊이 명상하며, 성전에 자주 갈 때 커질 것입니다. …… 정기적으로 성전에 참석함으로써 받는 영적인 힘과 계시를 누립니다.”⁴

실비아 에이치 얼리드,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제1보좌

주

1. “개인적인 계시: 선지자의 가르침과 모범”, 리야호나, 2007년 11월호, 88쪽.
2. “개인을 위한 계시: 은사와 시험과 약속”, 성도의 빛, 1995년 1월호, 59~60쪽.
3. “계시가 있는 8가지 이유”, 리야호나, 2004년 9월호, 8쪽.
4. “거룩한 성전, 신성한 성약”, 리야호나, 2008년 11월호, 113, 114쪽.

작고 단순한 일

“작고 단순한 일로 큰 일이 이루어지며”(앨마서 37:6)

성전 집중 조명



필리핀 마닐라 성전

고 든 비 힝클리(1910~2008) 회장은 1984년 9월에 필리핀 마닐라 성전을 헌납했다. 첨탑이 여섯 개인 이 아름다운 건물은 외벽이 반짝반짝 빛나는 하얀색 자기 타일로 되어 있고 주위에는 거대한 야자수와 다채로운 식물들이 자라난다.

이 성전은 허리케인이 두 차례나 필리핀을 휩쓸고 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공개되었다. 폭풍에도 불구하고 행사는 계획대로 진행되었다. 1984년 9월 3일에 고위 관리들이 성전을 둘러보고 갔다. 다음 날에는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었다. 건축 기간에 성전 건축 위원회에서 집행 서기를 맡았던 조벤시오 일라간

형제의 말처럼 “성전 위로 하늘에서 아름다운 장관이 연출되었다. 태양이 다양한 광채로 찬란히 빛나는 모습이 목격되었다. …… 모로나이 천사상이 있는 중앙 첨탑이 그 찬란한 빛 중심에 자리잡은 모습이 보이기도 했다. 성전 경내에 있던 백여 명이 그 현상을 보고 증언했다.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렸다.”

주

1. John L. Hart, “3 Temples Open to Public in a Week—a First Ever”, Church News, 1984년 9월 16일자, 3쪽.

필리핀 마닐라 성전은 필리핀에 세워진 첫 번째 성전이다. 두 번째 성전 건축 공사가 2007년 세부시에서 시작되었다.

마침내 들어간 아름다운 건물

교 회 회원이 되기 전에 나는 필리핀 마닐라 성전 근처에 살았다. 그곳을 지나칠 때면 그 웅대한 건물의 아름다움에 압도되곤 했다. 교회 이름이 무엇인지 보지는 못했지만 어느새 그곳에 들어가 보고 싶다는 소망이 생겼다.

몇 년 후에 하와이에 갔을 때에야 선교사들을 만나 침례를 받았다. 마닐라에 돌아왔을 때에는 오랫동안 그토록 들어가보고 싶어하던 건물 안에 내가 합당하기만 하면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정말 놀랐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느꼈다.

성전에 들어갔을 때, 마치 땅에서 떠올라 공중에 조금 떠 있는 듯한 기분이었다. 모든 것이 아름다웠다. 천국 같았다. 성전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가 하고 생각했다.

조아나 벨라요-문다, 필리핀



성전의 영을 느끼며

고 등평의원으로 부름 받은 나에게 스테이크 회장님은 스테이크 성전 방문 일에 더 많은 회원이 참석하기를 바란다 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교통 수단이 문제가 되었다. 그래서 우선 스테이크 회장님은 이용할 수 있는 버스를 알아보셨고 버스가 각 와드를 돌아다니며 회원들을 태워서 성전으로 가고, 성전 의식이 끝나면 그 버스로 다시 태워 오도록 조치를 취하셨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었다. 자녀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참석하지 못하는 어머니들이 많았던 것이다. 우리는 스테이크

청년들이 자녀를 돌볼 수 있을지 논의해 보았다. 그때 나는 우리가 스테이크 유아 지도자라는 부름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스테이크 회장님께 그것을 제안했다. 스테이크 회장님은 새로운 개종자가 성전의 영을 느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유아 지도자 부름을 주는 게 좋겠다고 하셨다. 그 제안을 실행에 옮기면서 많은 스테이크 회원들이 성전에 참석했다.

크리스티안 로블레스, 칠레

전 세계 교회 역사

그리스

리 가스 포펜티스와 니콜라스 말라베티스는 3년 동안 종교적인 진리를 찾아 헤맸다. 그러던 중 그들은 1898년 어느 날 우연히 몰몬교에 대해 언급된 신문 기사를 보았다. 호기심이 생긴 이들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교회 본부로 편지를 보냈다. 교회 지도자들은 두 사람을 찾아가 가르치도록 터키 선교부 회장을 그리스로 급파했다. 1903년에 니콜라스 말라베티스가 사망했으나 2년 후, 리가스 포펜티스는 교회 본부로 다시 편지를 써서 침례를 받겠다고 했다. 교회 지도자들은 다시 터키 선교부 회장을 보냈으며, 그는 포펜티스 형제에게, 그리고 그 외 다섯 사람에게도 침례를 베풀었다. 그 다섯 사람 중에는 니콜라스 말라베티스의 아내도 있었다.

이들이 처음으로 침례를 받고 6개월이 지난 후에 첫 선교사들이 그리스에 도착했다. 그러나 교회는 1909년부터 거의 70년 동안 그리스에서 선교 사업을 중단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그리스가 정치적으로 불안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는 사이, 그 지역에 주둔한 군인들이 그리스 사람들과



사도행전 17장에서 사도 바울이 설교를 했던 마르스 힐은 최근 몇 년 동안 간증 모임과 봉사 활동, 그리고 모범적인 그리스 국민들을 기념하는 장소가 되었다.

복음을 나누기 시작했다. 진전은 여전히 더디었다. 1967년 교회 군인 단위 조직을 대체할 아테네 지부가 조직되었을 때 지부 회원이 80명이었는데 그리스 사람은 겨우 여덟 명에 불과했다.

1972년, 당시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이던 고든 비 항클리(1910~2008) 장로가 그리스를 복음 전파 지역으로 헌납했다. 그때 이후로 1987년의

그리스어 몰몬경 출판, 1990년의 그리스 아테네 선교부 조직, 1999년의 그리스 첫 집회소 헌납과 같은 일들이 생기면서 교회 회원도 늘어났다.

회원(2009년)	661명
지방부	1개
지부	5개



모든 가족을 가정의 밤에 참여시킴

- 모든 가족 구성원이 임무를 하나씩 맡아 이행하도록 권유한다.
- 모든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공과와 활동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계획한다.
- 자녀들에게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을 나누어 달라고 한다. 노래나 성구 또는 복음 원리를 배우는 놀이를 할 수 있다.
- 가족들에게 앞으로 가르칠 공과 주제를 제안해 달라고 한다. 주제 목록을 만들고, 시간을 두고 하나씩 다룬다.
- 참여를 강요하지 않는다. 그 대신 생각과 의견을 나눌 수 있는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한다.



앞으로 리아호나를 받아 볼 때에는 독신 회원 및 자녀가 없는 가족을 위한 가정의 밤 제언을 찾아본다.



숫자로 보는 성전

- 130: 운영 중인 성전 수
- 21: 건축 계획이 발표되었거나 건축 중인 성전 수
- 1: 지역 경계 내에 성전이 두 개인 도시 수, 유타 주 사우스조던. “왜 유독 유타에만 성전을 많이 짓느냐고 묻는다면, 바로 활동 회원들의 참여도와 필요성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¹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이 2005년 10월에 솔트레이크 밸리에서 네 번째 성전인 유타 오커 마운틴 성전을 발표하며 한 말씀이다.
- 34: 2000년에 헌납된 성전 수, 1년 동안 가장 많은 수가 헌납된 해
- 85: 힝클리 회장 생애 중에 헌납된 성전 수. 힝클리 회장은 이 경륜의 시대에 어느 사도보다도 가장 많은 성전을 헌납했다. 힝클리 회장은 또한 열 개의 성전을 재헌납했다.
- 685,000: 유타 트레이퍼 성전 일반 공개에 참석한 사람 수. 이 성전은 2009년 3월에 헌납되었다.
- 682: 멕시코 치와와 콜로니아 후아레스 성전의 평방미터, 교회에서 가장 작은 성전
- 30,754: 솔트레이크 성전의 평방미터, 교회에서 가장 큰 성전
- 169: 필리핀 마닐라 성전 구역으로 배정된 스테이크와 지방부 수, 교회의 다른 어느 성전 구역보다도 더 많은 와드와 지방부가 속해 있다.



주
1. 고든 비 힝클리, “개회 말씀”, *리아호나*, 2005년 11월호, 5쪽.

스펜서 더블류 김볼 (1895~1985) 회장



28쪽에서 그의 복음 고전 말씀인 “부활의 확실성”을 참조한다.

애 리조나 시골 지역에서 성장하면서 스펜서 더블류 김볼은 이른 나이에 열심히 일하는 법을 배웠다. 사도로 봉사한 히버 시 김볼(1801~1868)의 손자이자 스테이크 회장으로 봉사한 스펜서의 아들로서 김볼 역시 강한 간증을 키웠으며, 복음에 대해 깊이 헌신하는 법을 배웠다.

어린 나이에 종종 스펜서에게 맡겨진 일은 건초가 쌓인 마차 위에 올라가 형들이 마차 위로 던져 올리는 건초를 발로 꼭꼭 밟는 일이었다. 그 일을 할 때에는 덥고 먼지도 많이 일고 살갓이 따끔거리기도 했다. 하지만

스펜서는 초등학교 개회를 알리는 교회 종소리가 날 때 외에는 항상 묵묵히 그 일을 해냈다. 당시에 초등학교는 주중에 열렸다. 스펜서는 모든 모임에 완벽하게 참석했으며 한번도 빠지지 않았다. 형들은 탄 생각을 하며 마차에 건초를 더 빨리 던져 올렸다. 건초가 수북이 쌓인 것을 형들도 깨달을 때쯤이면 스펜서는 이미 초등학교 모임 장소에 중간쯤은 가 있었다.

스펜서 더블류 김볼은 선교사, 감독, 스테이크 회장으로 봉사했으며 1943년에는 사도직에 부름 받았다. 일에 대한 그의 정신은 가히 전설과 같다.

심장마비와 후두암을 포함해 여러 차례 증병을 앓았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이다. 김볼 회장은 교회 회원들에게 걸음의 폭을 넓히라고 촉구했다. 그의 좌우명은 단순히 “행하라”라는 것이었다. 건강 문제로 스펜서 더블류 김볼이 교회 회장으로 봉사한 기간이 짧았으리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김볼 회장은 교회를 12년간 감리했다. 그 기간에 운영 중인 성전 수는 두 배로 증가했고, 선교사 수가 50퍼센트 증가했으며, 합당한 모든 남성 회원에게 신권이 주어지게 되었다.



스펜서 더블류 김볼이 애리조나 시골에서 미약하게 시작하여 교회 평의회를 이끌기까지, 복음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헌신과 일에 대한 투철한 정신은 그가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했다. 그가 교회 회장으로 봉사했던 기간은 성전 건물과 선교 사업에 대한 현저한 성장으로 유명하다. 왼쪽: 아내 카밀라(1894~1987)와 함께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교사의 가치

얼마 전에 어린 남자아이 셋이서 아빠 사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큰소리로 “우리 아빠는 너희 아빠보다 더 커!” 하고 말했습니다. 이에 다른 아이가 “우리 아빠는 너희 아빠보다 더 똑똑해!” 하고 되받았습니다. 나머지 한 아이도 지지 않으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빠는 의사야.” 그러고는 한 아이를 향해 비웃는 투로 “너희 아빠는 겨우 선생님이잖아.” 하고 말했습니다.

모든 인간의 삶을 무색하게 만들 만큼 훌륭한 삶을 사신 교사가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 봉사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봉사하기 위해, 무언가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 목숨을 바치시려고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은 사랑이 욕정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며 빈곤이 재물보다 더 부유한 것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분은 서기관들과는 달리 권세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위대한 교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참으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온 인류의 구주이시며 구속주이십니다.

현신적인 교사들이 “와서 내게

배우라”라는 주님의 친절한 권유를 따른다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을 받을 것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그와 같은 교사에게서 감화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주일학교에서 그 여선생님은 세상의 창조와 아담의 타락과 예수님의 속죄 희생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선생님은 모세와 여호수아와 베드로와 도마와 바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명예 초대손님을 교실로 모셔왔습니다. 비록 그분들을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는 그분들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그분들의 모범을 따라야 한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그 소년이 “우리 아빠는 너희 아빠보다 더 커!” “우리 아빠는 너희 아빠보다 더 똑똑해!” “우리 아빠는 의사야.”라고 자랑하는 친구들 앞에서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너희 아빠가 우리 아빠보다 더 크고 더 똑똑할지 몰라도, 또 너희 아빠가 조종사이거나 기술자이거나 의사일지 몰라도 우리 아빠는 선생님이야!”

우리 모두 진지하고 가치 있는 찬사를 받을 만한 사람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

“겨우 선생이잖아”, 성도의 빛, 1990년 10월호, 3~8쪽에서 발췌.

효과적으로 질문하기

강연자라는 부름은 교회에 없다. 강연자는 단지 지식을 전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교사는 반원들이 배우고 부분적으로는 서로 가르치도록 이끈다. 지루한 강연을 활기차고 영으로 가득 찬 공과로 변모시키는 한 가지 확실한 방법은 바로 효과적으로 질문을 하는 것이다.

1. 공과를 준비하면서 공과 중에 던질 질문을 미리 준비한다. 교재에 제시된 질문들을 고려한다. 반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다른 질문들도 생각해 본다. 가르치고자 하는 각 주요 개념에 적합한 질문들을 몇 가지 선택할 수 있도록 영을 구한다.
2. 복음 개념이 실생활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토론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반원들에게 세 가지 형태의 질문을 이어서 한다.
 - 사실 확인 질문: “주님은 우리에게 누구를 용서하라고 하셨나요?”
 - 적용 질문: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 경험을 묻는 질문: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에 관한 긍정적인 경험을 나누어 주시겠어요?”

그가 그들의 부족함을 짊어지실 것이니



진 에이 테판 장로
2000년에서 2009년까지 지역 칠십인으로 봉사

피 지 수바 선교부에서 아내 지젤과 함께 봉사를 마치고 귀환한 후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아내는 위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내는 암으로 까다로운 외과 수술을 세 차례 받았고 그에 따른 합병증으로 위를 완전히 제거해야 했습니다. 저는 아내가 겪는 고통을 옆에서 줄곧 지켜 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더욱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겪는 고통을 보며 저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절감하던 때가 생각합니다. 대체 아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그런 고통을 감수해야 한단 말인가? 아내는 주님을 충실히 섬기지 않았던가? 지혜의 말씀도 지키지 않았던가? 왜 그분께서는 이 병을 막으실 수 없는 것일까? 왜?

어느 날 밤 저는 주님께 제가 느끼는 좌절감을 말씀드리며 온 마음과 감정을 쏟아 부어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 사랑스러운 아내가 그런 고통을 참아내야 하는 모습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습니다.” 하고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고는 마음을 추스리고 경전을 펼쳤습니다. 그때 엘마서 7장 11~12절에서 찾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구절에서 저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에 그가 나아가사, 온갖 고통과 고난과 시험을 당하시리니,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의 고통과 질병을 짊어지리라는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또 그가 사망을 짊어지시리니, 이는 그의 백성을 결박하는 사망의 줄을 푸시려 함이요, 또 그들의 연약함을 짊어지시리니, 육체를 따라, 그의 심정을 자비로 충만하게 하사, 육체를 따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연약함을 좇아 어떻게 도울지 아시고자 하심이니라.”

그제야 저는 구주께서 치르신 놀라운 속죄의 결과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내와 저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시리라는 사실을 진정으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백성의 고통과 질병을” 짊어지시는 그분께 저의 아픔과 두려움을 맡기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새롭게 깨닫자, 저는 저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주제에 관해 더 많은 자료를 보고 싶다면 www.conference.lds.org 에서 제프리 알 홀랜드 장로가 2009년 4월 연차 대회에서 전한 “함께한 자가 아무도 없었더라” 라는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아내는 언제 암이 있었냐는 듯이 잘 지냅니다.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러 가면 의사는 아내에게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제 아내가 육체적으로 치유받은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또한 제가 경험한 치유, 즉 마음의 치유에 대해서도 감사함을 느낍니다. 구주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위안 덕분에 저는 모든 일이 잘되리라는 평안의 확신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시련에 처하게 되면 그때 배운 놀라운 교훈과 주님께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하신 말씀을 떠올립니다. “인자는 그 모든 것 아래로 내려갔었느니라. 네가 그보다 크냐?”(교리와 성약

122:8)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생각하면 언제나 위안을 얻습니다.

저는 구주께서 그 극심한 고통을 기꺼이 감내하신 것에 영원히 감사할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과 자비, 그분의 자녀들을 세심하게 살피시는 그분의 온정이 실재함을 간증드립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저는 그분을 사랑합니다. ■



코나를 위한 성전

알 발 존슨
교회 잡지

하 와이 빅아일랜드에 있는 한 스테이크 고등 평의회에서 봉사하도록 성별을 받은 레로이 알립은 안수례를 받으면서 축복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았다. 축복에서 알립 형제는 그 섬에 성전이 건립될 때 그 자리에 함께할 것이고, 그 성전에서 봉사하게 되리라는 말을 들었다. 1984년 당시에 하와이의 유일한 성전은 오아후 섬에 있었는데, 그곳은 배나 비행기를 타야만 갈 수 있을 만큼 먼 곳이었다.

그 신권 축복은 알립 형제에게 힘을 주었다. 알립 형제는 이렇게 말한다. “저는 우리가 축복을 받을 때, 그 축복을 이루기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아내 로즈와 함께 한 달에 한 번 오아후에 있는 성전에 참석하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성전까지 가는 데 소요되는 경비는 미화 3백 달러였다. 알립 형제가 관공서에서 일하고 받는 봉급으로 근근이 생활하는 이 부부에게는 큰 돈이었다. 성전으로 가려면 저축해 둔 돈에 손을 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아주 기쁘게 그렇게 했다.

하지만 1년도 안 되어서 돈은 모두 떨어졌다. “그래도 우리 마음은 늘 성전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계속 참석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고 알립 형제는

회상했다.

오래지 않아 알립 형제는 뜻밖에도 지역 신문사에서 신문 배달 제의를 받아 수입을 더 얻게 되었다. 새벽에 신문을 돌리던 한 달에 거의 7백 달러를 벌 수 있었다. 성전에 계속 가고도 남을 만큼 돈이 생긴 알립 부부는 남은 돈을 그들만의 특별 성전 기금으로 모아 두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다.

그처럼 강한 느낌을 받은 이유는 1986년 6월이 되어서야 분명해졌다. 그 당시 하와이 코나 스테이크 지역에서 생활하는 알립 부부는 합당하지만 자신의 엔다우먼트를 받지 못한 많은 스테이크 자매들을 성전으로 데리고 갈 수 있었다. 알립 부부는 매달 자매 한 명을 오아후로 데리고 갔다. 매번, 성전에서 돌아온 자매들은 자신과 다른 사람을 위해 성전 의식을 받으면서 얻은 영적인 힘과 기쁨을 간증으로 전했다. 곧, 성전 사업의 영이 스테이크 전체에 퍼졌고, 더 많은 회원들이 성전에 참석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알립 형제가 여행업계에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끝에 스테이크에서 성전에 가고 싶어하는 모든 회원의 항공료와 교통비와 숙박비를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1994년까지 코나 스테이크에서는 100명이 넘는 회원들이 매달 하와이 라이에 성전으로 갔다. “성전 회장님이 이런 농담을



했었지요. 코나 스테이크 성도들이 하도 성전에 많이 와서 양탄자가 다 닳았다고.” 알립 형제는 그때를 회상하며 웃음을 터뜨린다.

1997년에 고든 비 힝클리(1910~2008) 회장은 성전 건축에 대한 새로운 방침을 발표했다. 소규모로 성전을 건축하면 더 많은 성전을 건립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6개월 후, 힝클리 회장이 코나 성전을 발표함으로써 빅아일랜드 성도들의 충실함은 보상받았다. 2000년에 코나 성전이 헌납된 후, 알립 형제는 성전 회장단 제2보좌로 부름을 받았다. 현재 직장에서는 은퇴를 했지만 알립 형제는 주님의 사업에 온전히 종사하고 있다. 그는 하와이 코나 성전 경내를 아름답게 유지하는 봉사자들을 감독한다.

알립 부부는 그들이 계속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을 축복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방법에 감사드린다. 처음 코나에 왔을 때에는 “언덕에 커피 농장 인부를 위해 지어진 작고 초라한 오두막 외에는 우리가 머물 곳이 없었다.”라고 알립 형제는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들은 자그마한 시골집에 세를 들 수 있을 때까지 그 오두막에서 수개월 동안 살아야 했다.

몇 년이 지난 후, 저축한 돈과 소득이 더 좋은 집을 생각해 볼 만큼 충분해졌다. 집을 구하기 위해 알아 보았지만 어떤 집도 적당해 보이지가 않았다. 어느 날은 알립 형제가 코나 성전 경내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연로한 자매 한 사람이 들어왔다.

레로이와 로즈 알립 부부가 희생을 감수하면서 매달 성전에 참석하기로 결정하자, 주님께서는 그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데리고 갈 수 있도록 더 많은 수입을 축복해 주셨다.

그녀는 울고 있었다. 알립 형제는 고개를 저으며 말한다. “그 자매님은 집에서 쫓겨나 갈 곳이 없었어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저는 그 자매님에게 손자손녀들을 방문하고 돌아오면 우리 집에서 함께 지내자고 말씀을 드렸지요.” 문제는 알립 부부의 집이 그 부부만 겨우 살 수 있을 정도로 좁은 곳이라는 점이였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그들이 추구하는 축복을 얻을 방법들을 진지하게 찾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부동산 중개업자가 그들에게 침실 여섯 개가 딸린 2층짜리 집을 생각해 보라는 제안을 했다. 집은 마음에 들었지만 부부가 감당할 수 있는 집값보다 훨씬 비쌀 거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어쩔 수 없이 그 제의를 거절했다.

그러나 길이 열렸다. 몇 주 지나지 않아 집값이 떨어졌고, 알립 부부가 가진 돈으로도 충분히 그 집을 살 수 있게 된 것이다. 그 결과, 도움이 필요했던 그 연로한 자매는 코나로 돌아온 뒤 알립 부부와 함께 지내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도움이 필요했던 알립 부부의 세 자녀도 그 집에서 각자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알립 형제는 이렇게 말한다.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정말 잘 돌봐 주셨어요. 우리가 그분을 위해 기꺼이 시간과 재능과 재산을 희생할 때 그분은 우리에게 친절한 자비를 베풀어 주시지요.” ■



심화: 스티브 크롬, 사진 촬영: 알 빌 존슨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저는 어디를 가든 그 지역에 있는 공동 묘지를 방문하려고 합니다. 공동 묘지를 방문하는 시간 동안 인생의 의미와 피할 수 없는 죽음에 대해 깊이 명상하곤 합니다. 저는 유타 주 산타 클라라 마을에 있는 작은 묘지에서 비바람에 닳아버린 묘비에 새겨진 스위스 사람들의 이름을 발견하고서 받은 특별한 느낌을 기억합니다. 고인들 대부분은 “시온으로 오라”는 부름에 응하여 푸른 숲이 우거진 스위스에 집과 가족을 남겨 두고 지금 그들이 “편안히 휴식”하고 있는 이 마을로 이주해 와서 살았습니다. 봄에는 홍수, 여름에는 가뭄과 흉작과 고된 노동을 견뎌냈습니다. 그들은 희생의 유산을 남겼습니다.

그 나라에서 가장 큰 공동 묘지나 여러 가지 면에서 연민을 자아내게 하는 묘소들을 보면 조국의 군복을 입고 전쟁이라는 격전장에서 전사한 사람들이 안장되어 있습니다.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산산이 부서진 꿈과 이루지 못한 소망과 비탄에 젖은 마음, 전쟁이라는 날카로운 낫에 베여 끊어진 삶에 관해 생각합니다.

프랑스와 벨기에의 여러 도시에 세워진 희고 아담한 수많은 십자가는 제1차 세계대전이 낳은 엄청난 희생자를 말해 줍니다. 프랑스 베르딩 지방은 그 지역 자체가 엄청나게 큰 공동 묘지입니다. 봄이

되어 농부들이 땅을 갈 때면 녹슨 철모와 총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피로 땅을 적셨다는 것을 알려 줍니다.

죽음, 삶의 새로운 장

수년 전에 저는 사경을 헤매는 한 젊은이 곁에 서 있었습니다. 두 자녀의

속죄의 일환으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우리 모두도 부활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위 사진은 유타주 산타 클라라 마을에 있는 공동 묘지입니다. 이 묘지에는 제1차 세계대전의 희생자들이 안장되어 있습니다. 이 묘지에는 제1차 세계대전의 희생자들이 안장되어 있습니다.

1. 우리는 완전에 이르는 영원한 여정에서 배우고 경험하며 발전하기 위해 이 지상에 왔다.



2. 사람들 대부분은 이 지상에서 오랫동안 살지만 잠깐 살다 가는 이들도 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훌륭하게 사느냐이다.



3. 지상의 삶이 끝나면 죽음이 찾아오고 새로운 삶의 장이 시작된다.



4. 이 새로운 장에 들어서면 부활의 영광스러운 날이 찾아오고, 그러면 영과 육신이 재결합해서 다시는 분리되지 않는다.



아버지인 그는 제 손을 잡고 제 눈을 바라보면서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감독님, 제가 곧 죽는다는 것을 압니다. 제가 죽으면 제 영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기도를 드리며 하늘의 인도를 구했습니다. 저는 침대 옆 탁자에 놓인 물문경에 눈길이 갔습니다 저는 소리 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죽음과 부활 사이의 영혼의 상태에 관하여 …… 모든 사람의 영은 이 죽어야 하는 육신을 떠남과 동시에, …… 그들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로 데려감을 입느니라.

…… 의로운 자들의 영은 낙원이라 일컫는 행복의 상태, 곧 안식의 상태, 평화의 상태로 영접되어, 그 곳에서 그들의 모든 곤경과 모든 염려와 슬픔에서 놓여 쉬게 되리라.”(엘마서 40:11~12)

그 젊은 친구는 눈을 감고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면서 조용히, 우리가 말하고 있던 낙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스도는 슬퍼하는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요한복음 11:25~26)

죽음에 대한 승리

의사인 누가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동산 무덤에 다가갔을 때 겪은 일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돌이 ……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 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누가복음 24:2~6)

이것은 기독교계의 분명한 외침입니다. 부활은 개인과 모든 인류에게 상상할 수 없는 화평을 가져다줍니다. 이것은 플랑드르 들판에 누워 있거나 바다 속에 수장되었거나 산타 클라라에서 쉬고 있는 고인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저는 그분의 가장 작은 제자로서 그분이 죽음을 극복하시고 무덤을 깨뜨리셨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이 일을 이루신 분이 하신 성스러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산 지식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소중히 아끼고 존중하십시오.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리아호나, 2003년 4월호, 2~7쪽에서 발췌.

난 성전에 가야 해

자동차 사고, 버스에서 밤낮을 보내는 일,
배로 기나긴 여행을 하는 일, 만만치 않은
여비를 감당하는 일, 그 어느 것도 성전에
참석하고자 하는 이 브라질인 형제의
의지를 꺾지 못했다.



마이클 알 모리스
교회 잡지

호 세 곤칼베스 다 실바는 누군가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불현듯 잠에서 깨어났다. 주위는 깜깜했고 그곳이 어디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버스가 구르는 동안 잠들어 있었거든요.” 호세는 2008년 1월 이른 아침에 일어난 사고를 떠올렸다. “그때 저는 버스 뒤 칸에서 짐에 파묻혀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제가 어디에 있는지 몰랐습니다. 나중에야 몇몇 형제들이 짐가방을 정리하다가 그제서야 저를 찾아냈어요.”

남베네수엘라 숲의 좁고 꾸불꾸불한 길에 짐중호우가 퍼부어지자 버스는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다. 브라질 마나우스에서 출발한 호세와 다른 후기 성도들은 베네수엘라 카라카스 성전까지 가는 3일 동안의 여정에서 이제 절반 정도에 다다랐을 뿐이었다. 호세는 작은 부상을 입었지만 다른 몇몇 형제 자매들은 병원에 입원해야 했다.

“이제 성전에 그만 가서야 해요.” 걱정이 된 가족들이 말했다. 사고가 날 당시에 호세는 80세였다. 하지만 호세는 굴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 “난 성전에 가야 해.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무사히 돌아올 거야.”



베네수엘라
카라카스 성전

곧이어 호세는 카라카스 성전에 네 번째로 가기 위해 돈을 모았고, 2009년 초에 다시 한번 성전에 다녀왔다. 호세 형제에게는 브라질 상파울루 성전으로 가는 것보다 40시간 동안 버스를 타는 여정이 더 쉬웠다. 호세 형제는 이미 세 차례 브라질 상파울루 성전에 다녀온 적이 있다.

왼쪽: 베네수엘라 카라카스 성전 사진 © R; 왼쪽 위와 오른쪽 위: 사진 마이클 알 모리스

200만 명이 사는 북 아마조나스 주 마나우스에서 가장 가까웠던 성전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에 위치한 상파울루 성전이였다. 그리고 2005년에 마나우스는 베네수엘라 카라카스 성전 구역에 속하게 되었다.

상파울루로 갔던 시절을 생각하며 호세는 이렇게 말한다. “마나우스에서 배를 타고 4일을 가면 혼도니아 주의 주도인 뽀르토 벨료에 도착해요. 그러면 거기서 버스를 타고 나홀을 가면 상파울루에 도착하게 되죠. 제 아내는 교회 회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 혼자서 1985년에 처음으로 성전에 갔어요. 그때 뽀르토 벨료 버스 정거장에서 밤을 보냈는데, 늦게 도착해서 버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야 상파울루로 출발했어요. 즐거운 경험이었지요. 하지만 도착하니깐 좀 피곤하더군요.”

성전에 도착한 호세는 3일 내내 성전에서 봉사하고 8일째 되는 날에 집으로 돌아왔다. 성전에 가는 데 필요한 돈을 모으려면 연금으로 받는 돈을 꼬박 1년 동안 모아야 한다.

호세 형제는 이렇게 말한다. “물론 희생이 필요하지만 그만큼 가치가 있는 일이죠.” 호세 형제는 가족을 위한 대리 사업을 대부분 마쳤다. “다른 사람이 어머니를 위해 침례를 받고 제가 아버지를 위해 직접 침례를 받았는데, 정말 특별한 기쁨을 느꼈습니다. 부부 인봉을 할 때에도



위: 호세 곤칼베스 다 실바가 8일이나 걸리는 브라질 상파울루 성전으로 가는 여행을 시작하는 장소인 리오 네그로

아래: 베네수엘라 카라카스 성전에 가기 위해 40시간 동안 버스 여행을 하는 곤칼베스 다 실바 형제. 곤칼베스 형제는 성전에 가기 위해 치르는 희생은 충분히 그럴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한다.

제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의식을 받았어요. 제 형제 자매들은 모두 세상을 떠났죠. 그들을 위해서도 성전을 오가면서 대리 의식을 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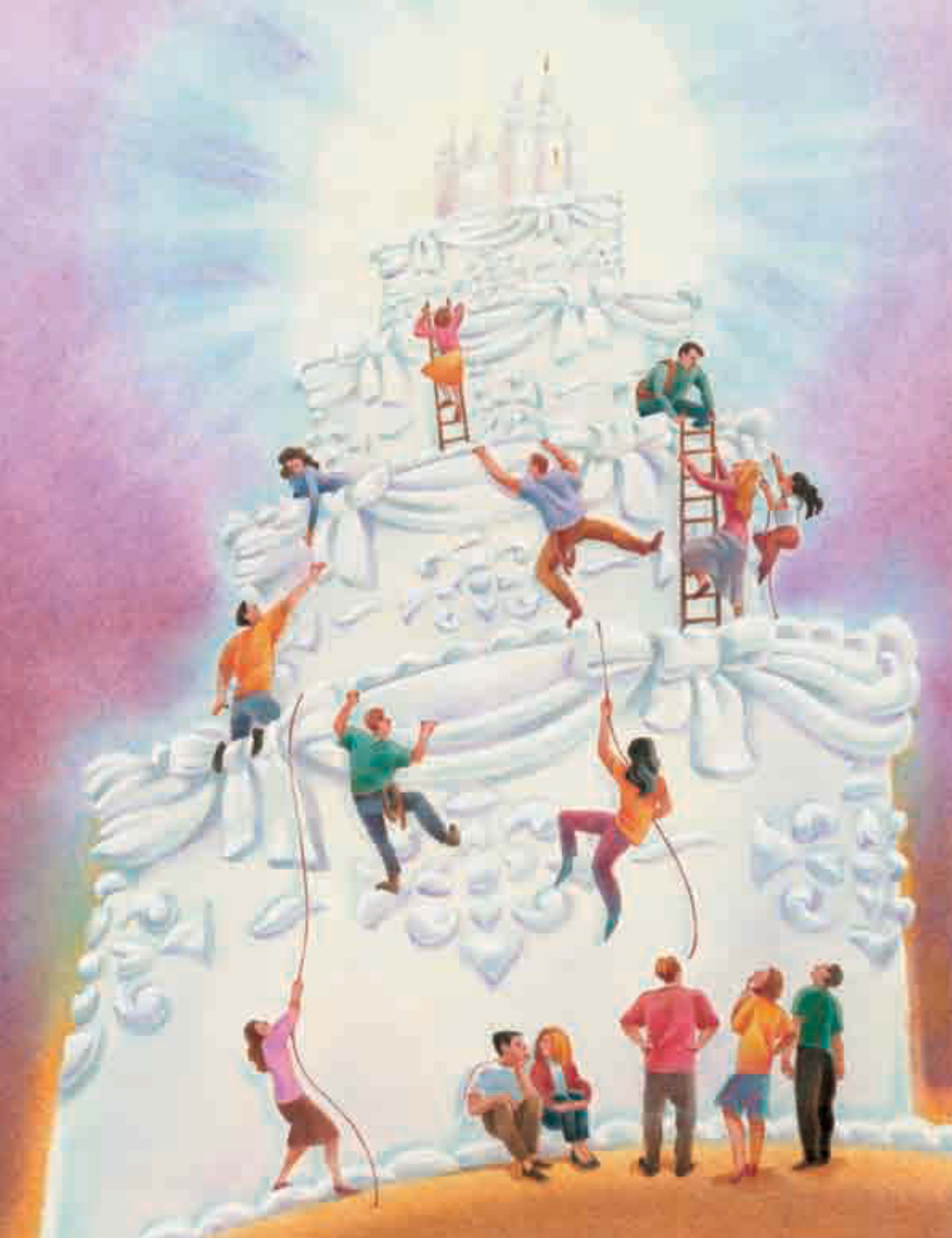
그렇게 멀리 있는 성전으로 여행하며 희생을 치르는 마나우스 후기 성도들은 그곳에 성전이 헌납되면 매우 감사해할 것이라고 호세는 믿는다. “그날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호세가 1980년 교회에 들어왔을 당시에 마나우스에는 회원이 스무 명 정도인 작은 지부가 하나 있었다. 그 이후 교회는 급성장했고, 지금은 거의 5만 명에 달하는 회원이 여덟 개 스테이크에서 활동하고 있다.

“2007년에 마나우스에 성전 건축 계획이 발표되었을 때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성전 기공식 때까지 살아서 그 의식을 볼 수 있게 해 달라고 주님께 기도를 드렸지요.” 하고 호세는 말한다. 기공식은 일 년 후인 2008년에 있었다. 이제 호세는 성전이 완공되는 모습을 볼 때까지 살 수 있기를 바라며 기도를 드린다. 또한 아내가 침례를 받아 함께 인봉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한다.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르죠. 하지만 그날을 대비하고 또 행복하게 맞이하도록 준비해야 해요.” 호세 형제가 말한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와 저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면전에서 돌아갈 날을 고대합니다. 성전에서 봉사하다 보면 그날을 맞을 준비가 되겠지요.” ■







자신감 시험

두려움을 극복하고 결혼이라는 신앙에 이르기까지

19 64년에 대학교를 졸업한 저는 미육군 장교로 임관되었습니다. 저는 미육군 유격대원으로 훈련을 받았다고 자원했습니다. 유격대원 훈련은 특공대와 최정에 보병대를 위한 방법을 배우는 매우 혹독한 과정입니다. 훈련 목표는 고도의 기술로 무장된 장교와 하사관을 배출하는 것입니다.

제가 받은 유격대원 훈련에는 유격대원 조교가 “자신감 시험”이라 부르던 일련의 훈련 과정이 있습니다. 그 훈련은 육체적인 힘과 체력, 용기 등을 극한의 상황에서 시험하기 위해 마련된 과정입니다. 장애물 뚫고 돌진하기, 30미터 또는 그 이상 되는 높이의 얼음 암벽을 밧줄로 오르고 내리기, 밤에 악어와 독사들이 우글거리는 늪지대 통과하기, 나침반을 사용하여 16킬로미터나 되는 험난한 지대 통과하기 등은 우리가 이겨내야 하는 시험 과정 중 일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자신감 시험을 하는 한 가지 목적은 전쟁이라는 힘들고 가혹한 환경에서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보다 더 많이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 그런 확신을 유격대원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입니다. 교관들은 자신감을 가지라고, 이 훈련에 대해서도 확신을 가지라고 우리를 교육했습니다. 전쟁터에서 매우 힘든 시련을 겪을 때에도 그 유격대 자신감 시험에서 배운 교훈 덕분에 저는 여러 번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제가 그 훈련에서 겪은 자신감 시험보다 더 중요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이 시험은 자신을 신뢰하느냐와 관련된 문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받는 것을

신뢰하느냐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선지자들은 우리가 주님을 꾸준히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아는 것을 기억하라고 거듭 권고하셨습니다. 야곱은 백성들에게 신앙의 불을 다시 지피기 위해 “너희가 아는 줄 내가 아노라”(니파이후서 9:4, 5)라는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바울은 더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히브리서 10:35) 우리 각자가 직면한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미래에 직면할 때 우리가 이미 아는 것을 기억한다면, 신앙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자신감을 갖고 환호하며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필멸의 삶을 사는 동안에 자신감과 관련해서 받게 되는 가장 중요한 시험 중 하나는 주로 청년 성인 시절에 찾아옵니다. 그것은 바로 결혼과 관련된 결정입니다. 이 세대 젊은이들에게 이보다 더 큰 걱정을 안겨 주는 결정도 없습니다. 이것은 많은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주제입니다.

결혼에 대한 두려움

결혼이 왜 그렇게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지 확실한 근거를 찾을 수는 없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그럴 만한 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 **여럿이 어울려 다니기는 쉽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너무 자주 무리지어 어울리면서 올바른 동반자를 찾는 “시합에서” 자신을 제외시킵니다. 이렇게 몰려다닐 때 남성과 여성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일부 젊은이들은 영원한 동반자를 찾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옥석 가려내기를 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무리로 몰려다니며 어울리는 것에는 실제로 현명하게 선택하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즉 그 특별한 사람의 성품과 인격을 면밀하게 살피는 기회가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무리로 몰려다니며 어울리는 것에는 실제로 현명하게 선택하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즉 그 특별한 사람의 성품과 인격을 면밀하게 살피는 기회가 없습니다.

- **실수를 할까 봐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이혼 통계치는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일부 젊은이들은 부모나 친구들이 결혼 생활에서 실패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에 상처를 안고 살아왔거나 직접 이혼이라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결별과 관련하여 마음에 상처를 크게 받았습니다. 그 결과, 때때로 그들은 잘못된 사람을 선택하지는 않을까 두려워서 결혼이라는 관문에 발을 들여놓기를 꺼려합니다.
- **청년기에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적어도 사람들 일부는 자신의 소망과 관심사를 다른 사람에게 맞춰서 살기를 싫어합니다. 그러한 이기심의 희생자가 되면 결혼이라는 결정을 미루게 됩니다.

잘못된 생각

결혼이라는 결정을 내리기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그러한 두려움을 갖게 되면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자신감을 “잃게 됩니다.” 자신감을

상실하면 또한 그 결정에 대한 책임감도 상실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결혼을 미루거나 피하는 상태까지 이르지 않는더라도 다른 잘못을 저지를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결정을 전적으로 영적인 관점으로만 바라보는 경향이 생깁니다.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 결혼 결정과 관련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신성한 손가락이 나타나 벽에 답을 적어 주거나 바다가 갈라지거나 의심의 여지 없이 바로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하고 알려 주는 형이상학적인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립니다.

또 어떤 이들은 다른 사람이 대신 결정해 주길 기다립니다. 브리검 영 대학교의 한 스테이크 회장은 일부 여성들이 자기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말하는 남자친구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고 제게 말해 주었습니다. 또 어떤 여성들은 부모의 판단을 따르는데, 종종 과거에 대신 결정을 내려 줬던 아버지의 말을 따릅니다. 어느 경우든, 이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에 대해 책임을 포기하는 것일 뿐입니다.

부모와 감독, 기타 훌륭한 사람이 해주는 권고는 물론 유익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누구도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누구와 결혼할지 결정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각자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우리는 지상에 올 때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게 만들어졌습니다. 그 일을 너무 어렵게 만들지는 마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여러분이 그분의 아들과 딸이라는 신분을 기억하며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구혼에 대한 권고

구혼 기간은 두 사람이 서로를 알아가는 기간입니다. 누군가를 진정으로 알게 되는, 즉 상대방의 취미와 습관, 삶과 복음을 바라보는 관점을 파악하는 시기입니다. 야망과 꿈, 소망과

두려움을 공유하는 시기입니다. 또한 복음대로 살려는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알아보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님은 한 특별한 여성과 데이트를 한 어느 귀환 선교사에 대해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형제는 그 자매를 매우 좋아하여 청혼을 진지하게 고려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고든 비 헝클리(1910~2008) 회장님은 자매들에게 귀걸이를 한 쌍만 하라고 권고하셨습니다. 그 청년은 자매가 귀걸이를 한 쌍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빼내기를 참을성 있게 기다렸다고 베드나 장로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와 다른 이유로 마음이 무거워진 그 청년은 그녀와 데이트하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이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시면서 베드나 장로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그 청년이 너무 비판적이었거나 영원토록 중요한 결정을 사소한 문제를 근거로 내린다는 것이 어리석거나 광신적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 예가 젊은 남성 대신 선지자의 권고에 응답하지 않은 젊은 여성에 초점을 둔 것이 언짢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 사안에서 문제가 된 것은 귀걸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또 다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이 구혼 기간에 “입장권을 확인하듯이” 단순히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부분만을 보고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제 말은, 오로지 상대방이 전일 선교사로 봉사했는지, 아니면 와드에서 특정 부름에서 봉사하는지를 놓고 판단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러한 사항은 보통 헌신과 충실성, 그리고 성실성을 나타내는 척도가 될 수 있으며 실제로도 그렇고 또 그래야만 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서로를 잘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잘 알아보는 과정을 통해 그 사람의 마음과 성품을 우선 파악하십시오. 단지 그 사람의 “복음 이력서”를

살피는 일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요지는 이렇습니다. 실제로 상대방을 알기 전까지 선부른 판단은 피하십시오. 순간적으로 하는 부정적인 판단은 그와 같은 긍정적인

판단과 마찬가지로 잘못된 것이며 그릇된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가공되지 않은 다이아몬드를 찾기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황철광(실제 금과 같이 생긴 돌-울기이)을 피하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기도하기

충분히 교제 기간을 거친 후 그 관계에 대해 생각하고 직접 판단을 내린 후에는 그 판단에 대해 확인을 받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모든 중요한 결정과 마찬가지로 결혼도 여러분이 직접 내리는 결정이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판단하고 여러분이 결정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분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너는 이해하지



동반자 선택하기

“**동**반자를 선택할 때 인생의 여정을 함께할 사람[을] ……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직, 충실, 순결, 경건 등의 성품을 찾는 일이 왜 중요한지 알게 될 것입니다.”

데이비드 오 맥케이(1873~1970) 회장,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데이비드 오 맥케이*(2003), 140쪽.

서로를 잘 알아야 합니다. 상대방을 잘 알아보는 과정을 통해 그 사람의 마음과 성품을 우선 파악하십시오. 단지 그 사람의 “복음 이력서”를 살피는 일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못하였나니, 너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다만 내게 간구하기만 하면, 내가 네게 그것을 줄 줄로 여겼도다.”(교리와 성약 9:7) 직절하게 구혼 기간을 거친 후 잠정적으로 결정을 했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간구에 응답해 주시리라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주님께서서는 여러분이 올바르게 판단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에게 내재되어 있는 이성에게 끌리는 자연적인 느낌을 신뢰하기를 바라십니다. 이성에게 마음이 끌린 후, 그 이성과 우정을 쌓으며 의미 있는 기간을 보내고, 가치관이 서로 같고, 그 상대방과 함께 가장 친밀한 관계를 행복하게 공유해 나갈 수 있겠다고 판단되면 그 후에는 하나님 아버지께 그 문제를 맡기십시오. 여러분이 느꼈던 느낌에 상반되는 무언가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건 그분께서 여러분의 선택에 반대하시지 않는다는 표시일 수 있습니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유격대 훈련에서 그 혹독한 시기를 지낸 이래 여러 해가 흘렀습니다. 필멸의 세상에 흐르는 조류가 군대 시절의 자신감 훈련에서 저를 멀리 떨어진 하루로 휩쓸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때 기억과 교훈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인생의 폭풍우를 견뎌내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잘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는 것을 늘 기억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여러분이 아는 것에 대해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의 자신감 시험을 은혜와 용기로 맞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

2007년 9월 25일 브리검 영 대학교-아이다호 영적 모임에서 하신 말씀에서 발췌함.

주
1.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보고 깨닫는 것이 빠름”, 리아호나, 2006년 12월호, 17쪽.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성전 결혼

비탈리와 예카테리나 슈마코프

비탈리: 선교 사업에서 귀환하고 몇 개월 되지 않았을 때, 청소년 대회에서 고문을 맡아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 선교부 회장님인 스티븐 시 스미스 회장님이 저를 사무실로 부르셨습니다. 새로운 부름을 받거나 공식 접견이겠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만, 스미스 회장님은 제가 누군가를 만나보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만날 그 자매님은 최근에 선교 사업을 마쳤고 러시아의 다른 지역에 사는데, 이번 대회 동안 그 마을에 머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전에 카티아를 만나 본 적은 없었습니다. 대회에 참석해서 제 소개를 한 뒤에는 몇 분간 가볍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카티아에게 춤을 신청했습니다. 다음 날도 춤을 신청했습니다.

카티아: 성장하면서 젊은 독신 신권 소유자들을 많이 알고 지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결혼 상대자로 합당한 청년을 보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했습니다. 언제, 어떻게 그런 사람을 만날지는 몰랐지만 주님과 그분의 약속을 신뢰했습니다.

선교 사업을 마치고 나서 청소년 대회에 고문으로 참가해서 도와 달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청소년 대회에서 비탈리를 보고는 어떤 사람인지 잘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회 기간 3일 동안 결코 잊을 수 없는, 정말로 보람찬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일찌감치 비탈리가 결혼 상대자라는 예감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교제 초반부터 그런 느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선교 사업을 하면서 영을 인식하고 의심 없이 그분의 지시를 따르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비탈리를 좀 알아봐야겠다는 느낌을 받았을 때 그 느낌을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영이 함께하도록 간구한다면 그분이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리라는 사실을 압니다. 자신이 가는 길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영은 우리 모두를 정확하게 같은 방법으로 인도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영을 따른다면 자신이 가는 길이 옳다는 확신을 할 수 있습니다.

장애물을 극복함

비탈리: 3일이라는 기간 동안 저는 특별한 사람을 찾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청소년 대회가 끝나면서는 실망스럽게도 카티아와 작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운이 좋게도 그 다음 달에 청년 독신 성인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회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 대회는 예상대로 정말 훌륭했습니다. 카티아와 저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를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청년 대회가 끝나자 우리는 전화번호를 교환하고 각자가 사는 도시로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 몇 주 동안 우리는 대부분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연락을 했습니다.(제 생각에 저는 한 달도 안 되어 사람들이 노트북으로 타자를 치는 것보다 더 빨리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된 것 같습니다.)

카티아는 예카테린부르크에서 살았는데, 그곳은 제가 살던 시베리아 옴스크에서 기차로 무려 11시간이나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정말로 서로를 끄적어도 보고 싶어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는 정기적으로 서로 왕래를 했습니다. 한 주는 제가 가고, 그러면 몇 주 후에는 카티아가

저를 만나러 왔습니다. 제가 카티아를 보러 갈 때면, 저는 둘 다 알고 지내는 그 도시의 친구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카티아가 저를 만나러 올 때면, 카티아는 우리 둘 다 알고 지내는 또 다른 친구 집에 머물렀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찾아가 만나면서 교회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카티아: 11시간이라고 하면 정말로 긴 여행처럼 느껴지겠지만 러시아에서는 정말로 짧은 여행에

비탈리와 예카네리나(카티아) 쉬마코프는 각각 러시아 옴스크와 예카테린부르크에서 태어났다. 둘 다 청소년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 들어왔고 선교 사업도 했다. 비탈리는 체코 프라하 선교부에서, 카티아는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 선교부에서 봉사했다. 비탈리와 카티아는 교회에 개종하면서 행복하고 자신감 넘치는 삶을 살아가며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보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선교 사업을 하면서 성전 결혼을 시작으로 복음에 중심을 둔 가정을 꾸려야겠다는 소망을 더 굳게 다질 수 있었다고 한다. 이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우리는 원하는 만큼 자주 데이트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한 번 만나면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 전에 2~3일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보다 시간이 더 많았으면 하는 생각도 자주 들었고, 그래서 헤어지는 건 늘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서로 만나려고 많은 노력을 들여야 했기에 매 순간 함께 보내는 시간을 감사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관계가 진전되자 서로 작별 인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며 매우 재미있게

데이트를 했습니다. 자전거나 말도 타고, 박물관도 견학하고, 경전을 함께 읽고, 요리도 하고, 공원에서 함께 거닐고(공원에서 춤을 춘 적도 있습니다), 고아원을 방문해서 봉사하며 아이들과 시간을 보낸 적도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새로운 활동을 했고, 정말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비탈리는 풍부한 창의력으로 데이트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비탈리가 계획한 데이트 활동을 하면서 우리는 정말로 서로를 잘 알게 되었습니다.

비탈리: 학생이라서 재미있는 활동들을 할 만한 돈이 없었습니다. 돈은 대부분 카티아를 보러 가는

알아보지도 않고 어떻게 결혼할 생각을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카티아에게 그런 질문을 했던 다른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이 내세운 논리는 그 사람이 정말로 자신에게 맞는 배우자인지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일정 기간 동안 그 사람과 살아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누군가를 알기 위해 그 사람과 살아볼 필요는 없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또한 친구들에게 납득이 될 만한 방법으로, 나는 기도를 했고, 카티아와 결혼해야 한다는 응답을 받았다는 점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결정에 대해 기도를 했기에 결혼 생활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정말로 가슴이 벅찼고 새로운 삶이 제 앞에 펼쳐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입장을 취한다고 해서 그 누구도 제 의견에 반대하거나 저를 비난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친구들은 제가 내린 결정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카티아: 비탈리가 청혼을 하자 부모님은 저에게 결혼하지 말라고 설득하셨습니다. 부모님은 우리가 약혼하기에는 너무 이르고 또 제가 비탈리를 더 잘 알아봐야 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직장 상사도 똑같이 말하며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런 결정을 내리기 전에 먼저 같이 살아봐야 한다니까요.”

사람들이 결혼과 가족에 대해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현실이 슬픕니다. 부부가 성전에서 결혼하고 인봉되면 얼마나 행복해질 수 있는지 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비탈리와 제가 결혼 생활에서 느낀 큰 사랑과 행복은 우리가 영원히 인봉되었다는 지식 덕분에 더 커졌습니다.

비탈리: 카티아와 저는 2006년 2월 25일에 옴스크에서 결혼했습니다.(다른 여러 나라와 마찬가지로 러시아에서는 법에 따라 성전 인봉을 하기 전에 일반 결혼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날 우리는 스웨덴 스톡홀름 성전으로 떠났습니다. 옴스크에서 비행기에 올라탄 우리는 3시간을 날아 모스크바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나머지 시간을 보내고 밤 기차로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다시 다른 후기 성도들과 함께 버스를 타고는



영원한 관점에서 보십시오

“영 원한 관점에서 보십시오. 성전 결혼을 미래의 꿈으로 삼으십시오. 여러분이 결혼을 하는 그 특별한 날만큼 아름다운 장면과 성스러운 시간은 없습니다. 그때 그곳에서 천상의 기쁨을 어렵듯이 감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계를 늦추지 마십시오. 유혹에 굴복해 그러한 축복을 빼앗기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모범이 되십시오”, *리아호나*, 2005년 5월호, 113쪽.

여비나 전화비를 내는 데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별로 없다고 해서 데이트를 재미없거나 시시하게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함께한 최고의 데이트들은 돈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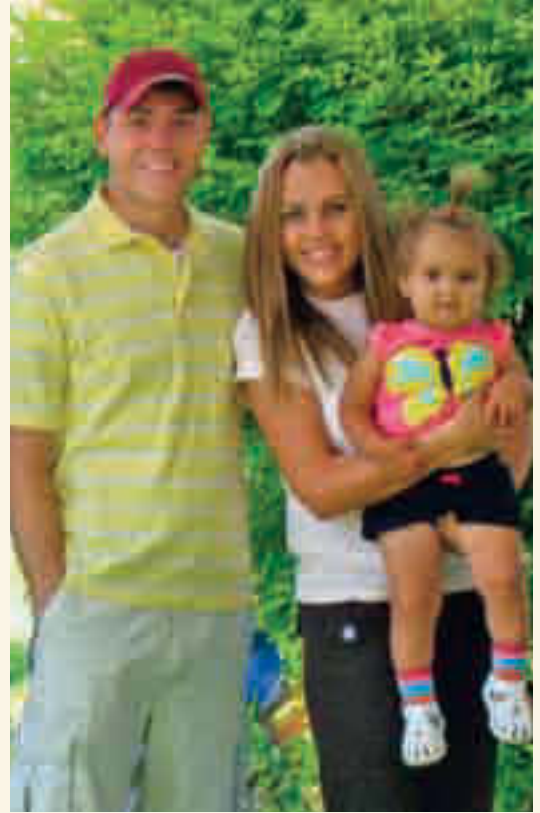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저는 카티아가 아이들과 어떻게 보내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고아원을 방문했습니다. 우리의 데이트는 거의 다 그런 식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 대해 많이 알아보려고 무척 노력했습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

비탈리: 다른 여러 나라와 마찬가지로 러시아에서도 결혼하기 전에 동거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제가 카티아에게 청혼을 하자 몇몇 친구들은 우리가 서로 잘 맞는지 먼저



왼쪽: 2006년 인봉 받던 날의 쉬마코프; 30시간이 걸린 스웨덴 스톡홀름 성전 여행
오른쪽: 현재 쉬마코프 가족에게는 어린 딸이 한 명 있다. 카티아는 이렇게 말한다. “저는 언젠가 우리 딸이 성전에서 결혼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딸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뒷바라지는 우리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부부가 되고 또 사랑이 많은 부모가 되어 주는 것입니다.”



8시간을 달려서 핀란드 헬싱키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마지막으로 유람선을 타고 11시간을 이동했고, 우리는 그렇게 스톡홀름에 도착했습니다.

결국 성전에 도착한 우리

다른 사람에게서는 그런 장거리 여행이 엄청나게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모로 보나 그렇게 유럽을 횡단한 것은 멋진 신혼 여행이 되었습니다.

2006년 3월 1일, 인봉을 한 그 날은 정말 대단한 날이었습니다. 평안과 확신을 느끼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제가 손을 잡고 있는 그 사람이 영원을 함께할 사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 생각만으로도 저는 큰 기쁨을 느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딸을 제 아내로 맡기셨다는 사실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전보다 더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찾아

카티아: 이제 우리에게서 어린 딸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아이입니다. 저는 언젠가 우리 딸이 성전에서 결혼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딸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뒷바라지는 우리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부부가 되고 또 사랑이 많은 부모가 되어 주는 것입니다.

딸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많이 닮은 합당한 신권 소유자를 찾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비탈리와 결혼할 수 있었던 것도 비탈리에게서 그러한 성품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떤 점에서 비탈리에게 끌렸을까요? 물론 비탈리는 잘생겼고 똑똑하며 여성과 교제하는 방법도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비탈리에게는 제가 “그리스도의 제자의 눈”이라고 부르는 눈이 있었습니다. 그에게서 빛을 감지했습니다. 비탈리는 의로운 신권 소유자입니다.

비탈리: 물론 여러분이 매력을 느끼는 여성과 결혼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신체적 특징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가장 중요한 성품들, 즉 인성, 영성, 그리고 결혼 기간 내내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다른 성품들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일부 청년 성인들에게는 자신이 사는 지역에 후기 성도들이 많지 않아 교회에서 배우자를 찾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분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떻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성전에서 인봉될 준비를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방편을 마련해 주실 것입니다. ■

부활의 확실성



스펜서 더블류 김볼은 1973년 12월 30일에 제12대 교회 회장으로 성별되었다. 김볼 회장은 매우 역동적인 지도자로서 위대한 비전을 보는 사람이었다. 그가 감리하던 시기에 교회는 유례없이 선교 사업이 확대되었고, 교회 회원 수도 늘어났다. 이 기사는 김볼 회장이 1969년 4월 4일 연차 대회에서 전한 말씀에서 발췌했다.

스펜서 더블류 김볼(1895~1985) 회장

몇 해 전 어느 성탄 절기에 우리는 예수께서 걸으셨던 바로 그 길을 걸었습니다. 우리는 깃세마네 동산이라 불리는 곳에서 소중한 시간을 보내며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기에 앞서 고난 받으셨던 일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기도하시고, 죄인으로

잡히시고, 심문 받고 선고 받으신 장소와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성벽 밖으로 나간 우리는 작은 동굴이 듬성듬성 뚫려 있고, 해골 모양으로 된 둥근 퇴적토 언덕에 올라갔는데, 그곳이 바로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하신 골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언덕 뒤로 내려와 그 험준한 절벽 부근에서 작은 창문

크기로 구멍이 나 있는, 대충 깎아 만든 굴로 들어갔습니다. 그 굴은 그분의 시신이 안치되었던 곳이라고 했습니다.

이 무덤 밖에 있는 작은 동산에서 우리는 여러 시간을 보내면서 바로 이곳에서 일어난 그분의 매장과 부활에 관한 복음 이야기에 심취했습니다. 우리는 여인들이 무덤에 이르고, 주님의 천사가 돌을 굴러내어 무덤을 지키는 자들이 소스라치게 놀라는 장면을 깊이 음미하며 그 내용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었습니다.

“[그는] …… 살아나셨느니라”

우리는 마리아에게 “어찌하여 살아 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말한, 눈부시게 흰 옷을 입은 두 천사를 보는 듯한 심정이었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주님은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삼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누가복음 24:5~7)

우리는 마리아와 천사와 주님이 나누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겨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오니
하니(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불듣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요한복음 20:13~17)

부활절의 중요성

때때로 우리는 이 특별한 날을
세상적인 방식으로 축하하는
듯하며, 축하를 하는 중요한 이유를
충분히 깨닫지 못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가 주님의 부활에 담긴
깊은 뜻을 새기기보다는 부활절을
공휴일로 즐기려 하는 경우에
더욱 두드러집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무시하는 사람은



불행할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이라는 가장
큰 기적이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사건이라고
보다는 사도들의 사적인 경험에 지나지
않을 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유감을
느낍니다.

우리는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사실임을
압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에 대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요한복음 3:11)

그리고 우리는 베드로가 증거한 말도
기억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사도행전 2:36)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이를 거부하고
.....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증인이라”(사도행전 3:14~15)

베드로와 요한은 공회 앞에 서서 담대하게
다시 말했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베드로와 요한이 고쳐준

견지 못했던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사도행전 4:10, 12)

공회에서 두 사도를 비난하고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한
말을 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하자 그들은 이렇게 대답하며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사도행전 4:19~20)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사도행전 4:33)

베드로의 증거

우리는 또한 부활이 실재한다는
사실을 압니다. 베드로는
박해자들의 공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

우리는 이 일에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사도행전 5:30, 32)

우리는 것처럼 완전하게
확신하며, 지도자로서 권세의 옷을
우아하게 걸치고 영감과 확신으로
가득 찬 용기를 지닌 위대한 베드로
앞에서 경외를 느낄 따름입니다.

그는 성도들을 이끌어 나가면서,
모든 박해자와 불신자와 역경으로
가득 찬 세상과 맞서 나가면서
얼마나 큰 힘을 지니게 되었습니까!
자신이 절대적으로 아는 사실을
거듭 증거하고 곳곳하게 폭도와 고위
성직자, 그의 생명을 빼앗을 수도
있는 관리들에게 맞서서, 부활하신
주님이요 평화의 왕자이며 거룩하며
공의로우신 분이요 생명의 왕자이신
구주를 대담하게 전파한 그의
열정에 우리는 큰 기쁨을 얻습니다.
베드로의 확신은 분명하고 확고
부동하며 결코 꺾이지 않았습니다.

바울로 개명한 그는 힘을 되찾고,
신권 소유자에게서 안수를 받았으며,
잃었던 시력을 되찾아 유대인들로
가득 찬 다메섹 공회당으로 가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사도행전
9:22)했습니다.

후에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갔습니다. 바나바가
나서서 바울을 위해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사도행전 9:27)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말을
이어받았습니다.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사도행전 13:29~31,
33~34)

조셉 스미스의 간증

우리는 현대의 선지자 조셉

베드로와 요한은 부활하신 주님께 대해 다음과 같이 간증했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의 확신을 보며 우리 역시 큰
확신을 얻어야 합니다. ……

바울의 간증

바울의 간증은 가장 확실해
보입니다. 그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알기 위해 사울은
“주여 누구시니이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고 확실한 답이
들렸습니다.(사도행전 9:4~5)



스미스가 증거한 말씀, 즉 사람들에게 부활을 확신시켜 주는 말씀에서 영감을 받습니다. 조지 에이 스미스 장로는 조셉 스미스가 참혹하게 살해되기 며칠 전인 1844년 6월 어느 날, 마지막으로 대중 앞에서 연설한 말씀을 다음과 같이 인용했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을 위해 어떠한 희생이라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적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육신을 죽일 뿐으로, 그들의 힘은 거기서 끝납니다. 사랑하는 벗들이여, 굳건히 서십시오. 결코 겁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목숨을 구하려 하지 마십시오. 진리를 위해 죽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영생을 잃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십시오. 우리는 부활하여 하나님과 같이 되고, 해의 영광의 왕국에서 영원히 다스리는 존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

욥의 질문과 응답

욥의 질문은 사랑하는 사람의 관

앞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던진 질문입니다.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욥기 14:14)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처럼 그들에게 위대하고 아름다운 평화를 안겨 주었습니다. 고통스런 번민에 시달렸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전혀 이해할 길 없는 평안을 느꼈습니다.

인간의 내밀한 평정이 고통스러운 마음과 갈갈이 찢긴 영혼에 새롭고 따스한 확신을 주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사랑하는 욥처럼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벼감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볼]…… 것이라”(욥기 19:25~27)

욥은 자신의 간증이 후세에 읽힐 수 있도록 책으로 쓰여지거나 돌에 새겨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표현했습니다. 많은 영혼이 그의 강한 간증을 읽고

마음의 평안을 얻었으니, 그의 소원은 이루어졌습니다.

요한의 시현

마지막으로 저는 계시자 요한의 시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요한계시록 20:12~13)

황량하고 죽음과도 같은 겨울이 지나면 생기 있고 파릇파릇한 봄이 오듯이, 모든 자연은 부활하신 주님의 신성과 그분이 창조주이시며 세상의 구주이자 하나님의 참 아들이심을 외칩니다. ■

철자, 대문자, 구두점 수정: 인용 추가

주

1. Joseph Smith, *History of the Church*, 6:500

돈 열 설
교회 잡지

피지



조지, 알리티아나, 라이언 쿠머.

신앙의 열매



피지는 한때 세상에서 꽤 멀리 떨어진 곳, 빠르게 돌아가는 도시인의 삶에서 생기는 문제와는 거리가 먼 곳으로 보였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다. 비행기, 인공위성, 전 세계에 존재하는 상업 거래 때문에 세계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있는 현대 생활의 모든 문제점들이 피지 해변에도 다다르고 있다. 피지에 있는 교회 회원들이 그러한 도전들에 성공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은 세계 다른 지역과 동일하다. 바로 복음 원리에 충실히 순종하는 것이다.

피지 회원들이 보여주는 세 가지 예는 이러한 원리들이 어떻게 우리 삶을 형성하는지를 가르쳐 준다.

쿠머 가족

조지 쿠머는 단지 큰아들 라이언이 생산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사는 데 도움이 될 방법을 찾고 있었을 뿐이었다. 그런데 쿠머 가족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찾아냈다. 바로 영원한 복음 진리였다. 복음은 가족 모두를 새롭고 더 행복한 삶으로 가는 길로 이끌어 주었다.

복음이 가족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다고 쿠머 형제는 말한다. “우린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냅니다. 질적인 시간을 더 많이 보내고 가족이 서로 더욱 터놓고 대화요.” 그들은 매일 가족 기도를 한다. 또 정기적인 가정의 밤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고 라이언은 말한다.

가족을 교회로 인도한 사람은 바로 라이언이었다. 라이언이 십대 중반이었을 때 조지 쿠머는 아들의 인생 행로가 염려되었다. 라이언과 친구들이 시간을 생산적으로 보내지 않는 것을 염려하던 조지는 아들을 다른 방식으로 행동하는

젊은이들로 에워쌀 방법을 발견했다. 조지는 수바에 있는 피지 후기 성도 교회 대학에서 일하는 사촌과 이야기하던 중에 라이언이 그 학교에 입학할 자격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이 교회 대학은 다른 지역의 중고등학교에 해당하는 중등 학교이다.)

교회 대학에 들어간 후로 라이언의 행동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라이언은 이렇게 말한다. “다른 학생들의 모범 때문이었죠.” 이전에는 친구들과 무익한 활동들을 하느라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 그러나 교회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삶에서 차이를 발견한 라이언은 “그런 행동을 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졌어요.”라고 말한다.

진리를 발견하는 한 가족, 사랑의 원을 넓히는 또 다른 가족, 그리고 신앙에 의지하는 한 청년.

라이언은 복음에 대한 간증을 얻었다. 라이언의 삶이 변화된 것을 보고 무척 기뻐하던 부모님은 그가 침례와 확인을 받게 허락을 해 달라고 했을 때 흔쾌히 승낙했다. 라이언은 옛 친구들에게서 떠나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다.

그러나 라이언이 부모님에게 선교사 토론을 받으라고 했을 때에는 “내키지 않았다”고 조지는 회상한다. 복음이 라이언의 삶에 일으킨 변화를 보았기 때문에 이곳이 좋은 교회라는 점은 조지도 알았다. 교회 대학에 간 지 3년이 되던 해, 라이언의 대학 마지막 해에는 라이언의 행동 변화가 매우 두드러져서 학교에서



**유타 솔트레이크시티 남
선교부에서 봉사하는
마이클 쿠머 장로.**

최우수 남학생으로 뽑히기도 했다. 이것은 보통 이 학교에서 학업 성취가 꾸준히 우수한 학생에게 주는 상이다.

처음에는 라이언의 몇 가지 행동 변화가 부모님 눈에는 이상하게 보였다. 예를 들어, 왜 매달 첫째 일요일이면 아무리 해도 라이언에게 음식을 먹일 수 없는 것일까 하는 것이었다. 라이언이 금식의 목적을 설명하자 부모님은 아들의 삶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변했음을 알게 되었다.

라이언의 남동생 마이클도 형의 변화를 지켜보는 복음에 귀를 기울였다. “라이언 형이 교회 활동에 나가기 시작했을 때, 제 눈에 띈 것은 형이 매번 행복한 모습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제 발로 선교사를 찾아갔어요. 토론을 듣고 침례와 확인을 받고 싶었거든요.” 하고 마이클은 말한다.

마이클이 침례를 받은 후 선교사들이 신회원 토론을 가르치자 어머니 알리시아나도 옆에서 듣기 시작했다. 이것은 남편에게 영향을 주었고, 곧이어 조지와 알리시아나는 각자 간증을 얻게 되었다.

선교사로 봉사하기 위해 뉴질랜드 웰링턴 선교부로 떠나기 직전인 2006년에 라이언은 부모님에게 침례를 베푸는 특권을 누렸다. 그 후 마이클은 선교사로 떠나기 전에 부모님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는 특별한 기회를 얻었다. 마이클 쿠머 장로는 라이언이 뉴질랜드에서 귀환하기 전인 2008년 8월에 유타 솔트레이크시티 남 선교부로 떠났다.

선교 사업을 하는 아들을 십일조를 내고 남은 돈으로 재정 지원하는 것은 쿠머 가족에게 힘든 일이었다. 쿠머 형제의 수입은 대출금과 다른 납입금을 지불하는 데 모두 쓰였다. 그러나 그들은 희생을 감수했고, 온 가족은 부족하게 생활하는 것을 이해했다. 예를 들면, 쿠머 형제가 그날 저녁에 “보통” 식사를 하게 될 것이라고 기분 좋게 말할 때는 저녁 식탁에 고기가 올라오지 않는다는 의미였다. “그냥 빵과 코코아로 때우던 날이 많았어요.” 하고 마이클은 회상한다.

라이언은 부모님의 희생에 감사드린다. “부모님이 그분들이 맺으신 성약을 참으로 이행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라이언의 남동생은 부모님이 개종한 이후의 삶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우리 가족은 시련을 더 잘 헤쳐 나가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도와주셨거든요.”

이 가족의 개종은 곧바로 다른 사람들의 삶에도 영향을 미쳤다. 쿠머 가족과 함께 지내기 위해 왔던 라이언과 마이클의 사촌 두 명도 선교사 토론을 듣고 교회에 가입하기로 했다.

쿠머 형제는 가족의 희생 덕분에 현세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축복을 받았다고 말한다. 그들은 가진 돈으로 필요한 것들을 충족할 수가 있었다. 그리고 마이클이 선교사로 떠난 후에 쿠머 형제는 새로운 직장을 얻게 되어 대출금을 더 빨리 갚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쿠머 가족이 받은 영적 축복은 그들의 삶에서 더욱 중요한 것이었다. 조지와 알리시아나는 자신들이 부름을 수행하면서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깨닫는다. 조지는 피지 수바 북 스테이크 라미 제2와드에서 장로 정원회 회장으로, 알리시아나는 와드 초등학교에서 제2보좌로 봉사하고 있다.

라이언은 이제 인생에 대한 자신의 견해가 많은 또래들과는 매우 다르다는 점을 주목한다. “세계는 언제나 무언가 할 일이 있어요. 왕국을 건설하는 일이죠.” 복음은 미래를 계획할 때 “영원한 견지에서 사물을 보게” 해 준다고 라이언은 말한다.

조지와 알리시아나 쿠머는 복음을 듣기 전에 기독교 교리를 배운 적이 있다. 그러나 그 때는 위안을 얻지 못했다. 쿠머 형제는 이렇게 말한다. “다른 종교에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도록 가르쳐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우리에게 또 한번 기회를 주지요.”

쿠머 가족은 그 두 번째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려고 노력한다.

나이발루보우 가족

페니와 지에니 나이발루보우 부부는 피지 후기 성도 교회 대학에 다니는 바누아투 출신 소녀 네 명을 집안에 들여 식구를 두 배로 늘렸다. 그러나 나이발루보우 가족은 이것을 희생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풍성한 축복을 받았다고 느낀다. 그 축복 중 하나는 2009년 1월에 아기 하고스가 태어난 것이라고 그들은 믿는다.

2008년 초, 피지 수바 북 스테이크 타마브우아 와드 나이발루보우 감독 부부는 바누아투 출신인 어린 학생 두 명이 하숙할 곳을 찾는다는 말을 들었다. 그래서 나이발루보우 부부는 자신의 상황을 판단해 보았다. 그들의 두 아들 소아네(18세)와 로스(16세)는 집에서 멀리 떨어진 선조의 나라 통가에서 교회 학교를 다니고 있었다. 바누아투 출신인 두 소녀는 부모님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비싼 비용을 내면서 수바에 있는 비회원 가정에서 하숙을 하고 있었다. 나이발루보우 부부 생각에 두 소녀는 당시 열세 살이던 딸 안드레아에게도 좋은 친구가 되어줄 것 같았다. 안드레아도 그 교회 대학에 다니고 있었고 오후가 되면 부모님이 일을 마치고 돌아오기 전에 먼저 집에 도착하곤 했다. 그래서

나이발루보우 감독 부부는 네 소녀를 새로운 가족으로 받아들일 때 희생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 대신에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축복에 대해 감사를 드린다.

나이발루보우 부부는 바누아투에서 온 두 소녀에게 자신의 집에서 무상으로 생활하라고 권유해 보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두 소녀는 하숙비를 내겠다고 고집했다. 물론 그렇게 하더라도 그들이 내겠다고 하는 비용은 이전에 내던 하숙비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되었다. 소녀들의 가족에게는 축복인 셈이다.

4월에 이 집을 방문한 바누아투 출신의 다른 두 소녀는 나이발루보우 부부 집 분위기를 마음에 들어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두 소녀는 자신들도 그곳에 와서 생활해도 되는지 물어왔다. 나이발루보우 가족은 기쁘게 그들을 맞아들였다.

가정에 빛이나 되는 청소년들을 받아들이는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우리는 그 아이들을 우리 딸처럼 여기고 가깝게



앞: 페니나 이발루보우, 지에니, 안드레아. 뒤: 소아네, 로스 나이발루보우.



피지 수바 성전

지내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하고 나이발루보우 감독은 말한다. 나이발루보우 가족은 처음부터 소녀들을 가족으로 여겨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바누아투 출신인 네 소녀는 모두 친척간이었지만, 나이발루보우 가정에서는 서로를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친자매처럼 대했다. 안드레아도 그 소녀들을 “친언니처럼” 받아들여지게 되었다고 말한다. 안드레아보다 나이가 많은 이 소녀들은 안드레아를 돌봐주고 숙제도 도와 주었다. 네 소녀는 나이발루보우 감독 부부를 Ta와 Na로 부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피지 말로 “아빠”와 “엄마”라는 뜻이다.

교회 대학을 다니는 바누아투 출신 소녀들이 회원 가정에서 하숙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일 것이라고 나이발루보우 자매는 말한다. 소녀들의 아버지 중 한 명은 나이발루보우 가족의 집에 와서 딸에게 보여 준 사랑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소녀들 중에는 바누아투에 있는 한 지방부 회장의 딸도 있는데 나이발루보우 자매는 그 소녀가 자신의 가족에게 훌륭한 신앙의 모범이 되었다고 말한다. 나이발루보우 감독은 그 소녀의 모범 덕분에 자신의 가족이 경전 공부와 가족 기도를 더 꾸준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나이발루보우 부부는 다른 사람들과 나누었기 때문에 현세적으로도 축복을 받았다고 말한다. 그들의 자원은 더 풍부해졌다. 그리고 13년 만에 다시 임신을 하는 축복을 받은 것도 기꺼이 다른 사람과 사랑을 나누었기 때문이라고 나이발루보우 자매는 믿는다.

통가에서 학업을 마치고 고향 집으로 돌아온 나이발루보우의 두 아들도 어린 소녀들을 가족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소아네가 소녀들을 정확하게 친누이로 여기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너그러이

아세나카 라마시마
(오른쪽)는 다른
청소년들에게
어떤 조언을 할까?
“복음 안에 충실히
머물고 항상
부모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세요.
여러분이
부모님보다 더 잘
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아직
배우지 않은
것들을 부모님은
알고 계실 거예요.”

봐 줄 수 있는 이유가 있다. 소아네는 소녀들 중 한 명을 무도회 데이트 상대로 선택했고, 신사답게 그 역할을 잘 해냈다.

네 소녀가 학기를 마치고 2008년 말에 바누아투에 있는 집으로 돌아갈 때 작별 인사를 하는 것이 매우 슬펐다고 나이발루보우 감독은 회상한다. 네 딸들에게 안녕 하고 말하는 것은 부부에게 무척 힘든 일이었다. 2009년에 새 학년이 시작되자 나이발루보우 부부는 네 “딸”을 다시 기쁘게 맞이했을 뿐만 아니라 딸이 두 명이나 더 늘어났다.

그들의 집에는 침실이 네 개뿐인데 어떻게 친 딸과 새로 태어난 아기애다, 청녀 여섯 명까지 함께 생활할 수 있을지 궁금할 것이다. 그러나 나이발루보우 가족은 어려움 없이 신속하게 그 일을 해결했다.

결국 개인적인 공간이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 그것은 단순히 사랑의 원을 넓히는 문제에 불과했다.

아세나카 라마시마

2008년 동안 아세나카 라마시마는 피지 후기 성도 교회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주는 가장 명성 있는 상 두 개를 받았다. 하나는 그녀가 학교에서 최우수 학생으로 뽑혀서 받은 상이었다. 상은 장학금과 함께 수여된다. 그리고 세미나리 모범 학생에게 수여되는 주님의 사자 상도 받았다.

아세나카는 이 두 번째 상을 첫 번째 상보다 더 소중하게 여긴다. 그 상은 아세나카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신앙을 매일 생활 속에서 적용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잘 보여주기 때문이다.

아세나카는 이제 겨우 열아홉 살이지만, 삶은 그녀에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그러나 그녀는 기쁨으로 빛을 발하는 듯이 보인다. 그것은 2001년 피지 수바 성전에서 인봉된 그녀의 가족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아는 데서 오는 기쁨이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녀를 알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데서 오는 기쁨이다.

아세나카는 다섯 자녀 중 막내이자 외동딸이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때 선교 사업 중이었던 아세나카의 큰오빠는 아버지를 잃은 것이 아니며, 아버지가 늘 가까이 있음을 기억하도록 가족을 격려했다고 한다.

아세나카의 오빠들이 가족을 위해 생업 전선에 뛰어들었을 때 어머니는 자녀들을 영적으로 결합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자녀들은 부모의 모범을 따랐고, 많은 유익을 얻었다.

“아버지는 저에게 영감 그 자체였어요. 항상 우리에게 ‘열심히 하거라, 열심히 해.’ 하며 가르쳐 주셨지요.” 하고 아세나카는 나지막이 말한다.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그녀가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하고 어머니를 돕는 방법이였다. 최우수상과



함께 받은 장학금은 아세나카가 학비를 충당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부모님의 모범은 아세나카에게 영적인 교육의 기초가 되었다. “우리는 매일 가정에서 가족 경전 읽기와 부모님의 훈육을 통해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아세나카는 어머니께서 가족을 위해 계속 이 기초를 다져왔다고 덧붙였다.

아세나카는 스스로도 규칙적으로 경전을 공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유지하고 강화한다. 일정이 어떻든간에 아세나카는 경전을 공부할 시간을 낸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아세나카는 하나님 아버지 가까이에서 머물 수 있었고, 그렇기에 그녀는 계속 그리스도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아세나카는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항상 그곳에 계시다는 것을 알아요. 그분께서 원하시는 일을 제가 한다면, 그분은 저를 위해 그곳에 계실 것이고 그분의 영은 무엇이 옳은지를 확인해 줄 것입니다.”

그러한 인도는 또래 소녀들이 술이나 담배를 하거나 순결을 내던져버리며 “재미를 보자”고 말하는 상황에서 아주 중요하다. “그러한 행위는 제 양심에 어긋나는 일이에요.” 하고 아세나카는 말한다. 신앙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 속에서 안전을 느끼기 때문에 아세나카는 이렇게 할 수 있다. “안 돼! 하고 말할 수 있어요.”

아세나카는 교회에서 봉사를 하면서 다른 방법으로는 얻지 못했을 자신감을 키웠다고 한다. 교회 대학에서 학업을 마칠 때가 되면 그런 자신감이 중요할 것이다. 아세나카는 교회 대학을 마치고 난 후에 유타 주 프로보나 하와이에 있는 브리검 영 대학교에서 회계학을 공부하고 싶기 때문이다.

아세나카가 가고 싶어하는 대학들은 가족이 사는 수바 변두리 시골과는 상당히 먼 곳이다. 집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간다면 조금 두렵지 않을까? 이 질문에 아세나카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활짝 웃어 보인다. 물론 두렵겠지만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대답한다.

아세나카가 자신이 말한 대로 하리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지금까지 그녀는 자신의 목표들을 잘 달성해 왔다. 그리고 피지에 있는 다른 충실한 회원들처럼 신앙을 행사하고 계명을 지키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현세적으로 발전을 이룩해 왔다. ■

내 요청을 존중해 준 사장

열여덟 살 때 침례를 받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따라 생활하는 것이 내 삶의 길이 되리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복음 표준에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하고 중대한 일이라고 느꼈다. 또 그렇게 생활했을 때 여러 방면에서 많은 축복을 받았다.

내게 정말로 중요한 한 가지 복음 원리는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자 여러분, 다음 두 주 동안은 모든 직원이 주말에도 나와 일을 해야 합니다.”라고 사장이 말했다. 나는 맥이 빠졌다. 그 말은 곧 일요일에도 일을 해야 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것이다. 그렇게 할 때 늘 반복되는 일상의 일을 멈추고 생각을 하나님 아버지께 집중할 수 있다.

나는 코스타리카에서 관광업에 종사한다. 이 업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일요일에 일을 한다. 처음 이 일을 시작할 때 나는 교회 회원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그리고 일요일에 일을 쉬게 해 달라고 요청했고, 그 요청은 받아들여졌다.

그런 요청이 흔히 있는 일이 아니어서 동료들과 사장은 그 이유를 궁금해 했다. 그들은 나의 믿음에 대해 많은 질문을 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후기 성도들이 믿는 것들을 그들에게 일부분 설명해 주었다. 내가 복음 교리를 설명할 때면 대체로 그들은 나를 존중해 주었다.

하루는 사장이 공지 사항을 전달하려고 모든 직원을 불러 모았다. “자 여러분, 다음 두 주 동안은 모든 직원이 주말에도 나와 일을 해야 합니다.” 하고 사장이 말했다. 나는 맥이 빠졌다. 그 말은 곧 일요일에도 일을 해야 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장이 이렇게 말을 이었다. “그러니까 후안 카를로스만 제외하고 모두 나와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카를로스는 일요일에 일을 안 할 테니까요.”

그 말을 듣고는 마음이 놓였다. 사장은 내 요청을 존중해 주었다! 내가 직장에서 보여 준 행동과 표준 덕분에 사장의 신임을 얻은 것이다. 그래서 사장은 내 믿음을 기꺼이 존중해 주었다.

나는 복음 표준을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때 주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안다. ■

후안 카를로스 팔라스 아구에로, 코스타리카 산호세





엄마 타미노를 통해 받은 축복

타우마타기 타미노를 만날 당시에 나는 젊은 선교사로서 내 조국에서 봉사하고 있었다. 미망인인 타미노 자매님은 노령과 고된 일로 허리가 약간 굽으셨지만 내 동반자와 나를 맞이하실 때에는 늘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관습대로 팔을 벌리고 양 볼에 입맞춤을 하셨다.

타미노 자매님은 몸이 허약하셔서 빨리 걷지 못하셨다. 그렇지만 자매님은 모든 사람을 보살피셨다. 심지어 동반자와 내 옷이 깨끗하고 구김이 없는지까지도 확인하셨다. 아이들은 자매님 곁에 있는 것을 좋아했는데, 타미노 자매님이 아이들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고 아이들이 하는 말을 주의 깊게 들어주셨기 때문이다. 타미노 자매님은 방 두

팔순이 넘은 나이에도 타미노 자매님은 집회소 화단에서 잡초를 뽑고 청소를 하며 일을 했다. 이것이 주님께 계속해서 봉사하는 그 자매님의 방식이었다.

칸짜리 집에서 주변에 모래와 야자수, 가족, 친구들을 둔 단출한 삶을 사셨다. 사람들은 모두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 자매님을 “타미노 엄마”라고 불렀다.

타히티 파피에테 선교부 회장님은 내 동반자인 트찬 팻 장로와 나에게 후기 성도 80명이 성전에서 자신의 엔다우먼트와 가족 인봉을 받도록 준비시키라는 임무를 주셨다. 당시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성전은 비행기로 다섯 시간이나 걸리는 뉴질랜드 해밀턴 성전이였다. 타미노 엄마는 지난 6년 동안 해마다 성전을 다녀왔으며 그 해에도 갈 계획이었다. 생활 여건이 그렇게 열악한데 어떻게 그 비싼 경비를 감당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었다. 6년이 지난 후에야 나는 그 답을 알게 되었다.

1976년, 나는 타히티 파피에테 스테이크 회장으로서는 스테이크 집회소들을 정기적으로 점검했다. 어느 날 정오에 나는 티파에루이에 있는 집회소에 들렀다. 당시에는 보수를 받는 집회소 관리인이 있었는데, 티파에루이에서 대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관리인으로 일하는 60대 후반의 타미노 엄마를 만났다. 자매님은 인사를 하며 언제나처럼 “들어와서 먹고 가세요.”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타미노 엄마, 이전 예전같이 젊지 않으세요. 그리고 점심으로 드시는 음식이 고작 작은 빵 한 조각에 작은 정어리 통조림 하나, 작은 주스 한 병인가요? 이것보다 더 많은 음식을 드실 만큼 벌지 않으세요?”

자매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성전에 다시 갈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매님의 사랑과 희생의 모범에 감탄하며 내 마음은 녹아 내렸다. 타미노 엄마는 뉴질랜드에 있는 성전을 거의 열다섯 차례나 다녀오셨다. 타히티 파피에테 성전이 1983년 10월에 헌납되기까지 매년 다녀오신 것이다. 성전 헌납식에 참석했을 때 타미노 자매님은 진심으로 기뻐하셨다.

1995년, 이번에는 선교부 회장으로서는 타미노 엄마를 다시 만났다. 자매님은 출생지에서 멀지 않은 마케모 산호섬으로 다시 이사를 가셨다. 이제 80대가 되신 자매님은 더 이상 걷지 못했지만 얼굴에 깊게 패인 주름에서 평안과 인내, 인생과 복음에 대한 깊은 이해를 읽을 수 있었다. 웃는 모습은 여전히 아름다웠고 눈은 순수한 자애로 빛이 났다.

이튿날 이른 아침에 나는 집회소 화단에 앉아서 잡초를 뽑고 청소를 하는 자매님을 보았다. 아들 중 하나가 자매님을 그곳에 모셔다 드린 것이었다. 한 구역 청소가 끝나면 손과 팔을 사용해 옆 구역으로 옮겨 가셨다. 이것이 주님께 계속해서 봉사하는 자매님의 방식이었다.

그날 오후 늦은 시간에 나는 집회소 가까이 있는 나무 그늘에 앉아서 성전 추천서 접견을 하고 있었다. 타미노 엄마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그곳에 오셨다. 그녀는 성전 추천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질문에 답하고 싶어하셨다.

자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회장님, 이젠 더 이상 성전에 갈 수 없답니다. 늙었고 몸도 아프지요. 하지만 항상 유효한 성전 추천서를 소지하고 싶습니다.”

자매님이 얼마나 성전에 가고 싶어 하는지 알 수 있었다. 타미노 자매님이 간절히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받아들이시리라는 점을 나는 알았다. 그로부터 오래지 않아 자매님은 주님의 집에서 충실하게 봉사하던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 지상의 성소를 떠나셨다. 그분이 가지고 간

것이라고는 신앙과 간증과 친절, 자애, 기꺼이 봉사하려는 의지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타미노 엄마는 진정한 폴리네시아 개척자이다. 자매님의 모범은 나를 포함하여 많은 형제자매들에게 축복이 되었다. ■

빅터 디 케이브, 교회 잡지

테일러의 재능

“반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도록 테일러가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하고 여덟 살짜리 아이들을 맡은 초등학교 교사가 나에게 전화를 걸어 물었다. 테일러가 속한 반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재능에 대해 이야기할 계획이었기 때문이다.

갑자기 머릿속이 텅 비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답을 생각해 내려고 애쓰며 지난 8년을 돌이켜 생각했다. 테일러는 생후 4일이 되어서 뇌졸중을 앓았고, 그 때문에 뇌에 큰 손상을 입어 제어할 수 없는 발작 질환을 앓게 되었다. 테일러는 볼 수도, 말할 수도, 의사소통도 하지 못한다. 그 아이는 정신 연령이 6개월 된 아기 수준에서 멈추었다.

테일러는

“저는 다른 초등학교 아이들이 테일러의 휠체어를 밀어 주고, 문을 열어 주고, 꺼림칙한 마음을 이겨 내고 손수건으로 테일러의 턱을 닦아 주는 것을 배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고 내 아들의 초등학교 교사가 말했다.

편안하게 지내도록 우리의 보살핌을 받으며 대부분의 날들을 휠체어 위에서 보낸다.

그 아이가 킁킁 웃거나 전용 컵으로 마시는 것을 배웠을 때 우리는 갈채를 보냈고, 일어서서 몇 발짝 떼었을 때에는 그것을 기념하여 축하를 해주었다. 그러나 걸으려는 갈채를 보내고 축하를 하는 반면, 속으로는 그러한 작은 성취가 아마도 테일러가 도달할 모든 것일 수도 있음을 깨닫고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것은 그 초등학교 교사가 듣고자 하는 말이 아닐 것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나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언짢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테일러에게는 재능이 하나도 없네요.”

그러자 이 친절한 교사는 내 아들과 나의 관계를 영원히 바꿔 놓는 대답을 했다.

“제가 이 공과에 대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게는

재능이 있다는 점을

깨달았어요. 저는

테일러의 재능이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도록

가르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매님이 굉장하시다면, 제가 교회에서 테일러의 재능을 어떻게 알아보게 되었는지에 관해 우리 반 아이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저는 다른 초등학교 아이들이 테일러의 휠체어를 밀어 주고, 문을 열어 주고, 꺼림칙한 마음을 이겨내고 손수건으로 테일러의 턱을 닦아 주는 것을 배우는 모습을 보았답니다. 저는 그것이 그 아이가 우리의 삶을 축복하는 큰 재능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중얼거리듯 그 말에 동의를 했다. 그리고 우리는 조용히 인사를 나눈 뒤에 통화를 마쳤다. 나는 그 초등학교 교사가 이 대화로 내 인생이 얼마나 큰 영향을 받았는지 과연 알 수는 있을까 궁금하다. 테일러는 그대로였다. 여전히 많은 보살핌이 필요하다. 병원, 의사, 치료사들은 여전히 내 인생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나의 시각이 바뀌었고, 그 아이의 재능을 깨닫기 시작했다.

나는 주변 사람들이 그 아이를 돌보려 할 때 어떻게 자신의 행동을 바꾸려 하는지를 보았다. 또한 속도를 늦추고, 그 아이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차리며, 더욱 온정 어린 사람이 되고, 사려 깊으며, 끈기 있는 사람이 되도록 테일러가 어떻게 우리를 일깨워 주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테일러를 것처럼 엄청난 도전 앞에 서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나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그 초등학교 교사가 나에게 그 목적을 아주 어렵듯이 감지하게 해 주었다고 믿는다. 테일러는 자신의 재능을 우리와 나누기 위해 이곳에 있는 것이다. 우리가 봉사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기회를 주기 위해 이곳에 있는 것이다. ■

헤더 홀, 미국 유타 주

구급차를 불러!

19 91년, 우리 집 꼭대기 층에 판자를 두르던 중에 나는 왼쪽 눈이 몹시 따끔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 찢어지는 듯한 통증은 곧이어 온 머리로 퍼졌다. 나는 계속 일을 하다가 급기야는 너무 괴로워서 방으로 쉬러 갔다.

그러나 내가 자리에 눕자마자 작고 세미한 음성이 속삭였다. “일어나, 자면 안 돼.” 하고 영이 말했다.

나는 그 경고에 대해 깊이 생각하며 뭘 해야 할지 생각하다가 어머니가 편두통으로 복용하던 알약을 하나 먹어 보기로 했다. 부모님의 방으로 가서 알약을 찾았지만, 병 뚜껑을 열려고 하자 다시 그 음성이 들렸다. “그 약을 먹지 마.”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그 음성이 세 번째로 들려왔다. “전화로 구급차를 불러. 지금 바로!”

지금까지 한 번도 응급 센터에 전화를 해 본 적이 없었지만 나는 즉시 전화를 걸었다. 이윽고 구급차가 도착했고, 진료 보조원 두 명이 나를 들것에 실었다. 마지막으로 내가 기억하는 것은 그들이 내 이름을 물었다는 것이다. 그 후로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

나중에 깨어나보니 나는 병원 중환자실에 있었다. 여전히 힘이 없고 마취가 깨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나 아버지와 감독님이 내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주었을 때 느꼈던 느낌이 생각났다. 그때 나는 이런 말을 들었다. “그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건강을 회복하리라.”

중환자실에서 사흘을 보내고 일반 병실에서 나흘을 더 보낸 후, 나는 마침내

왼쪽 눈에 느껴지는 통증이 곧 온 머리로 퍼졌다. 자리에 눕자마자 작고 세미한 음성이 속삭였다. “일어나, 자면 안 돼.”

퇴원을 했다. 그때서야 뇌출혈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를 수술한 외과의사는 내가 “죽기 일보 직전”이었으며 편두통 약을 복용했다면 죽었을 것이라고 나중에 말해 주었다.

현재 나는 아주 건강하며, 그날 나를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린다. 나는 사랑스러운 아내와 성전에서 인봉되었고, 우리는 훌륭한 자녀를 다섯이나 두었다.

기적으로 나에게 삶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를 드린다. 나는 매일 그분들이 나에게 주신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열심히 노력한다. 그리고 영의 음성으로 보호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억한다. ■

사이먼 힐, 호주 퀸즈랜드

니파이 이야기, 나의 이야기

제이크에게서 전화를 받고 상실감에 빠졌지만,
고대 선지자가 보인 모범에서 나는 희망을 찾았다.

익명

대학을 마치고 몇 년이 지났을 때다. 나는 와드 청년 독신 성인들과 함께 가정의 밤을 하고 있었다. 우리는 스테이크 회장단 보좌로 봉사하시는 형제님 집에 초대를 받았는데, 그분의 자매님이 그날 공과를 하셨다.

그때 읽은 구절은 니파이와 형제들이 낫쇠판을 얻으러 라반에게 가는 내용이였다.(니파이전서 3~5장 참조) 공과를 하시던 자매님은 니파이가 보여준 용기와 불굴의 의지에 대해 말씀하셨다. 그리고는 우리 독신들을 바라보셨다. 그 시선은 우리 마음을 꿰뚫는 것만 같았다.

“니파이와 형들은 아주 어려운 일을 해야 했어요.” 자매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여러 차례 그 일을 시도해야 했고 그것은 매번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포기하지 않고 노력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경전을 얻었기 때문에 니파이는 가족이 ‘믿지 않음에 빠져들어 멸망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니파이전서 4:13 참조)

여러분의 삶에도 그러한 ‘판’이 있습니다.” 자매님은 계속 말씀하시었다. “어쩌면 교육을 받느라 그런 끈기를 보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데이트를 하면서 용기를 보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희생이 어떤 것이든, 어떤 장애물이 기다리든, 어떤 좌절과 상실감이

따르든 미래의 가족을 보호하고 그들이 믿지 않음에 빠져드는 것을 막기 위해 그 어떤 노력이 필요하든지, 돌아가서 판을 손에 넣으세요.”

정말 멋진 비유라고 생각했다. 나중에 다시 생각나도록 그 내용을 마음에 새겨 두었다. 그 순간에는 내 삶에 많은 장애물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학교도 졸업했고 직장 일도 재미있었고 아주 멋진 청년과 데이트도 하고 있었다. 그는 아주 오래된 친구였지만 지난 4개월 동안 우리는 진지한 관계가 되었다. 그보다 더 행복할 수 없을 정도였다.

몇 개월이 지난 후, 제이크(가명)와 나의 관계는 상당히 진척되었다. 하지만 제이크의 부모님은 몇 년 전에 이혼하셨고 제이크는 아직도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다. 제이크는 우리가 결혼하면 부모님처럼 끝이 나지는 않을까 하고 두려움에 시달렸다.

그래서 나는 제이크에게 심리적, 정서적으로 정리할 시간을 주겠노라고 했다. 필요하다면 아주 길게 주겠다고 했다. 그리고 두려움에 떠는 대신 신앙에 기초해 결정을 내리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선택의지의 역할에 대해 토론하고 부모님이 가셨던 길이 곧 그의 운명이 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아픈 마음을 치유해 주는 구주의 능력에 대해서도 나누었다.

대화를 하고 나니 제이크도 걱정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는 듯했고, 우리 관계는 어느 때처럼 지속되었다. 그랬기 때문인지 제이크가 토요일 오후에 전화를 걸어 헤어지자고 했을 때 나는 충격을 받았다. 제이크는 나와도, 그 누구와도 자신이 결혼하는 것을 상상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단지 결혼 자체를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다.

한 시간 동안 전에 이야기한 내용을 다시 되풀이했지만 끝내 그를 설득하지는 못했다. 제이크는 나직이 말했다. “미안해.” 그리고 그는 전화를 끊었다. 나는 침대에 가만히 앉았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고, 나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얼마 후, 방을 같이 쓰던 친구가 침실 문을 두드렸다. “스테이크 대회에 갈 거지?” 친구가 물었다. 어디를 가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무엇을 할 기분도 아니었지만 옷을 입고 친구의 차에 올라탔다.

교회에 도착해서 처음 시선에 들어온 사람은 몇 개월 전에 가정의 밤 공과를 해주셨던 자매님이였다. 우리 둘 다 아무





“돌아가서 판을 얻으라”는 속삭임은 성스러운 기록을 얻으려고 돌아갔던 니파이에게만 적용되는 사실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에게도 적용되었다.

해서 내가 제이크에게 돌아가서 “그를 못살게 굴어서” 결혼하겠다고 할 때까지 함께 있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었다. 또한 곧바로 다른 사람과 데이트를 해야 한다는 뜻도 아니었다. 슬퍼하고 치유할 시간을 가져도 괜찮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자기 연민에 빠지는 일은 피할 수 있었다. 제이크나 다른 남자들을 헐뜯는 유혹도 피할 수 있었다. 결혼을 믿고 그걸 손꼽아 기다리는 친구들을 찾게 되었고, 니파이와 같이 나는 계명을 성취할 방법을 미리 마련하지 않고는 명하지 않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할 수 있었다. 명하신 그 일이 고대 정전 기록을 얻는 것이든 결혼하는 것이든 가정을 이루는 것이든 상관없다.

나는 여전히 결실을 “이룬” 단계가 아니라 “이루는” 단계에 있다. 아직 결혼을 하지는

말도 하지는 않았지만 서로 눈길이 마주쳤고, 나는 마음속으로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돌아가서 판을 구하거라.”

그제서야 그 속삭임이 무슨 의미인지 깨달았다. 돌아가서 성스러운 기록을 얻어야 하는 사람은 단지 고대의 선지자만이 아니었다. 나도 그래야 했다. 또한 그것은 제이크가 결혼 자체를 믿지 않더라도 나는 여전히 결혼을 믿을 수 있음을 의미했다. 결혼에 대해 소망하고 기도하며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것이다. 바라고 동경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믿으며 능동적으로 나아가야 한다. 즉,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를 위해 마련하신 계획이므로, 매일 자신을 준비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렇다고



않았지만 즐거웠던 데이트 경험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든다. 의로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았기 때문에 내 경험은 더 풍성해졌다.

또한 십이사도 정원회의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고 위안과 자신감을 얻었다. 그분은 니파이가 끝까지 노력한 것을 가르치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두 번이나 시도하여 실패한 후에도 니파이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확실한 대안도 없었지만 그는 도시로 숨어 들어가 라반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미리 알지 못한 채 영에 의해 이끌렸느니라.’ 그리고 다음과 같이 의미 심장하게 덧붙였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앞으로 나아갔으며(니파이전서 4:6~7)

니파이는 계속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도움을 받을 만한 신앙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는 낙담하지 않고 행하였으며, 주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선택의지를 올바르게 사용하였기 때문에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는 영감에 따라 성공을 향해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갔고, 그의 모친이 말했듯이 ‘주께서 …… 명하신 일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받았습니다.(니파이전서 5:8)”

물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는 원리는 단지 데이트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이 원리는 만성질환을 앓고 있어서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기분 좋게 맞이할 수 있을지 걱정하는 사람, 결혼 생활에서 역경을 헤쳐 나가려고 애쓰는 부부, 올바른 길에서 벗어난 자녀를 위해 수년간 기도하는 부모, 자신의 믿음 때문에 학교에서 갈등에 부딪치는 십대들, 여러 날 동안 열심히 일했지만 단 한차례도 토론을 가르치지 못한 선교사들에게도 적용된다. 어떤 면에서든 우리는 모두 돌아가서 판을 얻으라는 명을 받은 것이다.

니파이처럼 우리도 할 수 있다. 용기와 불굴의 의지와 신앙으로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일을 성취할 수 있다. ■

주

1. 리차드 지 스코트, “기도에 대한 응답을 깨닫는 방법을 배움”, 성도의 빛, 1989년 11월호, 32쪽.



포기하지 마십시오

“인 내란 긍정적이며 활동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태한 것이 아니며,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수동적으로 기다리고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의인의 실패는 포기하거나 더 이상 노력하지 않을 때에만 일어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도록 도와줌으로써 인내는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조셉 비 워스린(1917~2008)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포기하지 마십시오”, 성도의 빛, 1987년 11월호, 8쪽. 참조.



마빈 제이
애쉬튼(1915~1994)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수 준 높은 삶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삶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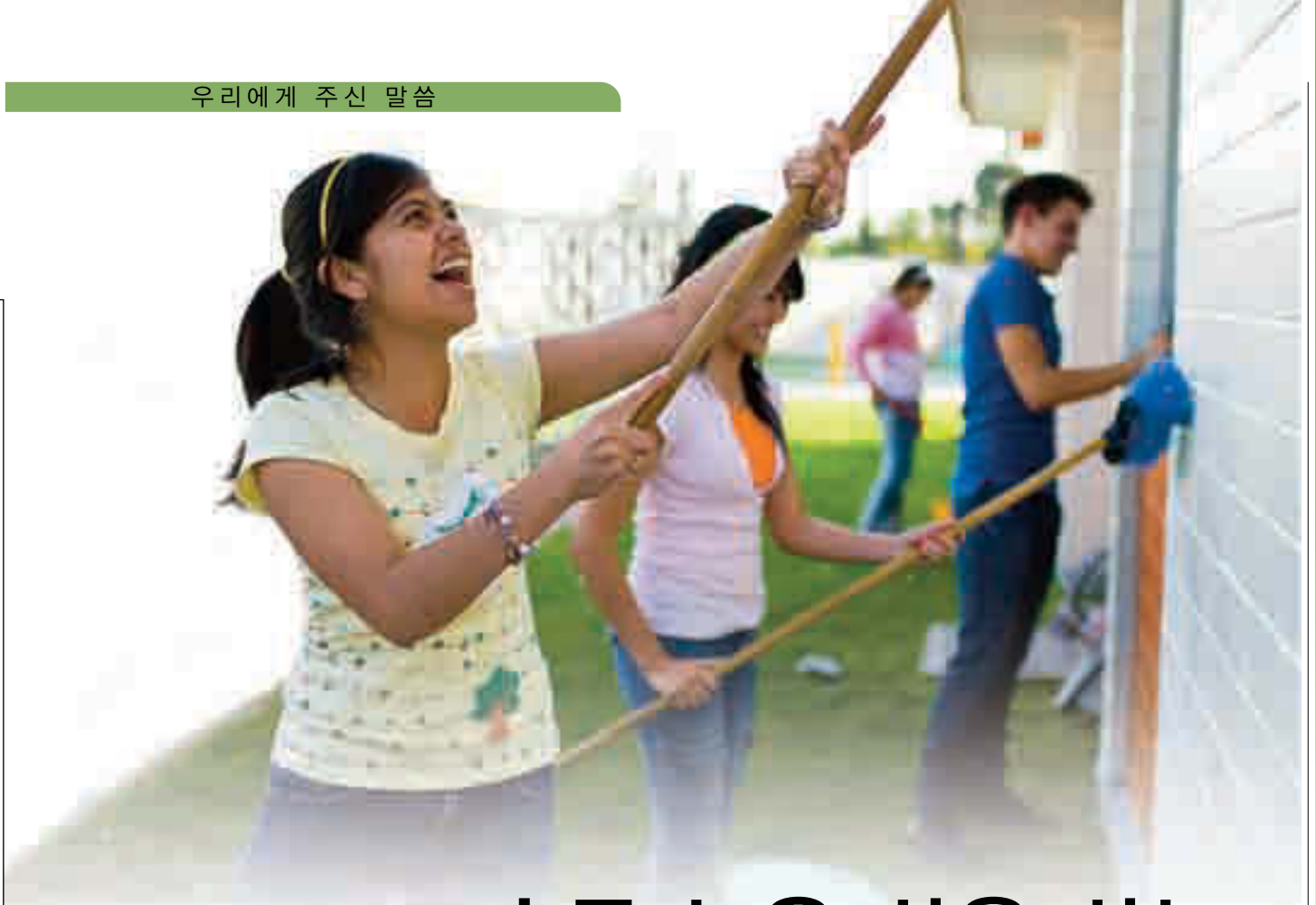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우리는 삶을 잘 영위해야 합니다. 지체하며 기다리는 시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

우리는 모두 올바른 우선순위와 목적을 세우고 살아야 합니다. 자신을 너무 가혹하게 평가하지 마십시오. 그보다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생활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저는 제 친구 캐롤 클락이 인생에 대해 한 말을 좋아합니다. …… 캐롤은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하는 목표는 성공적으로 기다리느냐가 아니라 풍성하고 충만하게,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목표는 올바른 사람이 나타나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올바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삶에서 얻는 진정한 기쁨은 행복한 마음으로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고 소망하면서 난관들을 극복할 때 찾아옵니다. …… 이루지 못한 꿈을 안고 살아간다는 건 매우 힘든 일하기에 제 마음은 부드러워지고 겸손해졌습니다. 하지만 제 가까이에 닳이 있습니다. 그 닳이 있기에 저는 비록 제 삶에서 의로움 다음으로 가장 간절히 원했던 사랑에는 실패했지만 전진할 수 있습니다. ……

지난 여름에 저는 후기 성도 회원이 아닌 친구에게 이제는 지쳤다고 불평했습니다. 재미도 없고 삶은 쳇바퀴 돌듯 똑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일말의 동정도 없이 이렇게 면박했습니다. ‘삶이 뭐라고 생각하니?’



지금 바로 수준 높은 삶을 사는 사람이 됩시다

본무대 연습 정도라고 생각하니? 캐롤, 그건 너의 삶이야. 바꿔 보라고!’ 저는 그 친구가 제 등을 두드려 주며 친절히 말로 위로해줄 거라 생각했습니다만, 예상과는 달리 차가운 현실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물론 그 친구의 말은 전적으로 옳았습니다. 저는 제 삶에 의미를 부여하지 못했고, 그래서 삶에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달란트의 비유를 다시 읽고 삶을 재정비했습니다.”(A Singular Life, ed. Carol L. Clark and Blythe Darlyn Thatcher [1987년], 35~36쪽)

형제 자매 여러분, 필요하다면 삶을 재정비하십시오. 기다리지 마십시오. 그

대신 봉사과 교육과 성품 개발과 만인에 대한 사랑과 기타 다른 의미있는 일들로 삶을 채우십시오. 매일 목적이 확고한 삶을 사십시오.

.....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시도록 권고합니다. 그분을 사랑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점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또한 그분에게 기회를 준다면 그분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도와주신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결정을 내릴 때 그분과 함께 내리십시오. 마음이 아프고 비탄에 잠길 때 그분께 쏟아내십시오. 자신의 가치에 대해 평가할 때는 그분의 의견을 물어보십시오. “이는 보라, 이 생은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할 시간이라. 참으로 보라 이 생의 날은 사람들이 자기의 일을 수행할 날이니라.”(엘마서 34:32)

여러분이 수준 높은 삶을 사는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누구보다도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매일 교통하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의 재능과 강점, 약점을 아십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특성을 개발하고 갈고 닦기 위해 이 지상에 왔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시리라는 점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그분은 아십니다. ■

“Be a Quality Person,” Ensign, 1993년 2월호, 64~67쪽에서 발췌: 구두점 수정.

“주변에 단정하지 못한 모습이 많이 보일 때 어떻게 제 생각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오 늘날에는 직접적으로든 대중매체에서든 어디를 가든지 단정하지 못한 차림을 한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변 환경을 늘 통제할 수는 없으나 여러분의 생각을 통제할 수는 있습니다.

옷차림이 단정하지 못한 사람을 본다면 재빨리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거나 그 자리를 떠날 수 있습니다. 부정한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 생각을 계속 하지 말고 깨끗한 생각으로 그것을 몰아내십시오. “쉬지 말고 덕으로 네 생각을 장식하라. 그리하면…… 성신은 변하지 않는 네 동반자가 될 것이요”(교리와 성약 121:45~46) 깨끗한 생각을 하면 여러분은 더 행복해지고 영의 영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늘 깨끗한 생각을 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옷을 단정하게 입는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노력하고, 옷차림이 단정하지 못한 모습을 볼 수 있는 상황을 피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유혹을 받을 때 좋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찬송가나 성구를 암기해 두십시오. 경전을 정기적으로 읽고, 가능하다면 성전에 참석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옷차림이 단정하지 못한 사람을 볼 때에도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으되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한 아들과 딸입니다. 그 때문에 적은 우리를 더욱 유혹하지만, 우리는 그 유혹보다 더 강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신이 성스러운 성전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단정하지 못한 옷차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후기 성도들은 그 사실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유덕하고 순결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나쁜 생각이 우리 마음을 파고든다면 즉시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분보다 우리를 더 잘 도와줄 분은 없기 때문입니다.

다이애나 에이치, 19세, 브라질 상파울루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하세요



우리 학교 6학년 중에 유일한 후기 성도인 저는 지속적인 언어와 단정하지 못한 옷차림에 맞닥뜨리거나, 또래들처럼 행동하라는 압력을 받곤 합니다. 하지만 학년 초에 저는

친구들에게 제 표준을 설명해 주고 무슨 일이 있어도 저는 표준을 고수한다고 말했습니다. 친구들은 그렇게 수 개월 동안 우리 교회의 가치에 대해 배웠습니다. 친구들에게 여러분의 가치와 표준을 설명한다면 친구들이 여러분을 도와줄 것입니다. 제 친구들의 태도와 옷과 언어가 더 좋게 바뀌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우리가 깨끗한 생각을 하도록 도와주고 우리가 협착하고 좁은 길에 머물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점을 저는 배웠습니다.

셀리아 앤, 12세, 미국 버지니아 주

기도가 도움이 돼요

기도는 깨끗한 마음을 유지하고 어디에서든 영의 영향력과 함께하게 하는 진정한 해답입니다. 이것은 제가 순수한 생각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면서 직접 알게 된 사실입니다. 매일 아침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면서 제가 깨끗한 생각을 하도록 도와 주시고 하루 종일 인도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저녁에는 감사 기도를 드림으로써 저는 하나님 아버지와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단정하지 못한 것에서 벗어나며, 제 표준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하면 세상의 죄과 마주칠 때 영이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굳건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항상 선한 행실이 가득하게 하십시오.”(모사이야서 5:15)

구나 알, 16세, 미국 위스콘신 주

제시된 의견은 견해를 밝히고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교회 교리를 밝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성전입니다



옷차림이 단정하지 못한 주변 사람들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좋은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표준을 따르는 모습을 보여 주며 모범이 되십시오. 사람들에게 사랑을 보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며 그들이 생각과 행동 모두에서 도덕적으로 깨끗하기를 바라신다고 이야기해 줌으로써 그들을 도우십시오. 순수함은 우리의 구원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마리크리스 비, 19세, 필리핀 퀘존

복음 가르침대로 생활하십시오

우리는 경전을 공부하고 생활에 적용함으로써 순수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배우는 모든 가치를 실천할 때,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를 읽을 때, 그리고 성전에 갈 때 우리는 순수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조시 오, 16세, 콜롬비아 안티오quia

마음은 무대와 같습니다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데에 관해 언급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마음이 극장 무대와 같다고 나옵니다. 이 무대에서는

한번에 한 사람만 연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순수하고 유덕한 생각을 할 때, 우리 마음은 그러한 생각에 계속 집중하게 될 것이며 불건전한 생각이 우리 마음이라는 무대를 점령할 수 없습니다. 덕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발전시키라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늘 깨끗한 생각을 해야 한다고 배웁니다. 불순한 것이 유혹할 때에는 좋아하는 찬송가를 부르거나 좋아하는 성구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도움을 니파이후서 32장 9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망치 말라”

맥이크론 장로, 21세, 브라질 후앙페소아 선교부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보는 것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지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단지 어떤 것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을 마음의 무대에 올려 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생각을 선택하고, 그 생각을 깨끗한 상태로 유지할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단정하지 못한 모습은 최대한 보지 마시고, 항상 단정하게 옷을 입으십시오. 그런 후 여러분과 만나는 사람들을 신성한 잠재력을 지닌, 개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십시오. 저는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볼 때 단정하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되면 슬퍼질 뿐, 다른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에이미 에스, 19세, 미국 유타 주



선한 것을 생각하십시오

“어떤 나쁜 생각들은 저절로 옵니다. 또 어떤 것들은

우리가 보[는] …… 것에 의해 오기도 합니다. …… 여러분 주위에 좋지 않은 영상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뭔가 좋은 생각을 하여 여러분의 생각을 깨끗하게 유지하십시오. 마음은 한 번에 오직 하나씩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추한 생각을 밀어낼 수 있도록 좋은 생각을 하십시오.”

리처드 지 스코트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의로운 선택을 함”, 성도의 빛, 1995년 1월호, 37~38쪽.

다음 호 질문

“우리 가족은 교회에 가고, 가정의 밤도 하고, 복음대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왜 문제가 생길까요?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2010년 5월 15일까지 아래 주소 또는 이메일로 보내 주십시오.

Liahona, Questions & Answers 5/10
50 E. North Temple St., Rm. 2420
Salt Lake City, UT 84150-0024, USA
이메일: liahona@ldschurch.org

명확하게 표현하거나 분량을 조절하기 위해 보내 주신 의견을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이메일 혹은 우편에 다음 사항과 동의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와드(또는 지부), (4) 스테이크(또는 지방부), (5) 서면 동의서, 18세 미만인 경우 원고와 사진을 출판해도 좋다는 부모 동의서(이메일도 가능)

아버지의 포옹

나는 일곱 살 때 아버지를 여의었다. 그 일로 의심이 많아진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못했다.

루이스 페르난도 메이코트

우 리 가족은 파티에서 막 떠날 참이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롤러블레이드를 타러 가고 싶었다. 아빠는 나를 안아 주시면서 조금만 더 있다가 롤러블레이드를 타는 데 데려다 주면 되겠느냐고 물으셨다.

화난 목소리로 나는 대답했다. “싫어요!”
“아빠를 믿어 보렴.” 하고 아빠가 말하셨다.

하지만 다들 그곳을 떠나고 싶어했고, 그래서 우리는 차에 올라탔다. 10분 후에 자동차 사고가 났다. 기적적으로 나는 살아남았지만 아빠가 그때 돌아가셨다. “싫어요!”가 아버지께 한 마지막 말이 되었다. 그리고 그때 아버지 품에 안긴 이후로 수년간 다른 사람을 안아 본 적이 없었다.

사고 이후 11년 동안 내 삶은 내리막길이었다. 자신감을 잃었고 모든 사람을 불신하기 시작했다. 삶은 매우 절망적이었다. 그리고 열여덟 살이 되던 해 어느 날, 절망의 소용돌이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내 자신을 발견하고는 하나님께 행복한 삶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청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선교사 두 명이 나에게 다가왔다. 그들은 나에게 책 한 권을 보여주고는 그것이 참된지 알기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말해 주었다. 선교사들의 요청은 어려운 게 아니었지만 아버지의 죽음이 남긴 상처가 너무 깊은 나머지 나는 선교사들을 만나 게 단지 우연일 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래도 물문경을 읽어 보았고 답을 얻기 위해 기도를 드렸다. 하지만 진정한 의도로 기도하지는 않았다. 진정한 의도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과 그분이 주신 답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였다. 사실 주위에서 쉽게 접하는 교회에

대한 비판을 받아들이는 게 훨씬 더 쉬웠다. 게다가 학교에서 배운 수많은 역사 속 위인들도 결점이 많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조셉 스미스도 그런 사람들과 같다면?

하지만 결국 나는 침례와 확인을 받았다. 내 삶에 일정한 방향이 필요했고, 나는 교회와 회원들이 좋았다. 하지만 그때 나는 진정한 간증 없이, 정말로 마음속에서 타오르는 간증 없이 교회에 들어왔다는 것을 지금은 안다. 내가 그나마 믿음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화나서 말한 것이 아버지께 마지막으로 전한 말이었다. 그리고 그 이후로 포옹을 했던 사람은 아버지가 마지막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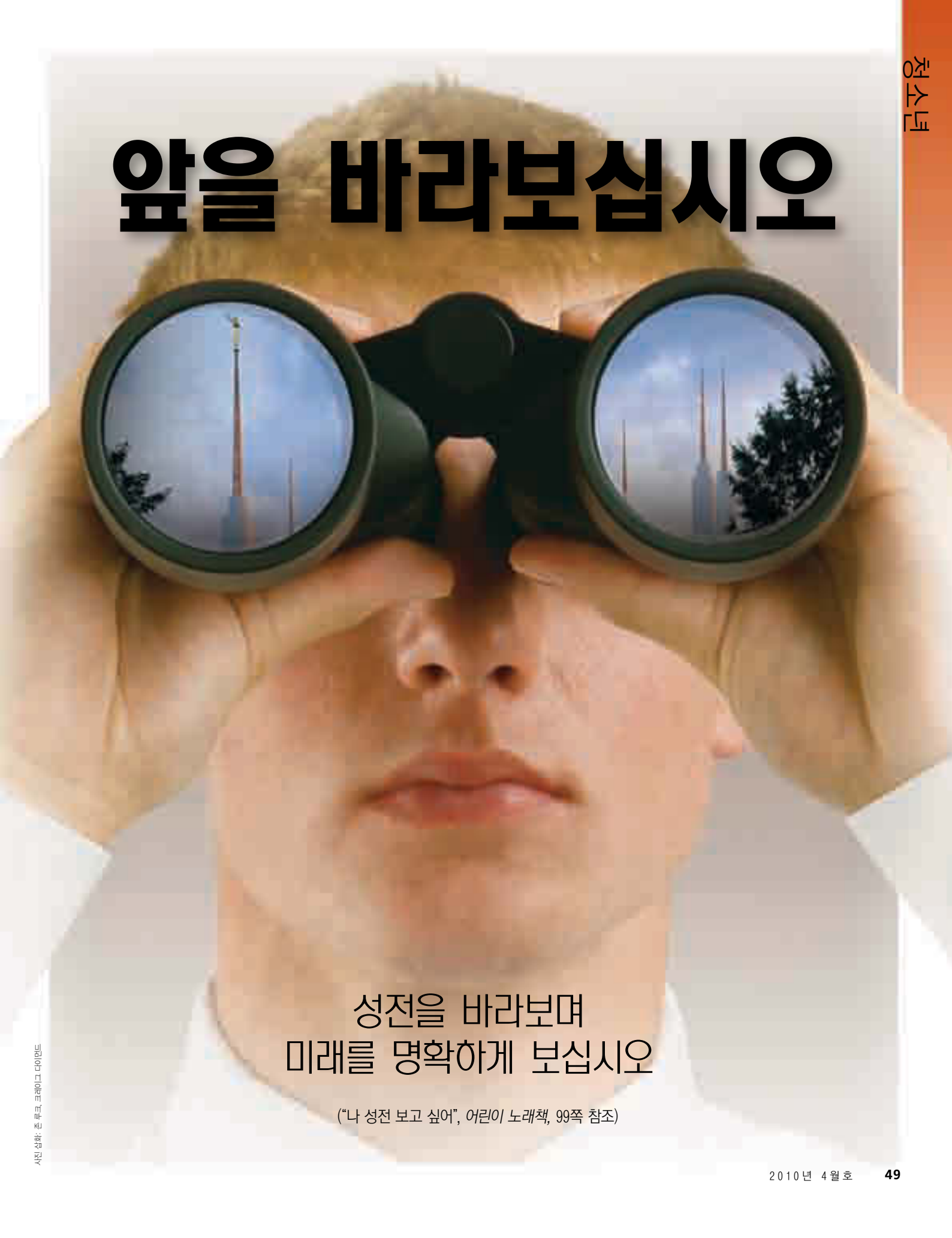
교회를 비방하는 사람들의 논증이 피상적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불신이 여전히 남아 있는데도 그러한 믿음이 유지된다는 것이 놀라웠다. 내가 교회를 알게 된 모든 과정은 바로 신뢰가 부족하고 행복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때 그 상태로 다시 돌아가게 된 것이다.

그래서 중대한 결심을 했다. 기도를 하되, 이번에는 모로나이가 권고한 대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진정한 의도”와 “진실한 마음”으로 하기로 한 것이다.(모로나이서 10:4) 실행으로 옮기기로 한 날, 금식하고 인도를 얻기 위해 기도했다. 그리고

지금껏 있었던 모든 일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며 하루를 보냈다. 그날 밤, 나는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다. 머리를 숙이고 물문경이 참된지 하나님 아버지께 여쭙어 보았다. 전에 느꼈던 모든 의심이 마음속에 떠오르기 시작했다. 눈을 감고는 두 손을 더 꼭 쥐고는 다시 한 번 여쭙었다.

진실한 마음과 의도로, 그리고 구주를 믿는 신앙으로 그렇게 했다. 세상이 정지한 것 같았다. 따스한 느낌을 받았고 빛으로 감싸인 기분이었다. 11년 동안 그렇게 이 순간을 기다려왔는데, 마침내 나는 다시 한번 아버지 품에 안겼다. 하나님 아버지께 말이다. 드디어 신뢰할 수 있는 누군가를 찾았다. “네, 맞아요.” 눈물에 젖은 얼굴로 나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을 믿습니다.” ■

앞을 바라보십시오



성전을 바라보며
미래를 명확하게 보십시오

(“나 성전 보고 싶어”, 어린이 노래책, 99쪽 참조)

데이트에 관해 청남에게 주는 권고



본부 청남 회장단

데이트란 무엇인가요?

청 남 여러분, 데이트는 잘 계획된 사교 활동에 청녀를 초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함께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데이트는 왜 중요한가요?

데이트는 여러분과 데이트 상대인 청녀 둘 다 무언가를 배울 수 있는 훌륭한 경험입니다. 데이트를 하면서 여러분은 자신에 대해 많이 알 수 있고 하나님의 특별하고 소중한 딸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그들을 존중하며 그들의 진정한 가치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겠지만 결혼은 여러분이 인생에서 내리는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십대 시절은 그러한 결정을 내리는 시기는 아니지만 합당하게 데이트를 한다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준비가 될 것입니다. 데이트를 하면 사교술을 익혀 데이트하는 청녀 앞에서 더 자신 있게 행동하고 그들에게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해력이 커져서 영원한 동반자 관계에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자질과 성품을 지닌 사람들에게 끌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합당하게 데이트를

하면 올바른 사람과 올바른 때에 성전에서 현세와 영원을 위한 결혼을 하기에 합당하도록 준비될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여러분은 인생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축복은 바로 행복하고 성공적인 결혼 생활입니다.

합당한 데이트 표준은 무엇인가요?

주님의 선지자들은 적어도 16세가 되기 전에는 데이트를 하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데이트를 할 때는 표준이 높은 사람과 데이트 과정에서 여러분의 표준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하고만 데이트를 하십시오. 언제나 여러분과 데이트 상대자가 자존심을 유지하고 주님의 영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건전한 활동만 하십시오. 깨끗하고 순수한 생각과 감정을 갖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성적인 대화나 행동으로 이어지는 관계를 피하십시오. 데이트 상대자와 단 둘이서만 있지 말고, 밤 늦게까지 머물지 마십시오. 신성한 신권과 여성의 미덕을 지키도록 서로

돕고 서로의 절개와 정조를 보호하는 것은 두 사람 모두의 책임입니다. 데이트를 신청하거나 신청을 수락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실제로 데이트를 하는 내내 청녀를 친절하게 대하고 존중하십시오.

데이트를 시작할 때는 한 쌍 이상의 청남 청녀와 함께 하십시오. 동일한 상대와 너무 자주 데이트하거나 너무 일찍 진지한 관계를 맺는 것을 피하십시오.

데이트를 할 때에는 생활에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자주 데이트를 해서 가족 관계를 해치거나 학교 성적이 나빠지거나 다른 기술을 습득하지 못하거나 재능을 발전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서는 안 됩니다. 데이트하는 청녀를 부모님께 소개시켜 안심할 수 있게





“친구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따라 생활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들어주는 사람입니다.”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데이트에 관해 청녀에게 주는 권고



본부 청녀 회장단

데이트는 재미있습니다! 데이트는 여러분이 청남과 우정을 쌓고 우정을 돈독히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님은 친구를 다음과 같이 간단하면서도 의미 심장하게 정의하셨습니다. “친구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따라 생활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들어주는 사람입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은 소망을 품게 해 주는 청남과

데이트하십시오. 여러분이 데이트하는 상대방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십시오.”²

여러분이 데이트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매력적이고 활기찬 사람으로 만들어줄 자질을 발전시키기 위해 지금부터 노력할 수 있습니다.

- **웃으십시오!** 그렇습니다. 웃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웃음은 다른 사람들에게 퍼질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할 것입니다.
- **영적으로 준비되십시오.** 성신이 여러분과 늘 함께할 수 있도록 성신을 느낄 수 있는 활동을 하십시오.
- **신체적으로 준비하십시오.** 신체 관리를 잘하고 활발하게 생활하며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십시오. 용모를 단정하게 가꾸십시오.
- **취미와 재능을 발전시키십시오.** 최대한 교육을 받으십시오. 양서를 읽거나 좋은 음악을 듣거나 시사 사건을 파악하거나 다른 언어를 배우십시오.
- **하나님의 딸답게 행동하십시오.** 과격하거나 요란하거나 무례하거나 선정적으로 행동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행동을 영화에서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청녀에게는 그런 행동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 **사교술을 발전시키십시오.** 친절하고, 다른 이를 포용하고, 다른 사람의 필요 사항을 헤아리십시오. 의사소통 기술을 직접 연습해 보십시오. 올바른 예의와 예절을 배우십시오. 이 모든 것은 누구나 함께 있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십시오.** 다른 사람과 그들이 좋아하는 것에 관심을 보이십시오. 그들을 편안하게 해줄 만한 질문, 그들을 더 잘 아는 데 도움이 되는

하십시오.

우리는 여러분에게 간단하고 건설적이며 적은 비용으로 잘 계획된 활동을 하도록 권고합니다. 그런 활동을 하면 여러분은 데이트하는 청녀를 잘 알게 될 것입니다. ■



질문을 하십시오.

- **한계를 정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이용하지 않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순결을 유지하십시오.
-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에 나오는 표준에 따라 생활하십시오.** 여러분이 데이트하는 사람과 함께 이러한 표준을 주저 없이 이야기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고 여러분의 표준을 낮추지는 마십시오. 상대방이 그렇게 하길 바란다면 그는 함께 우정을 나누거나 교제를 할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 **다른 사람이 그들이 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존재가 되도록 도우십시오.** 그들이 여러분과 데이트하여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데이트할 기회가 많지 않더라도 여전히 웃음을 짓고 새로운 친구를 사귄 수 있습니다. 낙천적인 사람이 되십시오. 데이트를 하며 실망을 하더라도 발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은 누구든지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해 줄 수 있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최고의 모습을 보여줄 때 그것은 그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데이트할 사람을 현명하게 선택하십시오

데이트는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청남을 알게 되는 기회입니다. 데이트 상대자를 선택할 때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어떤 청남과 데이트할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 청남의 표준이 높은지,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생활하도록 항상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십시오. 다음에 나오는 몇 가지 질문에 스스로 답해보십시오.

- 그는 강직하고 훌륭한 성품을 지녔는가?
- 그는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가?
- 그는 정직한가?
- 그는 다른 사람과 나를 존중하고 친절하게 대하는가?

- 그는 비이기적인가?
- 그는 내 부모를 존중하고 자신의 부모를 공경하는가?
- 그는 자신의 신권을 존중하는가?
- 그는 내가 최고의 존재로 발전하도록 동기를 주는가?
- 그는 성전에 가기에 합당한가?

데이트를 하며 다른 사람들을 알아볼 때 즐겁게, 재미있게 하십시오. 함께 참여하는 활동을 계획하십시오. 가장 재미있는 데이트 중에는 함께 음식을 만드는 것처럼 간단한 활동도 있고, 봉사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냥 앉아서 영화를 보는 것보다 함께 활동을 하면 상대방을 파악하고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선지자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데이트를 할 때 상대방을 정중하게 대하십시오. 그리고 상대방도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존중심을 보여주기를 기대하십시오.”³ 우리는 여러분이 함께 데이트하는 모든 청남과 여러분의 의로운 모범을 지켜보는 모든 친구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리라는 점을 압니다.

여러분의 은사와 재능을 계속 발전시키고, 다른 사람들과 우정을 나눌 때 현명하게 선택하며, 의로운 영향력을 미칠 때 여러분의 데이트 기간은 건설적이고 보람차며 즐거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기간은 여러분의 시각을 높이고 최고의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발전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딸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우리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

주

1. 로버트 디 헤일즈, “This Is the Way; and There Is None Other Way,” *Brigham Young University Speeches of the Year, 1981-82*(1982), 67.
2. 토마스 에스 몬슨,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리아호나* 또는 *Ensign*, 2009년 5월호, 67쪽.
3. 토마스 에스 몬슨, “Standards of Strength,” *New Era*, 2008년 10월호, 5쪽.



퀘벡 몬트리올 성전 사진: © LAURENT LUCUX

성전을 바라보며



“여러분에게는 누구와 데이트를 할지 선택할 책임뿐만 아니라 누구와 결혼할지 선택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도 있습니다.

영원한 관점을

유지하시도록 권고합니다. 미래에 결혼을 할 때 꼭 성전에서 하십시오. 여러분이 결혼을 하는 그 특별한 날만큼 아름다운 장면과 성스러운 시간은 없습니다. 그때 그곳에서 천상의 기쁨을 어렵듯이 감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경계를 늦추지 마십시오. 유혹에 굴복해 그러한 축복을 빼앗기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Whom Shall I Marry?” *New Era*, 2004년 10월호, 4, 6쪽.



우리들 공간

경전은 저의 닷입니다

새로운 회원이 되어 세미나리를 막 시작했을 때 저는 경전이 제 삶의 닷이 되고 방패와 보호막이 되며 위안과 기쁨의 근원이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경전을 읽으면서 저는 제 믿음과 가족을 위해 싸우고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히, 그리고 꾸준히 전진해 나간 하나님의 용맹한 전사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겸손하고 인내심이 많으며 사랑과 자애와 신앙으로 가득 찬 인물들입니다. 그들이 오늘날 우리가 경전에서 가르치는 원리에 따라 생활하기를 마음속으로 소망했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경전에 나오는 이 영웅들은 모두 저에게 감명을 주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이는 어린 시절부터 겸손하고 순종적이었으며, 완벽한 모범을 보여주셨고, 모든 인류가 큰 빛을 진 분입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께 정말 어떻게 감사를 표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세미나리에서 저는 경전을 단지 머릿속에 저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삶에 적용하기 위해 공부한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진정으로 주님의 손에서 도구 역할을 하신 훌륭한 교사들에게 감사합니다.

지젤리 디, 베네수엘라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시편 91:2)



내가 좋아하는 성구

교리와 성약 122:7~9

이 구절을 읽으면 마음이 몽클해집니다.

조셉 스미스에게 주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게 위안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시련을 감당할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큰 자비와 위대한 사랑을 지니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련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도빌레 비, 리투아니아



이곳은 여러분의 공간입니다

이 곳은 여러분의 페이지입니다. 복음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른 청소년들과 나누는 곳입니다. 어떤 읽을거리가 있고 어떤 기사를 기고할 수 있는지 아래에서 살펴보십시오.

- 복음을 더 잘 이해하고 복음대로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된 경험이나 깨달음.
- 직접 찍은 고해상도 사진에 성구를 넣은 것.
- 하나님에 대한 의무 완수 활동이나 개인 발전 기록부 활동을 하면서 얻은 훌륭한 경험.
- 영감을 주는 성구에 관한 자신의 견해. 원할 경우 개인 사진 포함.
- 리아호나를 읽고 마음에 들었던 기사에 관한 의견.

여러분의 이야기, 사진 또는 의견을 liahona@ldschurch.org로 보내 주십시오. 제목란에 “Our Space”라고 적고, 여러분의 원고를 출판해도 좋다는 부모님의 동의를 포함시키십시오. 제출물은 분량을 조절하거나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편집될 수 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도록 도우십시오

간단한 봉사 활동이 계기가 되어 지부 전체가 열성적으로 가정의 밤을 하게 되었다. 인도의 청년들에게서 그 이야기를 들어보자.

리차드 엠 롬니
교회 잡지

인도 첸나이 지방부, 첸나이 제2지부 청년들은 지부 회원들이 가정의 밤을 하도록 격려하고 싶었다. 청년들은 이내 간단하면서도 실용적인 방법을 떠올렸다. 그들은 가정의 밤 임무표로 사용할 등근 회전판을 만들었다. 도표에 부착된 이 회전판을 돌리면 누가 기도를 하고, 공과를 하며 “다과”를 준비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다.

종이로 만든 이 회전판은 단순하면서도 다채로웠다. 저녁 시간에 집회소에서 청년 활동으로 만든 이 회전판은 각 개인에 맞게 가족들 사진이 붙여져 있다. 새로운 회원이었던 수쉬미타 산토쉬 쿠마(15세)와 여동생 수제타(14세)는 첫 번째로 만든

원판을 받고서 무척 기뻐했다.

“상호 향상 모임을 마치고 나서 우리 청년들은 그 개종자 자매들의 아파트에 가서 그들의 아버지께 회전판을 드렸어요.” 열여섯 살인 테이지 다니엘은 말한다. “온 가족이 기뻐하는 것 같았어요.” 그 가족은 이미 전임 선교사들과 가정의 밤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었다. 그래서 그들이 받은 회전판은 새로 알게 된 이 활동을 실천하는 데 촉매제가 되었다.

청년들은 또한 회전판을 충분히 만들어서 지부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가족들에게도 나누어 주었다. 그런 다음에는 전임 선교사들이 새로운 개종자에게 줄 수 있도록 넉넉하게 더 만들었다.

“우리 지부의 많은 분들이 새로운 회원이에요. 그래서 가정의 밤을 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요.” 테이지가 말한다. “하지만 가정의 밤은 자녀와 부모가 단합하도록 도와줘요. 가족들이 이 가정의 밤 회전판을 볼 때마다 ‘아 맞아, 우리를 사랑하는 교회 회원들이 우리에게 이 회전판을 주었지. 우리 가정의 밤을 하자.’ 하고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그녀는 가정의 밤이 곧 지부 회원들의 주례 행사가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봉사는 봉사로 이어지고

가정미 밤 회전판은 청년들이 했던 여러 봉사 활동 중 하나에 불과하다. 청년들은 외로워하는 지부의 미망인을 위로하기



가장 높은 우선순위

부모와 자녀 되시는 여러분은 가족 기도, 가정의 밤, 복음 공부와 교육, 건전한 가족 활동을 최우선순위로 두어야 합니다. 다른 요구 사항이나 활동이 아무리 합당하고 적절하다고 해도, 그러한 것이 부모와 가족만이 수행할 수 있는 거룩한 임무를 대신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제일회장단 서한, 1999년 2월 11일; 또한 *리아호나*, 1999년 12월호, 1쪽 참조

위해 바구니를 예쁘게 장식하고 그 안에 행복을 주는 간단한 메시지들을 수십 장 적어 넣었다. “그 자매님을 돌봐줄 사람이 없어요.” 데이지가 말한다. “그래서 우린 지부 회원들이 자매님을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청녀들은 바구니를 전달하며 매일 얼굴에 웃음꽃이 피도록 하루에 한 장씩 메시지를 읽으시라고 설명해 드렸다.

바구니에 메시지를 담아 전달하자는 생각에서 또 다른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청녀들이 서로에게 감사 편지를 쓰기로 한 것이다. “우리는 각자 서로에게 아주 예쁜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모니샤 칼라이 셀밤(13세)이 설명한다.

오랫동안 이어질 가정의 밤!

첸나이 제2지부 청녀들은 이러한 활동과 다른 활동들을 하면서 단순한 봉사라도 사람들을 구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배웠다. 지부 회원 중 이미 많은 사람들이 가정의 밤 회전판을 받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판을 오래도록 기억할 것이다. 회전판을 몇 번 사용하다가 말더라도 그 역시 좋은 것이다.

“누구나 회전판이나 도표를 만들 수 있어요. 또는 연필과 종이만 있으면 그 자리에서 계획을 세울 수 있죠.” 데이지는 말한다. “가정의 밤이 모든 사람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가정의 밤을 하도록 돕고 싶은 거예요.” ■

경전도 도움이 돼요

경전은 가정의 밤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첸나이 제2지부 청남들에게 그걸 물어보면 말해 줄 것이다. 이 청남들은 지부에서 가정의 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공과 때 사용할 수 있는 성구들을 찾아보기로 했다. 청남들이 추천하는 경전 구절을 한번 살펴보자.

카티케얀 벤카테산(18세)은 엘마서 32장 21절과 28절이 신앙에 대한 공과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좋은 구절이라고 말한다. “엘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에 비유했어요. 씨앗에 대해, 그리고 그 씨앗이 어떻게 자라는지 이야기하는 건 쉬워요. 이 성구는 제 신앙이 자라는 데 도움이 되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간증을 할 수 있죠.”

그의 동생 메가나탄(16세)은 엘마서 36장 3절을 펼쳐 보인다. 그 구절은 신뢰에 대해 가르쳐 준다. “엘마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말했어요. 우린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해야 해요. 그분에게 어려운 일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은 어떤 문제든 도움을 주실 수 있죠.”

니파이전서 18장 20절을 읽은 다니엘 스티븐(15세)은 기도에 관한 공과를 할 때 이 구절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한다. “저는 이 구절을 좋아해요. 옳은 것이라면 무엇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여 그것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쳐 주거든요. 나쁜 것이나 어리석은 것을 간구해서는 안 돼요. 좋은 것을 간구해야 해요. 영의 속삭임을 따른다면 어떤 것을 간구해야 할지 알 수 있어요.”

청남 회장 바라스 라지 라메쉬 바부(19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공과를 할 때 니파이전서 19장 9절을 사용한다고 말한다. “이 구절에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판단하지만 그분께서는 그들에게 친절하시고 오래 참으신다고 나와 있어요. 그분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어떤 짓을 해도 상관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더 친절해야 한다는 걸 배웠어요.”

물론 가정의 밤 공과에 사용할 수 있는 경전 구절은 많다. 그에 대해 가족과 함께 이야기해 보라. 여러분은 어떤 경전 구절을 사용하겠는가?

여러분의 가족도 경전을 사용하여 훌륭한 가정의 밤을 했습니까? 이메일 liahona@ldschurch.org로 저희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카티케얀



메가나탄



다니엘



바라스 라지





찰스 더블류 달퀴스트
이세
2004년에서 2009년까지
본부 청남 회장으로 봉사

이른 일요일 아침

피지 청남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먼 거리를 걷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의무를 열심히 수행합니다.

토요일 저녁입니다. 피지 나우소리 스테이크 왈리아 와드의 아론 신권 소유자들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안식일 준비를 한 뒤, 마이위리우리 부부의 집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모여서 금식을 하기 전에 간단히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마이위리우리 형제님 집에 있는 듯자리 위에서 잠을 청합니다.

이 아론 신권 소유자들은 이른 아침에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동트기 훨씬 전에 일어나서 흰 셔츠에 넥타이를 매고 검은색 바지를 입습니다. 아침 6시가 채 안 되어 그들은 마치 선교사처럼 짝을 지어 마이위리우리 형제님의 집을 떠납니다. 두 명씩 짝을 지은 청남들은 신권회가 시작하는 10시까지 교회로 가야 하는데 각자 가는 길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 가는 길에 각 회원 집에 들러서 금식 헌금을 내도록 권유합니다.

이 청남들은 와드 경계 끝인 마이위리우리 형제님의 집에서 5킬로미터를 걸어서 다른 쪽 와드 경계인 집회소 건물까지 걸어갑니다. 이것은 청남들이 의무를 완수하고 교회 회원들이 금식 헌금을 내서 미망인들과 그들의 형제자매들을 돌보는 위대한 사업에

동참하도록 권유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피지 나우소리 스테이크 알리파테 타기두구 회장은 아론 신권 소유자들이 이렇게 노력한 결과로 금식 헌금이 20퍼센트나 증가했다고 말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청남들이 그 기회를 통해 자신의

의무를 완수하고 와드 회원들이 침례 때 맺은 성약을 지키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는 점입니다.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무리 안으로 들어와, 그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기 원하며 기꺼이 서로의 짐을 져 가볍게 하고자 하며,

“교사의 의무는 교회를 항상 돌아보며, 그들과 함께 하며, 그들의 힘을 북돋아 주며 …… 또한 모든 회원이 그들의 의무를 다하도록 보살피는 것이니라.”(교리와 성약 20:53, 55)





자신이 한 일로 회원들이
구주께 더 가까이
나아갔다는 것을 아는 것은
이 신권 소유자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른 아침에 하루 일과가 시작된다. 하지만
이 청년들은 얼굴에 웃음을 머금고 와드의
한쪽 경계 끝에서 반대쪽까지 걸어가며 금식
헌금을 모은다.

참으로 또한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기꺼이 슬퍼하고, 또한 위로를 필요로 하는
자들을 위로하며, 참으로 죽을 때까지
어느 때에나 무슨 일이나, 너희가 있게
될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
너희가 하나님께 구속을 받고 첫째 부활에
속한 자들과 함께 해아림을 받아 영생을
얻고자 한즉”(모사이야서 18:8~9)

이 위대한 청년들에게는 금식 헌금을
받으러 다니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그들은 기꺼이 일찍 일어나
흰색 셔츠에 넥타이를 매고 회원들이 후한
금식 헌금을 내서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권유하기 위해 이른 아침에
회원들의 집 문을 두드립니다.

저는 신권 소유자로서 잘 준비하여
자신의 의무를 수행하는 이 청년들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회원들이 금식 헌금을
내서 구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권유하는 일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것이
청남들의 삶에서 얼마나 훌륭한 축복이
될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신권
의무를 수행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나중에 더 훌륭한 선교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더 훌륭한 남편과
아버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청년들은 주님의 백성에 관한 다음
경전 구절을 더 잘 이해할 것입니다.
“그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의롭게
거하며, 그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었으므로 주가 그의 백성을 시온이라
불렀더라.”(모세서 7:18) ■

그 사건은 아빠가 세 딸에게 줄 깜짝 선물을 들고 오신 날 일어났다. 퍽퍽 소리가 가득한 골판지 상자 안을 들여다본 우리는 기뻐서 소리를 질렀다. 아기 오리들이었다! 우리는 흥분해서 어서 빨리 한 마리를 잡아보려고 성화를 부렸다. 아빠를 얼마나 밀고 당겼는지, 그 바람에 아빠는 상자를 거의 떨어뜨릴 뻔 하셨다.

“좀 진정해, 애들아. 한 사람당 하나씩이다!” 하며 아빠는 싱글벙글 웃으셨다.

정말 놀라웠다. 손 안에서 느껴지는 아기 오리가 얼마나 조그마한지! 나는 아기 오리를 조심스럽게 안아보았다. 따스한 이 아기 오리는 25센트짜리 동전만했고, 무게도 그만한 듯했다.

“우와, 정말 가볍다! 물에도 뜰 수 있겠는걸!” 하고 나는 큰 소리로 외쳤다.

아빠는 싱글거리며 부엌에 있는 엄마에게로 가셨다. 아빠는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일, 특히 가족들 얼굴에 함박웃음이 피게 만드는 그런 일을 아주 좋아하신다. 바로 그때, 물놀이 통이 머리에 떠올랐다. 아기 오리들에게 그보다 더 좋은 집은 없을 것이다!

“노라, 차고에서 낡은 플라스틱 물놀이 통을 꺼내 줘.” 하고 동생에게 말했다.

우리는 뒤뜰 수돗가에서 깨끗하고 시원한 물을 물놀이 통에 받았다. 그리고 나서 아기 오리들을 살펴보며 이름을 지어 주었다. 내 오리는 둥근 부리에 작은 갈색 반점이 있고 우스꽝스럽게 생긴 물갈퀴가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친구들이 떠올랐다. 내가 새로 생긴 이 애완동물들에게 애정을 쏟는 걸 보면 킁킁거리며 웃겠지. 그리고 나는 며칠 동안 친구들을 보지 못할 것이란 사실을 떠올렸다. 친구들은 부모님 허락을 받아서 근처 산으로 야영을 떠나기로 했다. 오래된 진흙 길을 자전거로 달리고, 야영지를 찾고, 텐트를 치겠지. 친구들은 추억거리를 잔뜩 만들어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즐겁게 웃으면서 야영 이야기를 늘어놓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엄마는 허락을 안 해주셨다. 야영을 떠나기에는 내가 너무 어리다는 이유였다!

물놀이 통에 물을 가득 채운 후, 우리 세 자매는 기대감에 부풀어서 물통 주위로 모여 앉았다. 우리는 퍼덕거리며 퍽퍽 울어대는 새들을 물 위에 올려 놓았다.

그런데, 아기 오리들은 꾸르륵 하고

바닥으로 가라앉아 버렸다. 맵소사, 세 마리 모두 물 속으로 빠져 버렸다!

우리는 재빨리 물 속에 손을 넣어 숨막혀 하는 불쌍한 새들을 구조했다. 뭐가 잘못된 걸까? 우리는 헤엄치기 같이 어려운 일을 요구한 게 아니었다. 그냥 떠있기만 하면 되는데, 오리한테는 식은 죽 먹기 아닌가?

“왜 그러지?” 동생이 궁금해 했다.

“우리가 애들을 놀라게 해서 그런 거 아닐까?”

우리는 이것을 아기들이 걷는 법을 배우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여겼다. 아기들은 걷는 법을 배울 때 종종 넘어지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시도해 보기로 했다.

“하나, 둘, 셋, 시작!”

퐁! 퐁! 퐁! 아기 오리들은 쇠구슬처럼 그대로 가라앉아버렸다.

우리는 아기 오리들에게는 단지 연습이 필요하다는 우리의 이론을 계속해서 실천해 볼 마음이 없어졌다. 아기 오리들에게는 다행한 일이었다. 노라가 오리 깃털에 헤어 드라이어로 바람을 쐬어 주자고 제안했다. 우리는 이내 앞다투어 집으로 뛰어들어 갔다. 두 동생이 내 분홍색 드라이어로 그 불쌍한 새들에게

오리가 물에 뜨지 못할 때

우리는 단순히 아기 오리들이 물에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다.

웬디 워스 테일러





바람을 쐬어 주는 동안 나는
골판지 상자 위에 적힌 이름과
전화번호를 보았다.

“저, 여보세요? 방금 거기서
오리를 산 사람인데요. 정확히
말하면, 저희 아빠가 막
사오셨어요. 아기 오리 세 마리
말이에요. 예, 맞아요. 그런데,
오리한테 문제가 좀 있어요.
우린 오리가 물에 떴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 아저씨의 말을
듣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 말을 노라와 수지에게
설명하면서 나는 매우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다. “있잖아,

아기 오리처럼 부드러운

깃털만 있으면 물에 뜨지 못한다. 물에
젖어버려서 말이야. 앞으로 일주일이나
이 주일 정도 지나면 몸에서 밀랍 기름이
만들어지는데, 그러면 물이 새지 않는
깃털이 될 거래.”

“저것말! 강에서 아기 오리가 엄마
오리랑 같이 가는 걸 내가 봤어. 정말



“부모님께 진정한
사랑을 보이는
방법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부모님은
여러분을 결코
잘못 인도하지 않을
 것이기에 그분들께
순종하고 그분들의
가르침에 따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존경심으로 부모님을
대할 수 있습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모범이 되십시오,”
리아호나, 2005년 5월호,
112쪽.

태어난 지 며칠 안 된 아기
오리였다 말이야.” 하고 노라가
반론을 제기했다.

“오리를 파는 아저씨가
그렇게 설명해 주셨어. 오리가
태어나면 엄마가 날개로
아기들을 감싸서 따뜻하게 해
준다. 그때 엄마 날개에 있는
기름이 아기들에게 묻어서
엄마와 함께 아기들도 물에
떠 있을 수 있는 거래. 하지만
스스로 물 속에 안전하게 떠
있으려면 좀 더 자라야 한대.”

그때 나는 산 속 어딘가
텐트 안에 있을 친구들이
떠올랐다. 아마도 엄마는 좀
더 오랫동안 나를 엄마의
날개 속에 품어 두고 싶으신

모양이다. 나는 손가락으로 내 아기 오리의
작은 등을 쓰다듬었다.

“당분간은 너를 물 밖에 둘게, 말이야.”
나는 내 오리에게 약속했다. 그러다가 다시
생각해 보고는 이렇게 물었다. “엄마가
보고 싶니?” ■



“연습은 시험이 아니에요. 영망으로 치더라도

괜찮아요. 배우는 과정이니깐요. 자신감을 갖고, 계속 믿음을 가지세요.”

안드레아 시, 11세



“저는 학교 가기 전에 연습하고 다녀와서도 연습해요. 잘 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연습하세요. 피아노를 연주하는 것은 대단한 경험이에요. 여러분은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요.” 에릭 브이, 10세

연습하는 좋은 방법

젠 핀보로우
교회 잡지

초등학교

“말도 안 돼요!”

“농담이겠죠!”
“그럴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유타 주 프로보에 사는 안드레아, 에릭, 크리스토퍼, 수쥬, 유리아는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들에게 다음 번 초등학교 성찬식 발표 때 피아노 반주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면 말입니다. 아무튼 피아노를 쳐 본 적이 있는 사람은 그들 중 딱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초등학교 반주자인 페리 자매님은

그들에게 이 목표를 주었고, 그들은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이미 개인 교사에게 피아노를 배우고 있는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들 일주일에 한 번씩 페리 자매님에게서 피아노 교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집에서는 전자 피아노로 연습을 했습니다. 그들은 성찬식 모임 발표에 사용할 노래들을 연주하기 쉽게 편곡한 곡으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초등학교에서 다른 어린이들이 함께 노래를 부를 때도 연습을 했습니다.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각자 한두 곡씩 반주를 했습니다. 모든 워드 회원들 앞에서 반주하면서 떨리지 않았을까요? 물론 떨렸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엄청 떨렸어요. 하지만 계속 신앙을 행사했어요.” 크리스토퍼가 말했습니다.

이들의 신앙과 노력 덕분에 그날 모든 어린이는 훌륭하게 발표를 해냈습니다. 이들에게 가장 좋았던 점은 무엇이었을까요?

“교회에서 도울 수 있어서 기분이 좋아요. 저에게는 큰 축복이에요.” 안드레아가 말했습니다.

이제 이 아이들은 가정의 밤, 침례식, 그리고 자신의 가족이 성찬식 모임에서 노래를 부를 때도 반주를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멋진 일입니다! ■

“가장 좋아하는 노래를 먼저 연주하세요.

저는 방과 후에 한 시간 연습하고 저녁식사 후에도 연습해요.” 크리스토퍼 피, 8세



“처음에는 천천히 치세요. 익숙해지면 더 빠르게 칠 수 있어요.” 유리디아 엠, 11세

“손가락 모양을 둥글게 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잘 안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노력하세요!” 수젯 엠, 10세

반주자

여러분도 배울 수 있어요!

이 어린이들은 건반 악기 과정이라고 불리는 교재로 연주법을 배웠습니다. 온라인에서도 이 교재를 읽거나 인터넷 www.lids.org/churchmusic(스페인어, 영어, 포르투갈어, 프랑스어)에서 인쇄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 Learning Materials, Accompanying Others 및 Keyboard Course Book and Audio를 클릭하면 됩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부모님의 허락과 ldscatalog.com의 도움을 받아 주문할 수 있습니다.

이 어린이들이 사용한 것과 같은 건반 악기는 교회 배부 센터에서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아노 선생님이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의 초등학교 회장님이나 감독님 또는 지부 회장님은 여러분이 연주법을 배우도록 누가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알 것입니다. 결심만 하면 방법은 찾을 수 있습니다. 음악의 은사로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할 때 얼마나 행복할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은 이번 호 62쪽에 나오는 “날 따르라”라는 노래부터 배워볼 수 있습니다. 이 노래는 여러분의 초등학교가 올해 성찬식 발표에서 부를 노래 중 하나입니다.

특별한 교사

이 아이들의 교사인 제니스 캡 페리 자매는 작곡가입니다. 그녀는 어린이 노래책에 나오는 “나 성전 보고 싶어” 등 여러 곡을 썼습니다. 페리 자매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들은 음악의 미래이지요.”



날 따르라

쉬운 편곡

겸손하게

♩ = 69-76

1. 날 따르라 주 말씀 하니

주 발자취 따라가세

하나님 사랑하시네

독생자와 하나 되리

2. 날 따르라 간단한 말씀
숭고한 빛 진리 비쳐
마음을 감동케 하고
선행하라 권고하네

3. 현세에서만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 하나
더 거룩한 천국서도
주님을 따라 가리라

4. 이 세상 오는 세상도
주 따르기 힘쓰는 자
우리의 주님과 함께
천국 상속 받으리라

5. 우리 갈 곳 어디든지
우리 앞길 트일때면
끊임 없이 주님따라
전진하며 걸어가세

6. 날 따르라 주님 말씀
영원토록 순종하면
보좌 왕국 권능 축복
힘 영광 다 내 것일세

작사: John Nicholson, 1839~1909

작곡: Samuel McBurney, 1847~1909

이 찬송가는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교회나 가정에서 임시로 사용하기 위해 복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19

니파이후서 3:10~21



우리들 이야기

우 리들 이야기에 그림, 사진, 경험, 간증 또는 편지를 보내고 싶다면

liahona@ldschurch.org로 이메일을 보내 주세요. 이메일을 보낼 때에는 제목란에 "Our Page"라고 써 주세요. 우편물로 보낼 때에는 다음 주소로 보내 주세요.

Liahona, Our Page

50 E. North Temple St., Rm. 2420

Salt Lake City, UT 84150-0024, USA

원고를 보낼 때는 반드시 어린이의 이름과 나이, 부모님 이름, 소속 와드나 지부, 스테이크나 지방부 명칭을 써 주세요. 어린이의 사진과 원고를 사용해도 좋다는 부모님의 서면 동의서(이메일도 가능)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제출물은 분량을 조절하거나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편집될 수 있습니다.



저는 때때로 교회에 대해 어떤 점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끼거나 특정한 부분에 대한 신앙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느낍니다. 이런 느낌이 들 때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거의 항상 응답을 받습니다. 온 몸이 따뜻해지고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를 매우 사랑하신다는 진실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러한 경험들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간증과 사랑이 더욱 커집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 각자를 아주 많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분은 우리의 문제에 대해 들으시고 성신을 보내어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저는 그분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의로울 때 기뻐하신다는 점을 압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제가 이 교회 회원이라는 사실을 알기에 기쁨으로 차고 넘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아들이며 우리의 구주임을 압니다.

데베네이 알, 11세, 스위스



비에트 민 트리 피, 10세, 캄보디아

카를로스 디, 8세, 브라질



덴마크에 사는 일곱 살 난 다니엘 케이는 행복하고 씩씩한 소년입니다. 다니엘은 정원 가꾸는 일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음식 만드는 일도 좋아하는데, 특히 피자 반죽 미는 일을 재미있어 합니다. 다니엘은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축구와 수영, 그리고 나무타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스카우트 활동에서 모닥불을 피울 때면 무척 즐거워하며 일을 돕습니다. 교회에서는 조셉 스미스와 예수님 이야기를 매우 좋아하고 "의의 일 선택하여 생활하라"라는 찬송가 부르는 것을 좋아합니다.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

구주의 어린 양을 먹이도록 도움



구주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리신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의 제자들은 갈릴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새벽녘에 해변 가까이로 다가갔을 때, 그들은 처음에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물을 던질 곳을 알려 주셨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자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 찼습니다. 제자들은 해변에 계신 주님을 맞으러 달려갔습니다. 제자들은 숯불 위에서 생선과 떡이 구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제자들에게 계명 하나를 주셨는데, 우리도 역시 그 계명을 따라야 합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요한복음 21:15)

하나님의 성도들은 항상 서로를, 특별히 복음 안에서 연약한 자들을 영적으로 **살찌우겠다**는 성약을 맺어 왔습니다.

어린이라도 다른 사람의 신앙을 살찌우는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최근에

개종한 사람에게 함께 모임에 참석하자고 권유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예배실이나 공과실에 들어오는 새로운 회원을 웃음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성신은 우리의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은 신앙을 강화시키거나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살찌우고 강화시키는 말을 하기 위해 영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순종함으로써 주님께서 어린 양들, 즉 그분의 어린 양들을 그들의 아버지이자 우리 아버지의 집으로 품에 안아 데려오시는 일을 도울 수 있습니다.

저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압니다. 저는 그분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또한 그분은 이 사업, 즉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는 그분의 사업에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점을 압니다. ■

1997년 10월 연차 대회 말씀에서 발췌함

어린 양 보살피기

어린 양은 약해서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습니다. 이들이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사진에서 어린 양에게 필요한 것들을 한번 보세요.

여기에서 **살찌운다**는 것은 먹을 것을 준다는 뜻입니다.



늑대와 다른 위험에서 보호됨

안전하게 잠을 잘 수 있는 장소



음식



물

누가 구주의 어린 양일까요?

구주께서는 제자들에게 복음 안에서 강하지 못하거나 교회에 새로 들어온 회원들을 특별히 보살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사람들을 “어린 양”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들은 복음 안에서 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다음 그림에는 어린이들이 구주의 어린 양들을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이 나옵니다. 그림들을 색칠한 다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나 그려 보세요.



새로운 반 친구에게 인사한다



친구 한 명을 초등학교에 초대한다



리아호나를 나눈다

예수 그리스도는 조셉 스미스를 통해 충만한 복음을 회복하셨습니다

샌드라 태너, 크리스티나 프렌코

말

고 깨끗한 물이 가득한 유리잔을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그 유리잔에 부딪친다면 물이 조금 옆질러지고, 유리잔은 가득 차지 못한 상태가 될 것입니다.

태초에 지상에는 충만한 복음이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선지자들은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지상에 계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분은 충만한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회개, 침수로써의 침례, 성신의 은사, 계명에 대한 순종을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모두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복음이라는 유리잔은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복음 중에서 일부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사악한 사람들이 복음을 변경하거나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충만한 복음은 더 이상 지상에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에게 충만한 복음을 다시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은 조셉 스미스를 부르셔서 충만한 복음을 회복하는 일을 돕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분의 아들과 복음을 주셨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그분께 돌아가는 방법을 알도록 선지자들을 부르시고, 모든 사람에게 그분의 복음을 가르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는 충만한 복음이 있으며, 우리는 그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복음의 잔은 맨 위까지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복음이 지상에서 다시 거두어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2010년 4월 경전 일지

값진 진주에서 신앙개조 제6조를 읽습니다. 이 신앙개조를 암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조셉 스미스를 통해 충만한 복음을 회복하셨는지 알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다음 활동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여러분이 직접 활동 아이디어를 생각해 봅시다.

- 다른 사람이 이 신앙개조를 배우도록 도와줍니다.
- 값진 진주에 나오는 조셉 스미스 역사를 읽거나 다른 사람에게 읽어 달라고 합니다.
- 67쪽에 나오는 이야기 바퀴를 만듭니다. 바퀴 두 개를 오려 내어 할핀(고정핀)으로 고정시킵니다. 이 바퀴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조셉 스미스를 통해 충만한 복음을 회복시키신 이야기를 가르칩니다.
- 우리 선교사들은 전 세계에서 회복된 복음 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누구에게 선교사의 메시지를 듣도록 권유할 수 있을지 알기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한 일은 신앙개조 제6조를 이해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나요?

여러분이 한 일을 일지에 적거나 그림으로 그려 봅시다. ■



예수 그리스도는
조셉 스미스를 통해
충만한 복음을
회복하셨습니다



원작: 첫번째 시편 개리 멜렌, 복서 글자: 오른쪽 위 삽화: © VMD DETAILS:
오른쪽 아래: 몰모강을 방문하는 조셉 스미스, 멜 페슨, © R: 기타 삽화: 로버트 티 배렛

웨딩 드레스와 계획

제인 맥브라이드 초아트
“결혼은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것이니”(교리와 성약 49:15)

실화에 근거

카린 언니가 성전에 가려고 가방을 꾸리는 동안 로리는 언니의 침대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카린 언니가 결혼하는 날입니다.

로리는 저녁에 하는 결혼 피로연에 갈 생각으로 마음이 한껏 부풀어 올랐지만 한편으로는 슬펐습니다. 선교사로 봉사했던 오빠는 카린 언니와 함께 성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로리의 부모님도 들어갈 수 있지만, 로리와 두 남동생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언니랑 같이 성전에 들어가고 싶어.” 로리가 말했습니다.

카린은 가방을 싸다가 시선을 위로 향했습니다. “나도 그래, 하지만 로리, 밖에 있어도 괜찮을 거야. 그리고 언젠가 네가 결혼할 때면 너랑 같이 성전에 갈게.”

그러자 로리는 더 이상 슬프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언니는 매트 오빠와 결혼하고 싶다는 마음을 어떻게 알게 되었어?” 로리가 물었습니다.

카린이 로리 옆에 앉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 계획을 세우셨다는 사실을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어. 매트를 만났을 때 그와 함께라면 그 계획을 이룰 수 있겠다고 느꼈지.”





“매 일 계명대로 생활하고, 침례 성약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성전에 가기 위해 준비하는 것입니다.”

비키 에프 마쭈모리, 본부 초등학교 제2보좌, “A Place of Love and Beauty,” Friend, 2002년 1월호, 30쪽.



“그럼 그 계획은 다 이루었어?”
로리가 물었습니다.

카린은 아니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매트와 나는 아이도 낳아야 하고, 교육도 받아야 하고, 할 일이 많아.”

로리는 카린의 벽장 문에 걸려 있는 아름다운 하얀색 웨딩 드레스를 바라보았습니다. “언니, 드레스 참 예쁘다.”
로리가 말했습니다.

카린은 방긋 웃었습니다. “이것도 계획의 일부야.” 카린이 말했습니다. “난 언제나 성전에서 결혼하고 싶었거든. 그러려면 웨딩 드레스도 단정한 것이어야 해.”

몇 시간 후에 로리는 카린과 매트가 성전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서 빛이 났습니다.

로리는 카린 언니에게 달려가 언니를 안았습니다. 몇 주가 지난 후, 로리는 우편으로 사진 한 장을 받았습니다. 카린과 매트가 성전 앞에 서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위에는 카린이 쓴 글도 보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너를 위한 계획도 세우셨어.”

로리는 사진을 서랍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로리는 언니의 얼굴에서 보았던 빛을 자신도 낼 수 있도록 언젠가는 꼭 성전에 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



“나의 양을 먹이라”

제니퍼 홀트

“나를 따르며, 나의 양을 먹이라”(교리와 성약 112:14)

실화에 근거

1

“엄마, 예수님께 양 떼가 있었나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분의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단다. 그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이었어.”

“그게 아니란다, 애야. 예수님은 때때로 선한 목자로 불리시지. 우리가 바로 그분의 양이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곧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라는 점을 베드로에게 가르치신 거야.”



“그래서 우리가 가정의 밤을 마치면 제이콥스 자매님에게 파이를 갖다 드리는 건가요?”

“그렇지. 하지만 네가 제이콥스 자매님에게 사랑을 보여드리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직접 생각해 보면 좋겠구나.”

올리비아는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자 엄마와 할머니가 자신이 그린 그림을 아주 좋아하신다는 게 생각났습니다.

2



“알겠어요! 제이콥스 자매님을 위해 카드를 만들고 그 위에 그림을 그릴 거예요.”

3



4

올리비아는 예쁜 무지개를 그리고 카드 안쪽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빨리 나오세요! 사랑해요, 올리비아 올림.”

빨리
나오세요!
사랑해요,
올리비아 올림

올리비아는 가족과 함께 제이콥스 자매님 집으로 갔습니다. 엄마는 제이콥스 자매님에게 건강은 어떠신지 물었습니다. 제이콥스 자매님은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내일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걸 방금 알게 됐어요. 조금 겁이 나요.”

5

엄마는 제이콥스 자매님에게 파이를 건네드렸습니다. 그리고 올리비아는 직접 만든 카드를 드렸습니다.

“고맙구나, 올리비아. 이렇게 예쁜 카드랑 네 웃는 모습을 보니 한결 기분이 좋아지는구나.”

6

올리비아는 누군가가 자신을 안아 주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분의 양을 먹이시는 것을 도와드릴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

7

부모를 위한 제언

자 녀들에게 행복하게 해 주고 싶은 누군가를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자녀들이 카드를 만들어 그 사람에게 전달하는 일을 도와 줍니다.

양 찾기

채드 이 퍼레스

교회 잡지

예 수님께서서는 우리가 “그분의 양을 먹임”(요한복음 21:15~17 참조)으로써 그분에 대한 사랑을 보일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도움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림에 나오는 아이들은 이웃집의 정원에서 잡초를 뽑아 줌으로써 예수님의 양을 먹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봉사할 사람들을 찾아야 합니다.

이 그림에 숨어 있는 양 열 마리를 찾아 동그라미를 치세요.



부모를 위한 제언

자 녀들과 함께 요한복음 21장 14~17절을 읽는 것을 고려해 본다. 그들에게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양인지 물어본다.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를 바라신다고 설명한다. 다른 사람에게서 도움을 받은 경험을 이야기해 준다.

어린이들의 그림 전시회

크 레용이나 물감을 꺼내 그림 그릴 준비를 해보세요! 2011년에 전 세계 초등학생 어린이들이 그린 그림을 교회 역사 박물관과 온라인 미술 발표회에 전시할 계획입니다. 참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복음은 나의 삶을 축복해 줍니다.”라는 주제로 작품을 만드세요. 가족, 성전, 선교 사업, 선지자, 경전, 자연, 봉사, 개척자, 초등회, 교회 활동 등에 관한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2. 참여 대상은 5~12세로, 각자 한 작품만

응모할 수 있습니다.

3. 그림은 평평한 종이나 직물 위에 그려야 합니다. 가로는 30센티미터, 세로는 36센티미터 이하여야 하고, 액자에 끼우지 말아야 합니다.
4. 크레용, 연필, 매직펜, 잉크, 목탄, 아크릴, 수채물감, 파스텔, 유화물감 등 평면으로 작업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시간을 갖고 정말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 주세요. 그림을 그릴 때에는 종이에 색칠 안된 부분이 거의 없도록 최대한 채워야 합니다.
6. 그림 뒤에는 이름을 적으세요. 부모님이 아래 양식을 작성하고

서명하게 하세요. 그런 후 이 양식을 테이프로 그림 뒤에 붙이세요.

7. 출품작은 2010년 7월 31일 또는 그 이전 우편 소인이 찍혀야 합니다. 작품은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출품작은 201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교회 역사 박물관 전시회, *Friend* 및 *리아호나* 웹사이트의 온라인 미술 발표회, *리아호나* 우리들 이야기 또는 *Friend Our Creative Friends*에서 전시될 수 있습니다. 모든 출품작이 사용되거나 전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작품을 다음 주소로 보내 주세요.

Children's Art Exhibit

45 N. West Temple St.

Salt Lake City, UT 84150, USA

다음 사항과 동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어린이의 이름

나이

시/도, 국가

부모님의 이메일 주소 또는 전화번호

저는 이 작품이 전시회, 교회 웹사이트, 교회 잡지에서 다루어지고 일반에 공개되는 것을 허락합니다.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의 서명

9주년 맞은 영구 교육 기금, 계속해서 번창

라이언 쿤즈

교회 잡지

영 아 때에 소아마비에 걸린 타이슨 케미지는 케냐 나이로비에서 고아로 자라났다. 한 번도 매트리스 위에서 자 본 적이 없고 하루에 두 끼도 먹기 힘들었던 그는 목발에만 의지해서 걸어 다녔다.

타이슨은 케냐 오거스타나 대학에서 정보 기술학을 공부하기로 결심했지만 가족도 돈도 없는 그에게 미래는 암울해 보이기만 했다.

고등학교를 마치고 몇 년 후에 교회에 가입한 케미지 형제는 부부 선교사를 만나 자신의 소망을 얘기했다. 부부 선교사는 타이슨에게 영구 교육 기금 위원회를 소개했고, 기금의 도움으로 학교에서 입학 허가를 받았다.

케미지 형제는 선교사들에게 “전 최고의 행운아예요.” 하고 자주 얘기했다.

케미지 형제는 오거스타나 대학교 총학생회장으로 봉사했으며 자신의 와드에서 두 가지 부름에서 봉사하고 있다.

고든 비 힝클리(1910~2008) 회장이 처음으로 영구 교육 기금을 발표하고 9년이 지난 지금, 42개국에서 3만 8천 명 이상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전세계에 불어 닥친 경제 불황에도 불구하고 영구 교육 기금은 건실하게 운영 되고 있으며 타이슨 케미지와 같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가난에서 벗어나 자신의 지역 사회에 헌신하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학업을 완수한 영구 교육 기금 참여자들의 87퍼센트 이상이 현재 취업해 있다.

어려움을 극복함

프로그램을 감독하는 사람들은 경기 침체 여파에 위협을 받지는 않지만 몇 가지 극복해야 할 과제들이 있다고 말한다.

프로그램이 직면한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는 참여자들의 수가 늘 어 나 고 있 다 는 것이다.

칠십인 명에 회원이자 기금 집행 책임자인 존 케이 카먹 장로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직면하고

극복해 온 장애들은 빠른

성장과 국제적 노력에 따라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장애 중에는 기금 홍보, 자격 요건 및 수혜 가능성 광고 및 참여자 지원 문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교회 본부에서 직원 몇 명과 부부 선교사들, 지역 자원 봉사자들로 구성된 비교적 소규모인 관리 그룹이 운영하며, 명예 총관리 역원인 카먹 장로와 리차드 이 쿡 장로가 감독한다.

프로그램을 광범위하게 운영하기 위해 영구 교육 기금 직원들과 선교사들은 지역 회장단과 협력하여 지역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며, 지역 회장단은 지역 지도자들과 협력하여 지역 교사들과 역원, 자원 봉사자들과 참여자들을 훈련하고 지원한다.



자격을 갖춘 회원들은



프로그램 훈련 및 연락 책임자인 렉스 앨런 형제는 이렇게 말한다. “이 프로그램은 과거에도, 지금도 대단히 혁신적입니다. 이것은 모든 측면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상호 소통과 훈련이 필수적입니다.”

프로그램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프로그램은 수십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기금에 돈을 기부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기부금 전액이 참여자들을 지원하는 데 쓰인다.

참여자들은 수속을 위해 자신이 등록된 종교 교육원을 통해 준비 단계를 밟고, 인터넷 용자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후기 성도 취업 센터의 도움을 받아 “성공을 위한 계획” 과정과 진로 워크숍을 이수한다.

일단 용자가 승인되면, 참여자들은 다른 사람들도 기금의 혜택을 받도록 자신이 용자 받은 부분을 갚겠다는 이해를 가지고 교육을 받는다. 참여자들의 연간 상환액은 총 2백 5십만 달러(약 30억 원)가 넘는다.

카멕 장로는 회원들이 재정적으로 훌륭하게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위대한 지도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영구 교육 기금의 아버지는 고든 비 힝클리 회장님이시지만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의 지지와 관심도 힝클리 회장님만큼이나 큼니다. 몬슨 회장님은 시작 때부터 전 과정을 지켜봐 오셨고 오늘날에는 선지자의 통찰력으로 이 프로그램을 인도하십니다.”

영구 교육
기금이란
열매를 취하고



다른 사람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둘러줌으로써 축복을
받을 수 있다.

결과

힝클리 회장은 2001년 4월에 이 프로그램을 발표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훌륭한 기술을 습득한 젊은이들은 대를 이어 물려받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가족을 더 잘 부양할 수 있게 됩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지도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용자 금액을 상환할 수 있으며 그것으로 다른 사람도 같은 축복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영구 교육 기금”, *리아호나*, 2001년 7월호, 62쪽; *Ensign*, 2001년 5월호, 51쪽)

이 프로그램의 지도자들은 힝클리 회장의 말이 성취되는 모습을 계속해서 목격하고 있다. 현재 영구 교육 기금이 승인된 몇몇 나라 교회 지도자 중 10~15퍼센트가 예전에 그 기금을 받은 사람들이다.

힝클리 회장은 이렇게 덧붙였다. “이것은 허망한 꿈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자원이 있습니다. 관대한 친구들과 조직도 있습니다. 필요한 인력과 이 일을 성공시킬 헌신적인 주님의 종들도 있습니다. 모두 자원 봉사를 하기 때문에 교회는 전혀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노력을 번성케 하시고, 영구 이민 기금이 그 기회를 선용한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말할 수 없는 축복을 가져다 준 것처럼, 이 새로운 기회를 이용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머리 위에 놀랍고 풍성한 축복을 부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앨런 형제의 말처럼 “위대한 선의와 큰 신앙을 통해” 가능하게 된 이 프로그램은 9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

새로운 상호부조회 지침서, 회원들을 축복하다

6개 월 전,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인 줄리 비
백 자매가 본부 상호부조회 모임에서
새로운 상호부조회 지침을 발표했다.

그 내용을 담은 지침서는 이후, 전 세계 자매들의 삶에
축복을 가져왔다.

백 자매는 전세계 회원들이 교회에서 어느 한 문화나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더 융통성 있게 자신의 필요
사항에 따라 모임을 계획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새로운 지침서에 대한 반응이 대부분 호의적이라고
말했다.

“이것은 세계적인 조직을 위한 매우 긍정적인
조치입니다. 우리는 자매들을 사랑하고 신뢰합니다.
자매들이 신앙과 순종으로 이 지침서를 다룬다면 그에
따른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하고 백 자매는 말했다.

“상호부조회: 성스러운 사업”(리아호나, 2009년 11월호,
110쪽)이란 제목으로 백 자매의 말씀은 모임에 관한
공식적인 정책으로 활용되어야 하며, 방침에 관한 질문이
있는 상호부조회 지도자들은 신권 지도자들과 협의해야
한다.

일반적인 변화

상호부조회 보좌들은 신권의 방식에 따라 제1보좌,
제2보좌로 불려야 한다고 확실하게 명시되어 있다. 이전에
가정, 가족 및 개인 강화 지도자라고 알려졌던 부름은
상호부조회 모임 코오디네이터로 불려야 하며, 이 부름을
받은 자매는 계속해서 회장단의 지시 아래 주중에 열리는
상호부조회 모임을 준비해야 한다.

상호부조회 모임 지침서

백 자매는 말씀을 전하면서 이전에 “가정, 가족 및
개인 강화”라고 불린 모임이 이제는 어떻게 상호부조회
모임이라는 짧은 이름으로 일컬어지게 되었는지 설명했다.

백 자매는 와드 상호부조회 회장이 어떻게 모든
상호부조회 모임을 감독하며, 모든 모임 계획을 승인하는
감독이나 지부 회장과 협의해야 하는지 설명했다.

상호부조회 회장이 모임을 감독해야 하지만 제1보좌나
제2보좌에게 부탁할 수 있으며, 와드의 한 자매가 그
모임의 코디네이터로 부름 받도록 추천할 수 있다. 그리고

모임들은 신앙과 의로움을 키우고 개인과
가족의 영적 및 현세적인 필요 사항을 돌보면서
상호부조회의 “자비롭고 실질적인 책임”을 달성해야
한다.

회장단 중에 적어도 한 명은 각 모임에 참석해야 한다.

모임은 보통 월별로 열려야 하지만 최소한 분기에
한 번, 일요일이나 월요일 저녁을 피해서 열려야 한다.
감독이나 지부 회장, 그리고 상호부조회 회장이 모임의
빈도를 결정하며, 자매들이 이 모든 모임에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한다는 느낌을 받게 해서는 안 된다.

모임을 계획하면서 상호부조회 회장단은 소요 시간,
비용, 안전, 여행 거리와 같은 문제들을 고려해야 한다.

모임은 신앙과 의로움을 키우고 개인과 가족의
영적 및 현세적인 필요 사항을 돌보면서 상호부조회의
“자비롭고 실질적인 책임”을 달성해야 한다.

계획 모임에서 상호부조회 회장단은 상호부조회
목적을 달성하는 주제에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

모임은 한 가지 주제에 초점을 맞추거나 하나 이상의 수업이나 활동으로 나눌 수 있다. 교사들은 일반적으로 와드나 스테이크 회원이어야 한다.

백 자매는 이렇게 말했다. “상호부조회 모임을 적절히

이용하면 상호부조회의 능력이 향상됩니다. 그러면 모든 와드의 상호부조회는 신권 지도자들과 함께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게 될 것입니다.” ■

구독자들, 개정된 성전 소책자를 받게 되다

리 아호나 및 엔사인 구독자들은 2010년 10월 정규호 대신 개정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성전 소책자를 받게 된다.

이 소책자는 50년 넘게 출간되어 온 출판물의 개정판으로, 1955년에 *Improvement Era*라는 교회 잡지의 한 간행물로 시작되었다. 이후 이것은 개별적인 소책자로 여덟 차례 개정되었다. 최신 개정판은 새로운 기사와 사진들을 싣고 45개 언어로 발행될 계획이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을 비롯한 후기 선지자들은 회원들이 자신을 위한 성전 의식을 받고, 그 후에는 조상들을 위한 성전 사업을 하기 위해 성전에 올 것을 지속적으로 권유해 왔다.

이 소책자는 성전 예배의 교리와 원리를 가르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교회 회원들은 부모가 가정의 밤, 혹은 다른 상황에서 가족에게 성전에 대해 가르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소책자를 적어도 한 권 이상 가정에 비치할 것을 권유 받는다.

이 소책자에는 각 연령층에 해당되는 내용이 들어 있다. 개정된 소책자에 새로 들어갈 기사에는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이 “성전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전하는 말씀과 십이사도 정원회 러셀 엠 넬슨 장로의 “성전의 축복을 받도록 준비하십시오” 기사가 있으며, 또한 청소년을 위한 기사인 “성전을 생활의 일부분으로 만듭”과 어린이들이 성전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성전을 향한 발걸음” 기사가 있다. 또한 모든 독자들은 전세계



사진 촬영: © 1996 STEVE TREGGAGE

성전 사진들을 보는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으며, 처음으로 성전에 갈 준비를 하는 회원들을 위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도 실려 있다.

회원들은 다른 종교를 가진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이 소책자를 나누도록 권유 받는다. 추가 구입을 하려면 교회 배부 센터와 인터넷 LDScatalog.com을 이용한다.

스테이크 회장, 감독 및 성전 준비반 교사는 높은 곳에서 주어짐 교사 교재와 소책자 및 기록한 성전에

**10월에
구독자들은
개정된 성전
소책자를 받게
된다.**

들어가기 위해 준비함과 함께 보충 자료로 이 자료들을 사용할 수 있다.

적절하다면, 신권 지도자는 이미 엔다우먼트를 받은 회원들에게 자신의 성전 경험을 기억하도록 도울 목적으로 소책자를 줄 수 있다. 또한 성전에서 인봉 받을 준비를 하면서 교회 활동으로 돌아오고 있는 사람들을 돕는 데에도 이 소책자가 유용할 것이다.

칠십인인 요시히꼬 기꾸찌 장로는 이렇게 말했다. “이 소책자는 모든 회원들에게 훌륭한 자원이 됩니다. 이것은 기록한 성전 경험과 관련된 성약과 축복 및 조상들을 찾는 가족 역사 사업을 행하고 성전 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조상을 위해 필수적인 성전 의식들을 해야 할 회원들의 개인적인 책임을 일깨워주는 도우미가 됩니다.” ■

리아호나가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리 아호나 잡지부에서는 다음 호에 제안된 기사 및 특집 기사에 대한 의견을 주실 모든 연령층의 회원을 찾습니다. 본 리아호나 평가 위원회에 자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인터넷에 접속하고 영어로 대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원하실 분은 “Evaluation Committee”란 제목으로 liahona@ldschurch.org로 이메일을 보내 주십시오. 여러분에게 주기적으로 질문지가 발송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리아호나가 전 세계 독자들의 필요 사항에 더욱 잘 부합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세계 단신

새로운 유럽 동 지역 회장단 발표

제일회장단은 곧바로 시행되는 유럽 동 지역 회장단의 변경 사항을 발표했다. 지역 회장단 제1보좌였던 케빈 더블류 피어슨 장로가 선교사 부에서 특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교회 본부로 옮겨졌고, 지역 회장인 볼프강 에이치 폴 장로는 제1보좌인 칠십인 그레고리 에이 슈바이처 장로와 제2보좌인 지역 칠십인 알렉산더 엔 맨조스 장로와 함께 계속 봉사하게 된다.

펜실베이니아 필라델피아 성전 부지 선정

2009년 11월, 제일회장단은 펜실베이니아 필라델피아 성전이 필라델피아 시내에 위치한 바인 스트리트 1739번지에 세워질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부지는 바인 스트리트 고속도로에 인접해 있으며, 근처에는 법원 건물이 있고, 거리를 가로지른 대각선 방향으로 필라델피아의 명소인 로건 광장이 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2008년 10월에 이 성전 건축을 발표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운영 중인 성전은 130개이며, 발표되었거나 건축 중인 성전은 21개이다.

밴쿠버 성전 일반 공개 날짜 발표

브리티시 컬럼비아 밴쿠버 성전 일반 공개가 2010년, 일요일을 제외한 4월 9일에서 4월 24일까지 열리며, 문화제는 5월 1일에 열린다. 헌납식은 5월 2일, 일요일 오전 9시와 12시, 그리고 오후 3시, 이렇게 세 차례 열린다. 세 번에 걸친 헌납식 모임은 성전 지역 내의 모든 교회 단위에 방송되며,



성전 의식은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시작된다. ■

애독자 편지

새로운 리아호나

2010년 1월부터 새로운 리아호나를 받게 된다는 글을 읽었을 때 저는 향수에 잠겼습니다. 열일곱 살에 침례 받은 이후로 리아호나는 늘 제 복음의 닻이었습니다. 다른 회원들의 경험을 읽고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 제 연약한 간증이 강화되었습니다. 제가 모아온 리아호나는 힘들고 궁핍한 시기에 저를 도운 영감에 찬 메시지가 담긴 저의 보물입니다.

새로운 리아호나는 더 성숙해지고 다양해졌지만 1992년에 제가 처음 읽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참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줄리아 에이 플로리언, 과테말라

영성과 힘의 근원

리아호나는 제게 위대한 축복이며 기쁨입니다. 리아호나는 제게 전세계 회원들을 만나고 그들의 나라와 문화를 알려 그들의 신앙으로부터 유익을 얻게 해주었습니다. 리아호나는 크나큰 영성과 힘의 근원이며 제가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돕습니다.

모테스타 줄리아니, 이탈리아

우리 와드의 기적

저희 와드에서는 방문 교육이 거의 안되고 있었고 성전 참석률도 저조했습니다. 방문 교육 지도자 및 성전 봉사자로서 저는 변화가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저는 성찬식과 상호부조회 말씀에서 리처드 지 스코트 장로님의 대회 말씀, “성전 예배: 어렵고 힘든 시기에 힘과 권능의 근원이 됨”(리아호나, 2009년 5월호, 43쪽)을 활용했습니다. 와드 회원들은 감화되었고, 지금은 방문 교육이 거의 100퍼센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회원들이 성전에 참여하면서 스코트 장로님이 말씀에서 요약해 주신 단계들을 밟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가르침을 주신 스코트 장로님과 리아호나를 보내주신 여러분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안나 메자 드 유로지오, 페루

의견이나 제안을 liahona@ldschurch.org로 보내 주십시오. 명확하게 표현하거나 분량을 조절하기 위해 내용을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의 밤을 위한 제언

이번 호에는 가정의 밤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기사와 활동들이 실려 있다. 다음은 그 몇 가지 예들이다.

“수준 높은 삶을 사는 사람이 됩시다”, 45쪽: 몇 가지 물건(예: 연필, 물문경, 리아호나, 신발 한 켤레)을 보여주고 가장 가치 있는 것에서 가장 가치 없는 것까지 순위를 매기게 한다. 어떻게 순위를 매겼는지 토론한다. 어떤 성품이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가? 더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되기 위해 다음 주 동안 뭔가 구체적인 일을 하도록 가족들에게 권유한다.



“이른 일요일 아침”, 56쪽: 각자 방문하거나 봉사할 이웃에 대해 생각해보게 한다. 이 주에 그 사람을 위해 할 일을 계획한다. 모사이아서 18장 7~10절을 읽고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어떻게 침례 성약을 지키는 한 방법이 되는지 토론한다.

“우리가 물에 뜨지 못할 때”, 58쪽: 가족 규칙들을 몇 가지 적고 그 규칙들이 어떻게 여러분의 가족을 보호하는지 토론한다.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몇 가지 적고 그 계명들이 어떻게 우리를 신체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보호하는지 토론한다.

행복한 가정의 밤

몇 년 전에 남편은 가족에게 특별한 가정의 밤을 준비하라고 했다. 네 살짜리 우리 딸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자고 했고 열 살짜리 아들은 개회 기도를 했다. 우리는 강하고 놀라운 영의 임재하심을 느꼈다.

교회 지도자들의 몇 가지 말씀을 전한 남편은 우리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계속해서 단합하기를 권유한 다음, 우리 어린 딸에게 가장의 축복을 주었다. 친정 어머니와 나도 축복을 받았고 마지막으로 우리 아들이 축복을 받았다. 아들의 머리에 손을 얹기 전에 남편은 신권에 대해 얼마나 감사해 하는지 말했고 아들에게 이 권세에 합당하게 되라고 권고했다.

근 일년 반이 지난 뒤, 딸은 이렇게 말했다. “그 때 했던 것과 같은 가정의 밤을 해요.” 딸의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지만 나는 어떤 가정의 밤을 말하느냐고 물어보았다. 딸아이는 이렇게 대답했다. “우리가 많이 울고 정말 행복했던 가정의 밤 말이예요!”

마루시아 소저 드 지저스 코스타, 브라질, 바야주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가정의 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가정의 밤에 대한 이야기를 liahona@ldschurch.org로 보내주십시오.

인봉된 무덤

데이비드 엘 프레쉬네흐트
교과 과정부

아 빠가 돌아가신 다음 날, 엄마와 형제들과 누이,
그리고 나는 장례식 준비를 위해 영안실로 갔다.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는 관을 선택하고 그 관을
안치할 지하 묘지를 선택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다.

선택 사항을 살펴보는데, 한 지하 묘지를 선전하는
관측용 소책자가 눈에 띄었다. 선전 문구에 따르면, 그 지하
묘지는 자동으로 봉인되며 봉인은 75년 동안 보증된다고
했다. 그 엄숙한 상황에서도 그 보증이라는 말이 우습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생각했다. '75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후에 도대체
누가 그 봉인을 확인해 볼까? 누군가가 확인을 했는데
봉인이 풀려 있다면 누가 환불을 받게 되나? 묘지가 봉인된
채로 남아 있을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그렇게 생각에 잠겨 있는데, 문득 마태복음 27장에
나오는 또 다른 묘지, 정확히 말하면 무덤이 떠올랐다.
이곳과 멀리 떨어진, 그리고 아주 오래 전에 있던 그
무덤에는 큰 돌로 가린 입구가 있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라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관측용 소책자에 나와 있는 문구는 별로 그럴듯해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우습기만 했다. 그러나 그 문구는
나에게 영원히 보증되는 약속을 상기시켜 주었다.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마태복음 27:62~66)

역사상 왕과 장군, 통치자들이 내린 모든 명령 중에서
이 무덤을 굳게 지키라고 한 빌라도의 명령만큼 무의미한
명령은 없을 것이다.

그 무덤이 인봉된 채로 남아 있을 가능성은 얼마나
되었겠는가? 사실상 군인들이 그 명령을 수행할 방법은
없었다. 그 무덤이 열리지 않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
내고"(마태복음 28:2)

그 무덤 하나가 열렸기 때문에 지금까지 인봉된 모든
지하 묘지와 묘소와 무덤은 열릴 것이다. 분명한 사실이다.

우리 구원의 반석은 우리를 사망과 지옥으로부터 구조해
주신다. 그분은 "부활이요 생명"이시다.(요한복음 11:25)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옥이 그 사로잡은 영을 반드시
내놓겠고, 무덤이 그 사로잡은 육신을 반드시 내놓으리라.
그러하여 사람들의 육신과 영은 서로에게로 회복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의 부활의 능력으로 의한
것이니라."(니파이후서 9:12) ■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월터 레인

구주께서는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그분은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 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삼 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마가복음 10:33~34; 또한 요한복음 20:1~8 참조)



예 수님이 걸으셨던 길을
걸으면서 스펜서 더블류
김볼 회장은 구주의 부활에
대한 많은 증거들을 기억해 냈다.
그 증거 중에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누가복음
24:6)라는 말을 처음으로 들었던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인 마리아도
포함되어 있다.
“부활의 확실성”, 28쪽 참조.